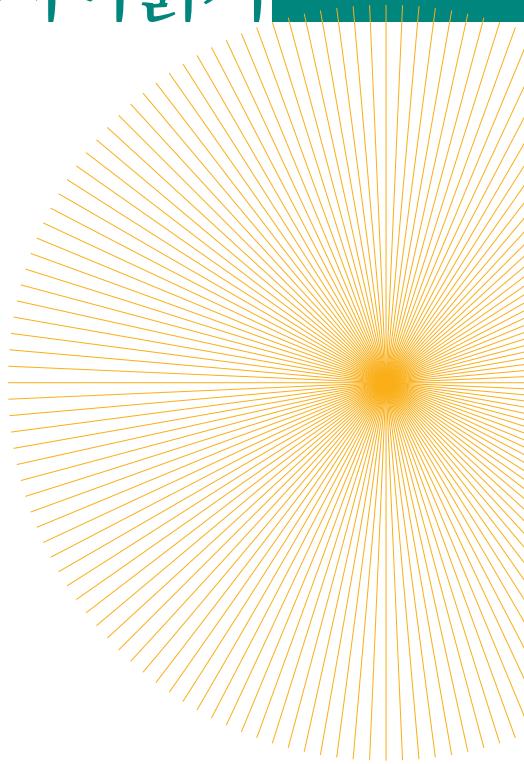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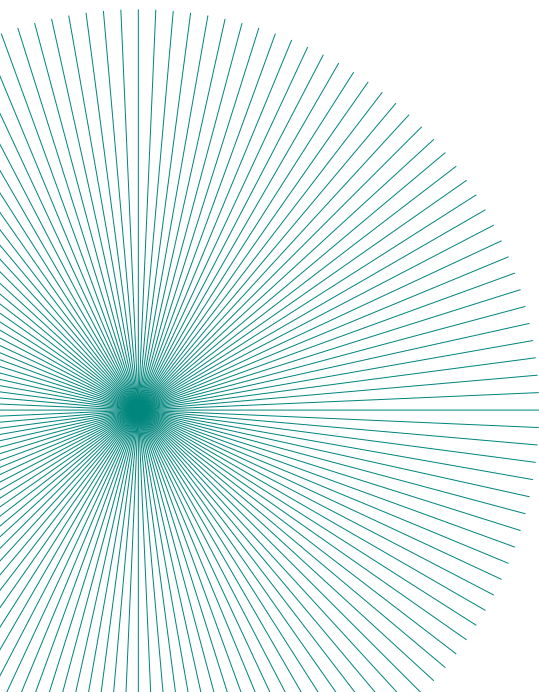


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사업

N개의 지역읽기



contents

책을 내며	4.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들어가는 글	6.	지역읽기와 문화원_ 최영주
결시선	17.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29.	N1. 매핑으로 지역읽기 읽기는 무엇이고 누가 하는가 다양한 방법의 마을읽기 초간단 실습 : 문화원 매핑하기 마을에 대한 선지식에 휘둘리지 않기 마음을 담아 어슬렁거리기 애석하지만 덜어내기 고천동, 간판으로 마을살이를 읽다 학생들의 삶이 보이는 오전명동 도롱마을이 변했다? 그 이유를 찾아서 빠르게 변하는 원터마을 몸으로 읽는 매핑 지역읽기 방법으로서 매핑 의왕에서 이어가기
	67.	N2. 나로부터 시작하는 지역읽기 뭘 해야 하지 궁금한 마을 적극적 말 걸기를 위한 한 평 전시 나와 마을 잇기 글쓰기 워크숍 뒷집지고 숨습하게 마을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에 의한 이야기로 무얼 말하고 쓰지? 평생 써도 못 다 쓸 이야기 한 사람을 위한 모두의 동행 말하고 쓴다는 것의 의미 이어가기
	99.	코를 박고 보네!_ 강신숙
사이시선	115.	N3. 자원조사로 지역읽기 이야기꾼에서 마을큐레이터로 마을큐레이터와 에코뮤지엄 내적 동기를 찾아가는 과정 관심을 담은 지도 만들기 내 안의 토포필리아를 깨우다 이 나이에 치열함은 있다 마을큐레이터에서 동네문화기획자로

143. N4. 추억으로 지역읽기

제보자를 찾습니다|주민만이 할 수 있는 일|우리 동네 문화공간은 오래된 카센터|집집마다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들|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의.기.사 매거진|문화원이 할 수 있는 일|누구나 참여하는 제보시스템|과정으로서의 마을기록을 위하여

167. N5. 구술로 지역읽기

이천문화원이 하는 인문학|시민인문학, 어떻게 시작됐을까?|이천을 담은 인문학|인문학과 시민기록자의 연결|‘다양성’을 담은 인문학, ‘다양성’을 고민하는 기록|기록의 큰 그림|시민기록자 활동 실습하기|구술로 풀어낸 이천 사람들|이천 아니면 가당키나 하나|창전동에서 90년을 살았지|어떤 마을지를 만들 것인가?|우리만 만들 수 있는 마을지도|미쓰리에서 왕 할머니까지, 삶이 담긴 마을|마을의 변천사|우리 마을의 일 년 열두 달|결이 다른 마을지로 확장|사진으로 기록하는 이천이야기|기록 소재의 확장|기록을 넘어 마을살이로|스스로 날아간 독수리 소년단|이천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사람|문화원의 역할|환대의 의례

222. 마을의 진화는 어떻게 가능한가_고영직

230.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마을기록과 아카이빙을 위하여_이영남

경기도 지역문화원이 마을을 다시 읽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엄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지역 재발견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지난 3년간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하남문화원은 ‘나의 이야기’로, 의왕문화원은 ‘매핑’으로, 오산문화원은 ‘자원조사’ 방식으로 협력했습니다. 그 3년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지역읽기’를 진행하고 있는 의정부문화원 <시민마을기록자 양성 과정>, 이천문화원의 <천 개의 기억+천 개의 마을=2000아카이브 프로젝트 사업>을 엮어 「N개의 지역읽기」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전례 없는 전염병과의 싸움으로 당황해하면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언제나처럼 결국은 이겨내겠지만, 자연에 대해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더 크게, 더 빨리, 더 높이 오르고자 욕망했었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어떤 중요한 순간에 길을 잘못 들었는지

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 등의 거대 담론에서 잠시 물러서서, 세계의 어느 한 지점인 한국에서, 경기도에서, 지역에서,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낮은 곳에서, 조금은 느리게, 조금 작은 것을 보면서 잠시 쉬었다 갑시다. 마을에서, 동네에서 우리 주변의 것들을 다시 돌아볼 시간을 가집시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3년의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해주신 민병은님, 객관적인 시선으로 문화원 사업을 잘 정리해주신 문화기획자 신희영과 오다예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에 수록된 각각의 글이 지역문화원에 큰 자산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읽기와 문화원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2017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 사업>의 맥락을 다시 잡으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문화 활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문화원은 시민 없는 시민행사, 주민 없는 마을기록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에서 출발한 고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문화원에서 발간한 다양한 형태의 구술사 자료, 마을지는 민속학자, 역사학자, 향토사학자를 중심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으나, 지역의 고정되지 않은 현재를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8년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두 가지 발전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지역학을 중심으로 한 지방문화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둘째, 지방문화원을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포럼에서 제기한 두 번째 발전방안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시민이 주도적 활동을 한다는 것과 문화원이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 경기도 각 지역문화원에서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현재를 조사하고 읽어내는 지역 읽기 프로그램이 경기도 지역문화원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N개의 지역읽기」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했던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그리고 이 프로젝트와 맥락이 닿아있는 지역문화원의 시민기록사업을 한데 엮어 ‘시민주도의 현재적 마을읽기’라는 흐름을 모아보고자 했습니다. 이 기획은 그동안 지역문화원을 상징하고, 규정해왔던 ‘향토’, ‘전통’, ‘역사’라는 개념을 ‘마을’, ‘지역문화’, ‘일상’이라는 말로 바꾸는 계기가 되

고자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마을’로, ‘지역문화’로, ‘일상’으로 언술^{言說}을 바꿀 때 주민 관점으로 마을 읽기, 오픈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기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은 문화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삶과 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읽기의 목적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잘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을 더 살 만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문화의 보편성, 객관성, 합리성 같은 거창한 개념들을 동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뭇잎 같은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만든다고 합니다.(도종환, 모과, 2000) 우리는 구체적인 시공간의 현실에서 효용성의 가치로 재단 된 사람이 아니고, 삶의 자리를 확인하고, 지키고, 가꾸고, 내어주는 데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N개의 지역읽기」는 여러 명의 집필자에 의해 쓰여 졌습니다. 각각의 사업을 바라보는 집필자의 입장에 따라 작성의 관점이 달라 집니다.

결시선은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기획부터 진행까지 밀접하게 참여한 외부 기획자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대소사의 맥락을 잘 짚어낼 수 있는 적절한 주체로서 주민이 큐레이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추진된 의왕문화원 사례와 하남문화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당시 설정한 방향은 마을의 “관심 있는 것 찾기”와 “잘하는 것 잘하기”였습니다.

철저하게 지역 현장에 천착하여 소박하지만 핵심을 관통하는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왕문화원은 지역읽기를 위한 매핑 방법을 배우고 적용하는 워크숍 과정이었습니다. “마을에 대한 선지식에 휘둘리지 않고, 여행하는 느낌으로 마음을 담아 어슬렁거릴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가시화시키는 과정이었는데, 그동안 문화원에서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이었고, 앞으로 문화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한 주민들은 자리에 앉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동네를 걷고, 기록하고, 관찰하면서 몸으로 경험하는 과정인 ‘매핑’을 통해 마을은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로 재탄생되었습니다.

하남문화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마을 읽기’라는 주제로 3년 간 길다면 긴, 그러나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마을을 관찰하고, 내가 살고 있는 장소를 궁금해 하고, 적극적으로 말 걸기를 해본 기간이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로 접근해 마을과 이어지는 점점을 발견하고, 걷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 의한 이야기”로 변해가는 경험을 하게 된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제 지역 주민들이 살고 싶은 마을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사이시선은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에서 시작하여 자체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오산문화원의 사례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기획팀의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존의 강의 중심이 아닌 워크숍 중심으로 전환, 거창한 결과물이 아닌 나와 옆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오산 지역의 필요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비문화도시사업과 연계해 자체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바깥시선은 자체적으로 주민과 함께 지역읽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의정부문화원과 이천문화원의 사례를 취재해 사업의 맥락과 방향이 전달되도록 서술했습니다.

의정부문화원의 경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제보자를 찾습니다” 같은 도발적이고 참신한 기획으로 마을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기존 구술조사와 기록 과정의 방법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대신 구술과 기록의 소재를 찾는 것에 집중, 주민 이기에 알 수 있는 세밀한 관계의 영역, 일상의 영역을 주민의 눈으로 발견하는 것”으로 주민과 문화원이 협력의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이천문화원의 사례에서는 ‘지역문화원이 인문학 안에서 어떻게 사업과 연관시키고 확산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주민 주체적인 시민기록자 양성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브의 성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문화원에 좋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문화원이 지역을 기록한다는 것이 지역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이 뒤엉켜 있는 ‘과정’들이 곧 지역을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문화원은 지역을 애정하는 자발적, 주체적, 창의적 시민들을 모아내고, 표준화되지 않은 마을의 기억들이 살아 숨쉬는 ‘과정’으로서 오픈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다양성이 보장된 지역 만들기의 시작을 여는 방법은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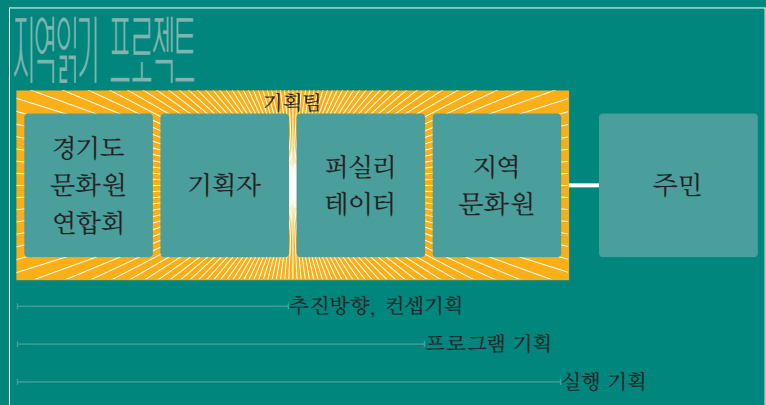
결시선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N1. 매핑으로 지역읽기

N2. 나로부터 시작하는 지역읽기

2017년 시작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경기도문화원 연합회, 협력 문화원, 외부기획자, 퍼실리테이터가 기획팀이 되어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의왕문화원과 2년간, 하남 문화원과는 3년간 주민과 가장 가까워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과정을 설계한 민병은 기획자의 시선으로 의왕과 하남의 사례를 다시 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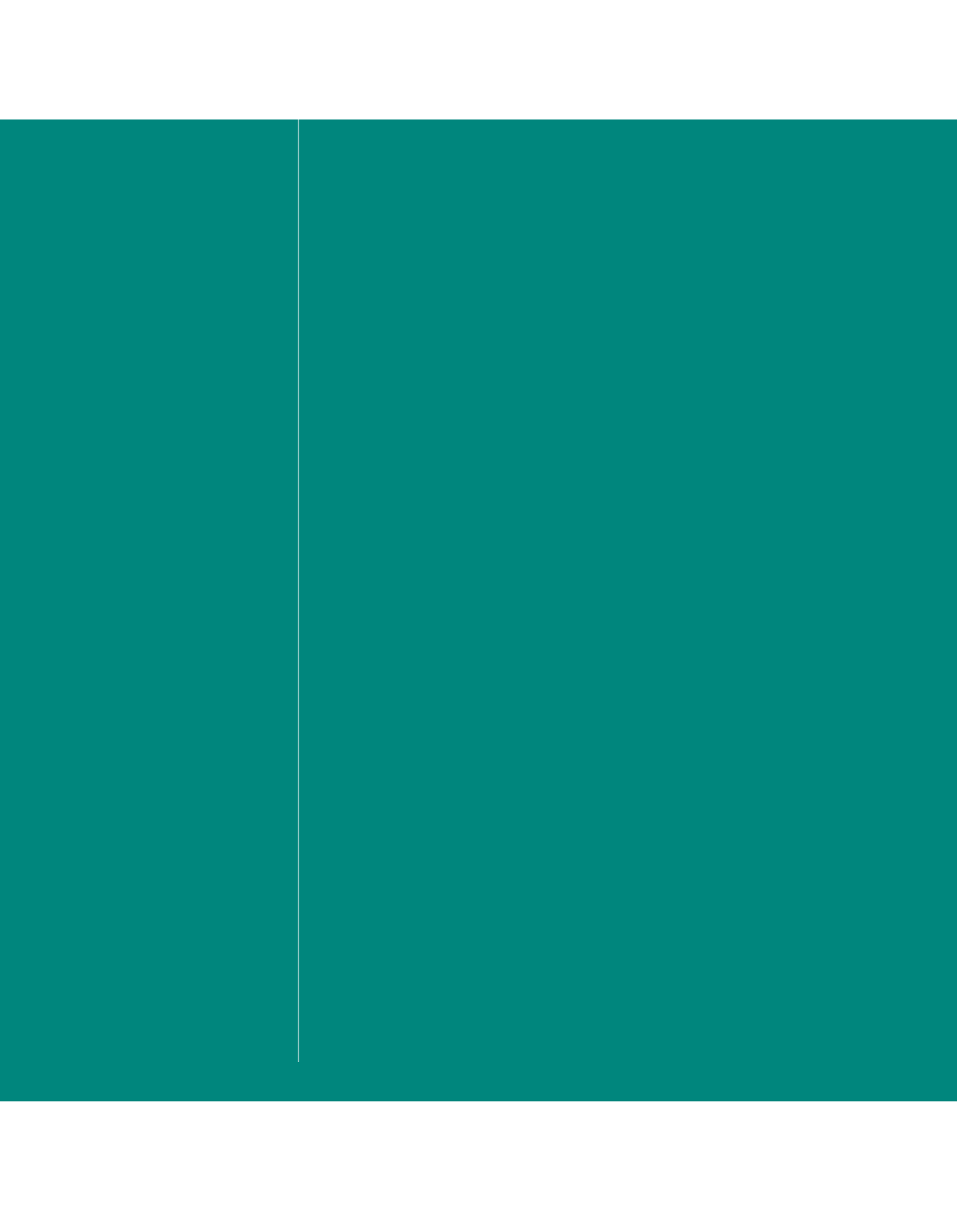


결시선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N1. 매핑으로 지역읽기

N2. 나로부터 시작하는 지역읽기



여 백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누가하는가의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문화원은 60년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지역의 고유한 전통, 역사, 관습 등을 마을 전역에 공유하고 후대로 이어지도록 큰 기여를 해왔다. 마을은 주민의 삶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동의 규범을 만들었다. 마을의 우물이나 숲과 저수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제나 울력 등은 중요한 공동의 규범 중 하나였다. 이는 세대를 이어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 간 약속이며 자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빠르게 바뀌면서 마을의 전통이나 관습이 일상과 연결되지 않아도 무탈한 삶이 가능해졌다. 지난 시절의 경험을 공유하지 않아도 일상은 굴러간다. 살기 위해 시간을 두고 만들어진 삶의 약속들의 자리는 개발이 대신하고 있다. 삶의 깊이는 건물의 높이로 대체되었다.

사람과 관계된 활동들은 살아가기 위한 것들이다. 마을의 전통이나 관습도 마찬가지다. 본질은 사람의 삶에 있다. 〈마을큐레이

터 되기 프로젝트〉는 의식儀式중심에서 생활로, 특정 공간의 특별한 행사에서 삶의 현장으로, 마을의 경험을 대표자 혹은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말하고 쓰고 공유하는 형식으로 전환을 고민하며 기획했다. 일인칭 시점으로 말하고 쓴다면 대의代議의 말들 뒤에 가려진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였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 흐름은 공간을 통해 인식된다. 역사와 전통을 지나간 것으로, 추억 속에서만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간을 통해 지금의 일상을 얘기해 보면 어떨까. 문화원이 갖는 콘텐츠는 바뀌지 않을 것이나, 그것을 누구의 시점에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았다. 그렇게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지금의 지역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라는 다소 모험적인 도전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의도와 문화원 그리고 기획팀이 파트너가 되어 시범사업으로서 구체화되었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인 이유

이 사업의 발단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 중 하나인 〈미래유물전〉 전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도의 〈미래유물전〉 전시 당시, 전시의 내용을 주민들의 참여로 구성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제기 되었고, 마을 주민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에서 ‘큐레이터 되기’ 사업명은 전시와 연결된 이러한 사연과 이어져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다. 전시와 큐레이터는 그 용어가 이미 찰떡이지 않은가.

두 번째는 기록이나 해설과는 다른 관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어떤 사건을 대상화해서 글로 기록하거나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관점으로 지역을 읽어가는 과정이길 바랐다. 원천자료는 대체로 많다. 자료를 각자의 입장에서 모으고 설명하는, 다르게 표현하는 활동이 필요했다.

세 번째는 큐레이션에 대한 의미가 변하고 있다는 데 있었다. 마이클 바스카의 『큐레이션』(예문아카이브, 2016)의 말을 가져와 설명해보면 이렇다. 큐레이션은 본래 ‘보살핀다’, ‘보존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소장품의 규모가 커지고 단기 전시를 선호하면서 선별 및 배치하는 기획자로서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고 단어의 의미가 서서히 변화해 왔다. 16세기에는 ‘보살피다’라는 ‘큐라레(curare)’의 어원대로 ‘소중히’, ‘보관’하는 역할이 강조돼 왔고 19세기에는 ‘선별’하고 ‘해석’해서 전시해야하는 역할이 부각되었으며, 현재 ‘기획자’로서 또는 예술을 ‘명명’하는 위대한(?)역할까지 확대되어왔다. 우리는 기획자로서의 큐레이터에 주목했다.

네 번째 이유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 작업으로서 새롭게 해석하고 배치하는 과정 전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큐레이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잘 맞았다. ‘소중히 보관’하는 역할도

중요했고 ‘선별과 해석’을 하는 역할도 필요했고, 마을을 읽는 기획자로서의 태도도 중요했다. 특히 마을에서 일어나는 대소사의 맥락을 잘 짚어낼 수 있는 적절한 주체로서 주민이 큐레이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큐레이션이라는 말의 변천 과정에 들어있는 역사적 맥락은 마을을 읽는 과정에 모두 필요했다. 우리는 큐레이션을 폭넓게 받아들여 사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되기’가 붙은 이유는 활동 자체, 과정에 주목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마을에 관심이 가장 많은 사람은 마을살이의 당사자인 주민이다. 이는 본 프로젝트를 지역 단위로 곳곳에서 진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도 해당마을을 읽고 해석하는 직접적인 현장 활동이 초점이다.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활동’이기도하며 이미 경험한 것을 큐레이션하는 과정일수도 있다.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질문하는 과정, 같은 것을 새로 읽고 발견하는 과정으로서 조금은 다른 ‘~되기’이고자 했다.

【…이】되다/「동사」(활용형: 되기)

「1」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

「2」【…으로】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

「3」 어떤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르다.

(네이버국어사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재정리)

‘관심 있는 것 찾기’와 ‘잘하는 것 잘하기’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실내에서 강의를 듣는 시간보다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관심 현장은 자기 삶이 일어난 곳이다. 보는 자, 읽는 자, 말하는 자, 쓰는 자 모두 참여자 자신이 된다. 강의에서 이해하고 들은 바대로 말해야 하는 것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으로 전체과정을 기획했다. 지역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의 시계열로 나열하거나, 업적을 가진 누군가가 태어난 곳 혹은 살았던 곳으로 일반화하는 것을 넘어 여태껏 살아왔고, 어쩌다 살게 되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마을인의 삶으로서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과정의 방법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필요했으나 무엇을 담고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는 주민들의 몫이었다. 그릇은 주어지되 재료와 요리는 스스로 해서 담아야 한다. 비어있어야 그릇이다. 이런 전 과정은 마을 중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지역이라는 공통 토대를 가지고 있어 참여한 주민들의 활동이 공통의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다. 이때 우리의 방향은 ‘관심 있는 것 찾기’와 ‘잘하는 것 잘하기’였다. 니나 사이먼은 『연관성의 예술』(연암서가, 2018)에서 자산기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산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잘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의 부족, 문화적 결핍, 예술 재능의 부족과 같은, 결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언

어, 그들이 아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작품 등”과 같은 자산으로서 활동을 만들어가길 바랐다.

생각해보면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신, 개축 된 문화 공간, 훌륭한 강사, 그리고 참신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결핍을 메우기 위해 공간이나 활동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비슷한 공원과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결핍 해소를 위한 노력은 시설들의 균질적인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을 부추겼을지도 모른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결핍이 아닌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했다. 맞고 틀림이나 도달해야할 수준은 없다. 삶을 기반으로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지역 경험은 프리미엄이다.

기획팀

삶을 기반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여러 번의 자문회의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자문회의는 기획회의와 실무추진회의로 구체화되었다. 하남문화원과 의왕문화원을 만나 지역의 욕구를 들었고,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흐름을 잡을 수 있었다. 이는 프로젝트의 전체과정을 매니지먼트하는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은 기획팀이 지원했다.

기획팀은 크게 경기도문화원연합회(도연합회), 외부기획자,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지역문화원으로 구성되며, 네 가지 역할과 기능으로 나뉜다. 도연합회는 사업 전체를 조정하고 지원하였고, 외부기획자는 사업의 자문 및 기획에 참여하였으며, 퍼실리테이터는 참여한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과정을 안내하고 제시하였고, 지역문화원은 본 사업을 담당 및 추진하였다. 지역주민-지역문화원, 지역문화원-도연합회, 도연합회-외부기획자, 퍼실리테이터-참여주민 등 실제 각각 소통의 내용은 다르다. 과정이 진행될수록 소통단위는 쌍방향에서 다방향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즉, 참여주민 간 관계 문제는 지역문화원 담당자가 가장 잘 포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와 현장 진행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팀 구성을 제안한다거나, 기획자에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서 생긴 질문내용 또는 참여주민의 출결과 같은 정보를 전해주며 관계를 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마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주민들 간의 관계다. 세심히 배려하고 신중하게 지켜보는 미덕(?)이 필요하다. 지역에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지역 문화원 담당자들의 맞춤형 조절 대응은 큰 역할이었다.

각 단위별로 누구와 소통하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내용은 다르지만,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네 단위의 관계자가 조언과 필요사항을 전달하고 반영하였다. 이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체 과정을 각각의 역할을 맡은 네 단위가 시작과 끝을 동행했기 때문이며, 사업의 특성상 컨설팅 방식과

다른 매니지먼트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 글은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의 자문과 기획 그리고 전 과정을 함께 논의했던 기획팀 관점에서 쓰였다.

여 백

결시선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N1. 매핑으로 지역읽기

N2. 나로부터 시작하는 지역읽기

의왕문화원

마을 읽기는 어느 한 지점을 읽는 것 같지만 그 지점에 축적된 시간의 흐름을 관찰하며 이루어진다. 시간의 흐름은 공간을 통해 알 수 있다. 공간을 보려면 몸을 움직여야한다. 지역을 읽는 다양한 방법은 거의 모두 그럴 것이나 특히 매핑은 직접 그곳에 발을 따라가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마을을 걷지 않으면 기록할 수 없으니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여 백

매핑으로 지역읽기

마을읽기의 다양한 방법

읽기는 무엇이고 누가 하는가

의왕에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나, 문화원은 이 과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기에 어려움을 내비쳤다. 마을은 그렇다 치고 ‘큐레이터’라는 애매모호한 단어가 주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획팀은 ‘마을 지도를 만들 것’이라고 깔끔하게 제시하기가 꺼려졌다. 진행하다보면 지도를 못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며, 지도 만들기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매핑의 과정은 길고 느리다. 또 주민들이 어떤 동기로 참여하는가에 따라 내용도 달라질 것이며, 이탈하지 않고 동행할지의 여부 등도 불명확했다. 확실한건 지도 제작이 아니라 매핑 과정에 지역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태도를 요하는가를 알아가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성과는 ‘참여 주민들의 태도입니다’라고 제시할 수는 없었다. 매핑이라는 방법의 낯섦과 과정 종료 이후 성과물에 대한 확신에 찬 제시가 없었으므로 문화원 입장에서는 명확한 그림(?)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참여 문의가 있었다고 한다. 4~5개의 모둠 활동에 적합한 참여자 수를 제한해 스무 명을 넘지 않게 모집하였다. 첫날 참여자들은 자기소개를 위해 지도 위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태어난 곳’, ‘예전에 살았던 곳’, ‘지금 살고 있는 곳’을 표시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참여자들은 오밀조밀 지도 앞에서 삶의 궤적들을 붙여갔다.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의왕 지도는 사람들이 주로 주거하는 ‘경향’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선, 말로 구체적인 인생 경로를 듣지 않고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며 떨어져 멀리서 보는 방법으로 매핑을 경험하였다.

방법은 명확했으나 실행은 쉽지 않다. 지도는 읽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점(?)을 찍는 것보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의왕의 매핑 과정에 참여했던 임재춘 퍼실리테이터는 참여자들과 ‘누군가에게 떠밀려가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며, 마을을 보는 관점은 누구여야 하는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한번 해볼 만하겠단’는 생각이 들어야 매핑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도전적인 말을 건넸다. 참여하고 싶다가도 주저하게 되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함보다, 애써 시간과 노력을 내 일상의 시간에서 떼어 놓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지 않던가.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한 정책이든 지원이든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문제로서 인식해야한다는 것, ‘매핑은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 된다’는 말은 참여자들에게 한 번 해볼 맘을 먹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한
정책이든 지원이든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문제로서
인식해야한다는 것,
‘매핑은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 된다’는 말은
참여자들에게 한 번
해볼 맘을 먹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읽다’라는 말은 의미가 다층적이다. 책을 읽는 것이 대표적 행위

인데, 읽는 행위가 아닌 그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그림을 읽다, 마음을 읽다 등 상황을 알아차리거나 특징을 포착하는 것 모두 ‘읽다’라는 말이 품고 있는 의미다. 지역을 알기 위해 조사한다는 것 또한 ‘지역 읽기’라고 표현하는데,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을 파악하고 포착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방식은 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나 “최근 지역 읽기의 중요성이 강조 되는 것은 어떻게 누구의 입장에서 읽을 것이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라는 임재춘 퍼실리테이터의 설명은 첫날 참여한 주민들에게 지역을 읽기 위해 매핑을 할 사람들은 ‘나’임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셈이다.

다양한 방법의 마을읽기

본격적으로 마을로 나서기 전에 읽기 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보통 맵=지도라는 말을 들을 때 학교 교재 말고는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길 안내 교통지도일 것이다.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도 목적지 위치를 알기 위해 아주 자세하게 보거나 조망하듯 크게 보는 등, 척도만 달라졌을 뿐 지도의 형태나 목적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것 외 다양한 지도에 대한 상상은 그리 쉽지 않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몇 가지 다른 방식의 지역 읽기를 퍼실리테이터로부터 소개받았다.

이야기하는 지도

데니스 우드의 저작 『모든 것은 노래 한다』에 소개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았다. 데니스 우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제시된 지도들은 어디쯤에 무엇이 있는가의 정보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예를 들어 ‘동네에 대한 기억을 기록한 지도’는 길이 중심이 아니라 마을에 대한 기억을 매핑한 것이다. 이 지도는 오래된 친구나 이웃들이 사는 집을 표시했는데, 이 지도를 보면 마을에 오래 살았는지, 중간에 이사 왔는지, 고령자가 사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도이다. 그밖에 가로등 불빛을 매핑한 것은 가로등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가로등 불빛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의 크기를 매핑한 것이다. 가로등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므로 가로등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둠을 ‘밝히고 있는 범위’가 핵심일 수 있다. 가로등 불빛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검게 드러난다. 또 가로수의 형태가 가로등 때문에 기형의 모습인 것을 매핑하거나, 할로윈데이 때 호박 랜턴을 매핑한 것도 있었는데 미국의 국가적 국민 축제일에 랜턴이 켜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지도였다. 개인의 호기심, 관심사, 마음을 끄는 요인 등 지극히 사사로운 시작일 수 있으나 지도는 정보 이상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례였다.

커뮤니티 매핑

2010년도 즈음 임완수 교수의 화장실 매핑은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미국에서 화장실을 찾아 지하철로 급하게 이동했던 경

힘을 바탕으로 화장실 위치 정보를 모두가 알면 유용하지 않겠는가에서 출발했다. 이어 소외계층지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매핑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 허리케인 태풍이 마을을 강타했던 사례를 보았다. 전기가 끊긴 재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난방을 위한 연료였는데, 가스충전소의 위치와 영업의 여부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이때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이 자기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각자 매핑을 하고 공유하자는 제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보가 짧은 시간에 축적되었고, 이후 이 정보는 국가 재난 통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허리케인 태풍으로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 시급하고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커뮤니티 매핑의 유용성을 검증한 사례였다.¹⁾

퍼포먼스 ‘담’과 마을 기록 영상

퍼포머 김주환은 동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행위예술 작업을 하였다. 노인들은 다리가 아파 어디를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담이 생기고 나서 친구들을 못 만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이 내용을 몸으로 표현하였다. 동네가 개발이 시작되면 사적 재산에 대한 권리가 논란이 되고 정확한 측량과 마땅한 보상 여부는 뒤따라 나오는 문젯거리다. 있었던 길을 막고 없던 담이 생긴 이야기가 ‘담’ 작업의 내용이었다. 이는 퍼포머의 개인적 활동이 반영된 방식이었고 생생한 현장성과 창의적인 예술성이 반영된 읽기 방식이었다.

1)참조:<https://www.youtube.com/watch?v=JG6RGnXnH-w&t=75s>

감

performer

김주환

'길인데 막혔어. 담만 허물면 길인데,' 47-1, 70대 어머니님





자료제공 : 임재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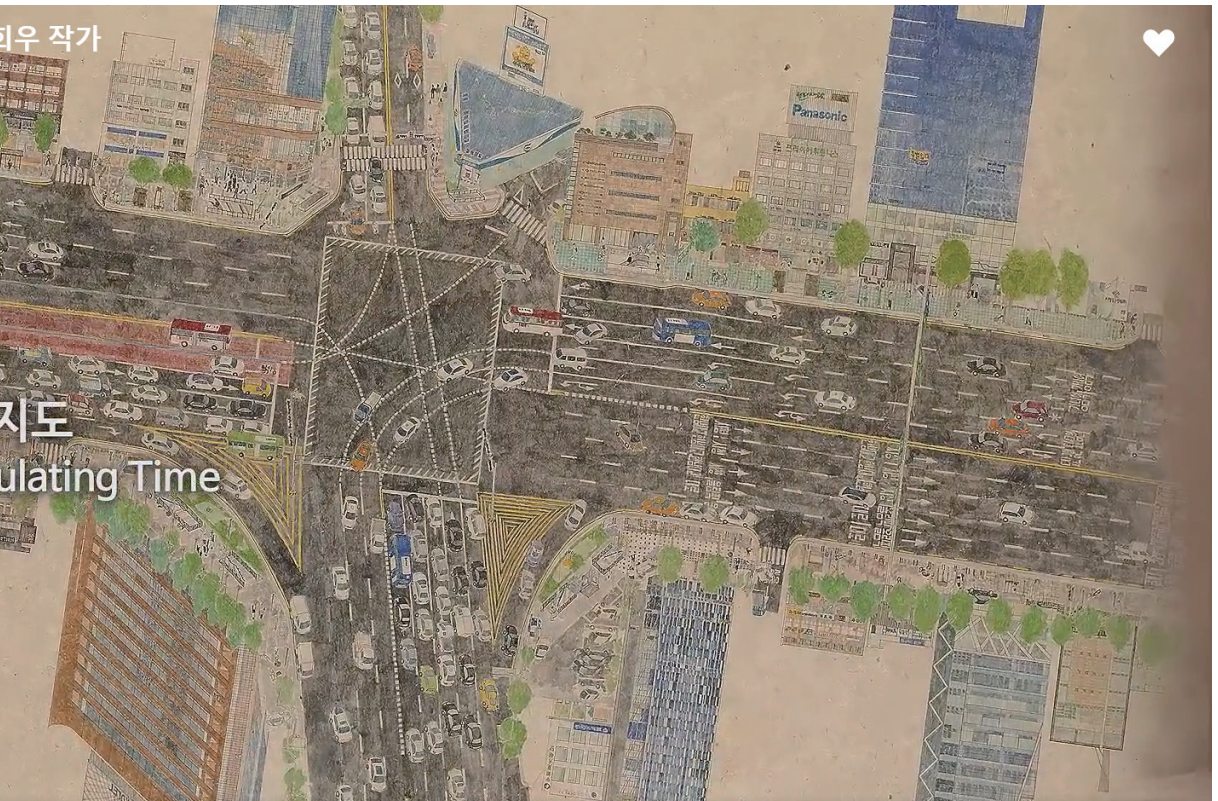
그 외 마을을 영상에 담으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발견했던, 퍼실리테이터가 직접 진행한 사례도 소개되었다. 영상 속에는 상점의 간판이 현수막으로 대체된 것을 볼 수 있다. 변화가였던 거리에서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쇠락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거리두기가 될 때 더 잘 드러나기도 한다.

예술작품으로써 지도

정희우 작가의 작업을 함께 감상했다. 그녀는 강남대로를 그린 작가다. “도시에서 살면서 기억 속의 공간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 도시 변화의 증인으로 기록을 남긴다”고 하였다. 강남대로변에 있는 모든 빌딩의 옥상에서 아래로 찍은 사진과 건물을 정면으로 바라본 시점의 사진으로 작업을 한다. 이차원 느낌의 평면적 그림이다. “강남은 40년 만에 배밭에서 빌딩 숲으로 변했고 강남의 대표 거리 이름이 뱅뱅 간판 때문에 뱅뱅 사거리가 된 것처럼 유서 깊지도 신비롭지도 않은 도시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한다. 강남 대로변에 있는 모든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다. 작가는 도시를 흐르게 하는 일종



의 약속들을 읽게 되었다고 한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도로 바닥에 화살표, 천천히, 좌회전이라는 글씨가 그것인데, 도시 사람들끼리 도시에서 살아가는 약속이고 그 약속들이 바닥에서 조용히 도시의 흐름을 만든다고 말한다. 그 외 도시의 바닥에 있는 맨홀뚜껑이나 종로의 간판을 탁본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작가는 최근 2020년 11월 <길 위에서>라는 제목의 전시를 열었다.



출처 : <https://tv.naver.com/v/424641>

초간단 실습 : 문화원 매핑하기

의왕문화원을 매핑하기로 했다. 접근성을 매핑하는 팀과 내부 시설조사팀 두 팀으로 나누었다. 접근성팀은 문화원을 알리는 이정표와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매핑을 하였다. 그리고 도보, 버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어떤 도로를 사용하여 문화원으로 진입하는가에 따라 설치된 이정표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발표하였고 보충 이정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시설 내부팀은 문화원 공간에 필요한 설치물과 공간안내문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마을 매핑 전 몸풀기와 같은 것이었는데 해보지 않은 것과 해본 것의 차이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후다닥 이루어진 초간단 매핑 맛보기였으나 다들 일, 이, 삼, 옥상 층을 오르내리거나, 문화원 밖 버스정류장과 도로 이쪽저쪽을 살피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그 자체가 즐거워 보였다. 무엇보다 실제 상황을 확인한 이후 말로 설명하는 과정이 약간 들떠보였다. ‘뭐 해 볼만 하겠네’라는 표정이었다고 할까.

매핑,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마을에 대한 선지식에 휘둘리지 않기

우리는 간혹 일반적인 데이터가 나의 일상에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하는 것일 텐데, 이를테면 의왕시 노인 가구 증가라는 데이터가 내가 사는 마을도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의왕시 전체의 통계가 일부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문화공간이 없다는 정보를 읽을 때는 무엇을 문화공간으로 보고 있는지 먼저 질문 해야 한다. 문화공간은 마을 주민 구성에 따라 필요한 형태가 달라진다. 공연장,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카페에 이르기까지 마을에 적합한 문화공간의 종류, 크기, 그리고 개수는 실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식 통계 데이터를 내가 사는 마을에 대입할 때 적합한지 살펴봐야 한다. 정책이 추구하는 비전을 마을 단위에 적용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누구 관점의 정책인가?’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민관협력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매핑은 내 생활 동선이 만들어지는 범위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오차 발생을 줄히는 좋은 대안이기도 하다.

멀리 해야 할 것 중의 또 한 가지는 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한 토박이 주민들의 경험치다. 마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지만, 개인적 경험에 의한 사실에는 주관적 이해¹⁴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임재춘 퍼실리테이터는 “통장,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을 매핑하면서 갖는 원칙”이라고 말한다. 재개발에 묶여있는 지역의 경우 마을 대표격 주민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곳에 사는 주민이 모두 불행하단 식으로 말하지만, 실제 만나본 할머니들은 살만한 동네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어색한 시선과 우연성이 매핑에서는 중요한 요소인데 자기 문제가 되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매핑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을 기록하기
이전에 알고 있는 바를
반영하고자 할 때다.

실제 나고 자란 마을을 매핑하는 팀의 경우 조사 지표가 흔들리기도 해, 매핑과 구술 사이 어디쯤에서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 또 주차문제를 합리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참여자도 있었고,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해 매핑을 하고자 했던 참여자도 있었다. 그러나 주차문제와 공간문제를 ‘문제’로 보는 시각은 ‘답’이 먼저 머릿속을 차지하게 만든다. 매핑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을 기록하기 이전에 알고 있는 바를 반영하고자 할 때다. 매핑은 기록이 말하는 사실을 읽어내는 데 있다. 알고 있는 사실이 많으면 자칫 매핑에서 멀어지기도 한다. 활동 후 드러나는 사실을 읽어가는 귀납적 활동이 익숙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퍼실리테이터는 매핑으로 지역을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팀과 마을을 구성할 때 ‘마을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하기’와 ‘모르는 마을을 선정하기’를 제안해주었다.

마음을 담아 어슬렁거리기

연구목적에 따라 지표가 정해지고 지표를 따라 마을을 매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마을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마을을 잘 알아도, 잘 알지 못해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선뜻 나서기도 어렵지만, 책상에 앉아 알고 있는 지식만 논하면 이야기는 산으로 간다. 여기에 대한 답은 어슬렁거리기인데, 어슬렁거림에도 농도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무엇을 중요시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삶의 태도를 반영하기도 한다. “허물어진 담장, 벗겨진 시멘트, 틀어진 지붕은 보수를 해야 하는데 자기 집을 돌보지 않고 산다. 이 의미는 자기 삶을 재개발에 몰아매고 있다는 것이다. 재개발 논의 10년, 무너진 담장 아래서 아이들은 놀고 있고…, 쾌적한 삶을 재개발로 유예해도 되는가?” 질문하는 마음으로 마을을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기 집을 돌보지 않고 사는 게으른 마을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된 연유에 대한 질문이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행정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마을에 한 사람이 살고 있더라도 그 삶의 질은 존중되어야 한다”(2018 자료집_하남편, 장순란)고 쓸 수 있는 것은 마을을 돌아보고 사람의 삶이 마음에 담겼을 때 가능하다.

자기 집을 돌보지 않고
사는 게으른 마을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된
연유에 대한 질문이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행정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생소한 지역을 매핑하려면 자주 어슬렁거리야 한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어슬렁거리기였다. 잘 알지 못하는 마을을 선정한 팀은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 처음부터 난항이었다.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마을로 나섰다. 돌

아을 때마다 매핑 지표가 바뀌곤 했지만 여러 번 어슬렁거린 끝에 이 팀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세 자릿수 국번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상점 간판이었다. 우리나라 전화번호 국번은 1963년도에 두 자리였다가 1980년에 세 자리로 바뀌었고 10년 만에 다시 네 자리로 바뀌게 된 것이니 적어도 80년과 90년 사이에 개업한 점포일 것이다. 이 팀의 사례는 다음 장에서 소개하겠다.

애석하지만 털어내기

매핑의 핵심은
단순함과 명료함이다.
그러기 위해 기록해야
할 목표와 이를
드러내기 위한 지표가
단순해야 한다.

매핑의 핵심은 단순함과 명료함이다. 그러기 위해 기록해야 할 목표와 이를 드러내기 위한 지표가 단순해야 한다. 너무 많은 정보를 지도상에 올리다보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히 들어오지 않는다. 또한,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은 제각기 달라서, 팀마다 이것을 모두 표기하면 역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흐릿해지고 만다. 게다가 마을에 대해 잘 아는 입장에서 보면 마을과 관련된 사람이나, 장소나, 나무에도 그 사연이 특별하다. 털어내기가 슬프고 아깝다.

마을을 무엇으로 가장 잘 읽을 수 있을까? 혹은 궁금한 것을 드러내는 지표는 무엇일까를 팀 안에서 의견 조정을 해야 한다. 말하는 것만큼 듣기도 중요해진다. 무슨 일이든 함께하는 것은 나와 다른 의견 듣기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책을 같이 읽는 것도 그 느낌 혹은 논점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다. 같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내부자의 시선이 볼 수 있는 시각과, 외부자가 보는 시각의 차이를 보는 재미도 크다. 낮설게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먼저다.

마을 매핑하기

고천동, 간판으로 마을살이를 읽다

낮선 동네, 간판이 말 걸다

개발지역이라 언젠가 사라질 고천동. 팀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낮선 동네를 선정했다. 동네를 다 둘러보면 걸어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낮선 동네를 낯선 시선으로 보기에 도전하기로 했다. 고천동 팀은 우선 동네를 여행하는 느낌으로 어슬렁거리기로 했다. 붉은 벽돌에 아치형 창문이 인상적인 교회는 1930년대 오전동에 지어진 교회로, 80년대에 고천동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한다. 직접 면을 뽑는 20년 넘은 국수공장, 오봉주조와 사근행궁터, 의왕읍사무소 건물, 100년 가까이 된 고천초등학교 등을 알게 되었다. 신도시로 생각했던 의왕이 생각보다 오래된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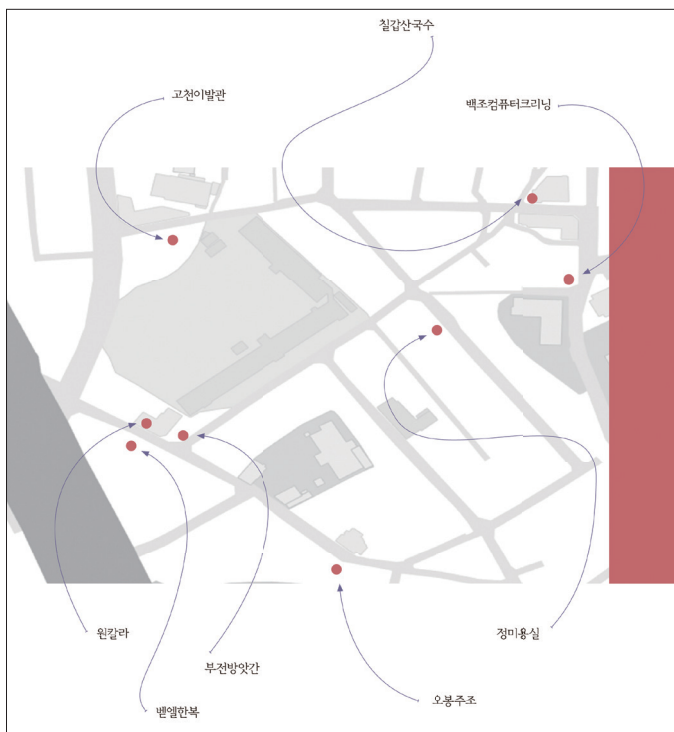
마을 둘러보기를 하면서 상가들의 간판을 모두 찍었는데 “처음엔 익숙해서 별로 새롭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천천히 둘러보며 관찰하니 새롭게 보였다”고 한다. 간판의 정보로 20년 이상 된 가게를 구분해 보았다. 그리고 병원, 학원 등 큰 건물보다 세탁, 수선, 음식, 설비, 미용 업종 등 의식주를 토대로 한 작은 가게들이

많다는 사실을 중간 워크숍 때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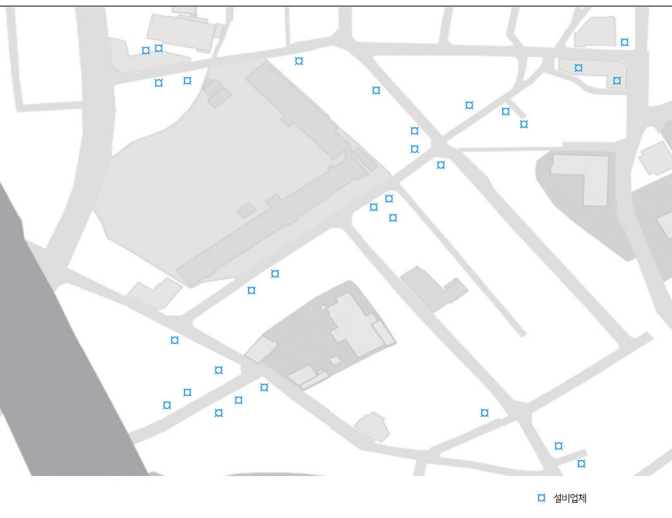
이 팀은 오래된 장소 이야기와 간판 매핑, 두 가지로 정리 되었다. 여기서 '간판으로 마을살이를 읽다'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마을의 모든 간판을 사진 찍으니 100여 개가 나왔다. 이를 하나의 지도에 얹어보았고, 이것을 다시 구분하여 세부 매핑을 해보았다. 그렇게 해서 4개의 매핑이 나왔는데, 전체 간판을 붙여본 간판 매핑과 의류, 미용실, 세탁소 그리고 먹거리 가게를 각 한데 묶어 하나의 매핑으로 그려보았고, 그중 20년 이상 된 가게들만 모아 매핑 했다.



고천동 의류, 미용실, 세탁소 간판 매핑



20년 이상 된 가게 매핑



고천동 설비업체 매핑

매핑을 얼추 끝내고 나서야 설비업체가 유독 많았다는 것을 알았다. 고천동에는 오래된 주택이 많았다. 처음에는 몰랐던 사실이다. 여인숙 같은 곳도 많았는데 지금은 주택으로 많이 개조되었다. 고천동에서 숙박이 필요할 만큼 경제 현상이 주변에 많았다는 추론도 가능했다. 오래된 집들은 자주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비수요가 많았을 것이다. 특히 설비업체가 많이 분포된 곳은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변화하지 않은 안쪽 도로에 많았다.

마을을 여행하듯 어슬렁거리면서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보기도 오래된 건물이었다. 그리고 익숙한 간판에서 세 자릿수 국번이 적힌 전화번호를 발견했고, 간판을 지표로 전수 조사를 하였다. 매핑 이후 알게 된 것은 가게들을 분류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가게가 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과 설비업체가 많았다는 사실이었다. 이 팀은 의왕의 ‘오래된 것 찾기 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고천동의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라는 발표 제목을 정하고, 기본생활간판, 옛 이야기길, 활동스케치와 같이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정리했다. 팀원들은 옛것과 새로운 것이 같이 있는 곳, 재개발을 반대

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곳, 아파트와 골목이 같이 있는 곳, 고천동을 ‘공존’이라는 한 단어로 소개했다.

마을을 여행하는 느낌으로

이 팀의 팀원들은 밴드를 만들어 마을을 돌아다니는 각자의 소감을 기록하고 생각을 나누었던 활동 중 팀 간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팀으로 기억한다. 이들도 매핑 주제를 정하는데 생각 나눔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생소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처음에는 무엇을 보고 기록해야할지 몰라 당황했으나 ‘마을을 여행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돌아다니고, 소감을 기록하여 나누고 생각을 말하고 듣는 과정 그리고 다시 마을을 다니면서 시범적으로 구글 지도에 매핑하기를 해보고, 배우기도 했다.

여행하는 느낌이란, 마음은 느긋하게 행동은 느릿하게를 담은 말일 것이다. 마을을 숙제하듯 조급하게 바라보면 낯선 시각보다 익숙한 것을 찾게 마련이다. 이 팀은 생소한 지역을 어슬렁거리며 보이지 않던 것을 발견하는 과정을 정리해 발표했다. 고천동 팀의 사례는 첫해 참여한 네 팀의 사례 중 하나다. 첫해에 참여한 이 팀은 두 번째 해에 몇 명의 주민이 다시 참여하면서 매핑 방법을 활용하여 도룡마을 읽기에 나서기도 했다.

여행하는 느낌이란,
마음은 느긋하게
행동은 느릿하게를
담은 말일 것이다.
마을을 숙제하듯
조급하게 바라보면
낯선 시각보다 익숙한
것을 찾게 마련이다.

학생들의 삶이 보이는 오전명동

어슬렁거리면 보이는 것들

오전동에 각 18년, 12년 거주하고 있는 참여자와 말수가 적은 한 명의 남자 이렇게 세 명이 한 팀이었다. 오래 거주한 두 명의 오전동 주민은 마을 학교 관계자였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행복하고 건강한 마을살이를 위해 품을 내고 있는 마을 활동가다.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마을 매핑 과정을 통해 마을 학교운영에 자원을 연결하고 싶은 속내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마을 학교와 연계될 만한 매핑을 찾느라 여러모로 힘들었고, 팀원들의 의기투합 과정도 많이 어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초반 팀 회의를 몇 회 진행하면서 중도포기 할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기획팀을 긴장시켰던 팀이기도 했다.

길은 목적 없이 걸을 때 많은 것을 보게 한다. 어슬렁거리림의 역설인데, 꼼꼼히 보라치면 보고 싶은 것만 눈에 들어온다. 생각지도 않은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머리는 비우고 마음은 여유 있을 때다.

현장 답사 때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걸었다. “이렇게 꼼꼼하게 살살이 본 건 처음이다”라고 말한 참여자는 오전동 거주 18년 차다. 길은 목적 없이 걸을 때 많은 것을 보게 한다. 어슬렁거리림의 역설인데, 꼼꼼히 보라치면 보고 싶은 것만 눈에 들어온다. 생각지도 않은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머리는 비우고 마음은 여유 있을 때다. 오전동 주변 현장 답사를 기획팀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층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한몫했을 것이다. 고등학교들 사이에 오전동을 ‘오전 명동’이라고 부른다는 데에 착안해, 오전동을 매핑하기로 급선회했다.

명동이 붙게 된 이유는 없는 것 없이 학생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서다. 학원-독서실-간식-PC방과 노래방 그리고 문구점으로 이어진 상점가들이 도로변에 집중되어있다. 오전명동은 이 대로변을 말하는 것인데, 조사된 매핑을 보면 학생들의 하루의 삶이 그려지는 거리였다. 참여자들은 치과가 많아지고 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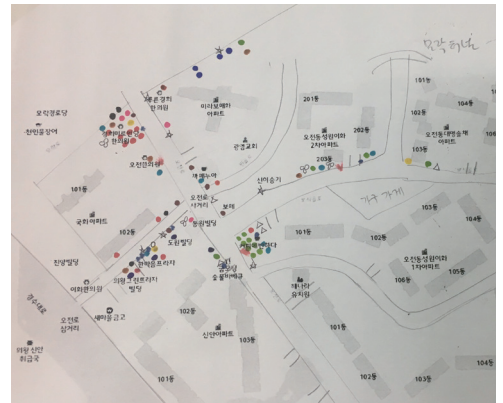


인과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 오전명동에 없는 딱 하나가 성형외과라는 이야기, 상가 건물 위만 쳐다보고 다니다 길 건너편에서 건네는 인사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 등 ‘어색한 팀’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1번 국도인 경수산업도로와 모락산 사이 고층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오전동, 오전명동의 유래로 시작한 매핑은 그렇게 정리되었다.

매핑 & 리터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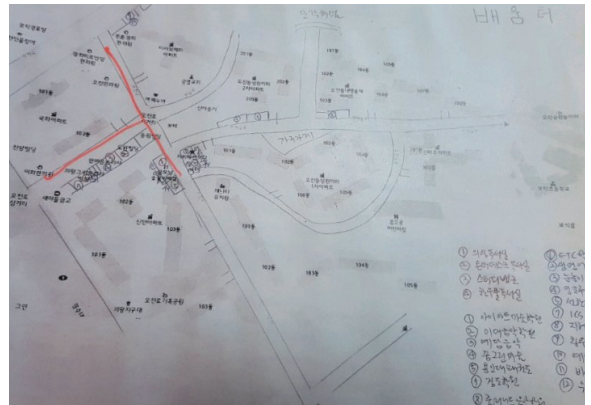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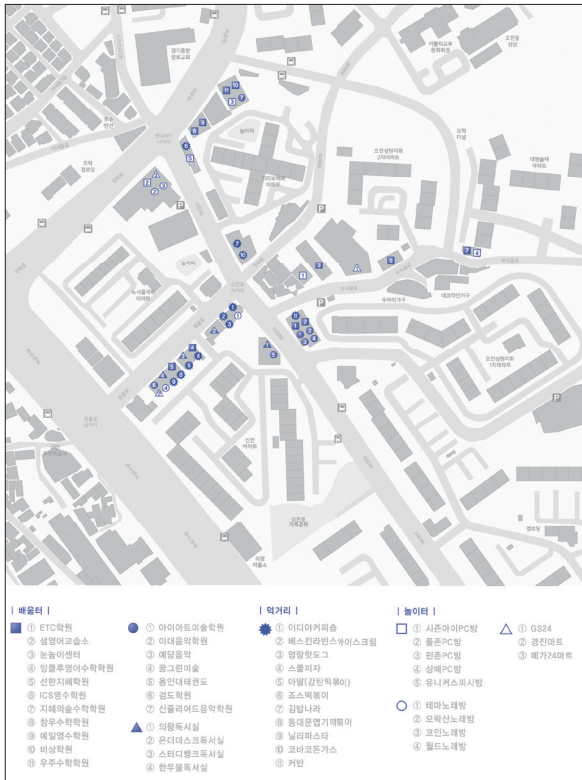
매핑을 위한 활동이 오전동이라는 동네를 이해하는데 좋은 툴로서 작용했다. 실제 드러난 사실은 주민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참여자들의 생각이 매핑에 나타난 부분이다. 오전동 주민의 삶의 패턴은 아이들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 교육받기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매핑이었다. 이후 작업이 더 진행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오전 오후 동선에 따라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매핑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퍼실리테이터의 중간 피드백이 있었다.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하고 먹고 노는 삶이 고스란히 드러난 지도를 보면 삶의 질에 대해 고민을 던지는 매핑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팀



오전동 배움터, 먹거리, 놀이터 매핑

은 개인적으로 마을학교 운영에 도움이 될까하여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다. 그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오전명동 매핑 안에 담겨진 학생들의 일상이 읽히면서 이들이 고민하는 건강한 마을에 대한 열망이 어렴풋이 이해가 갈 듯 했다.



오전동 배움터, 먹거리, 놀이터 세부 매핑

도룡마을이 변했다? 그 이유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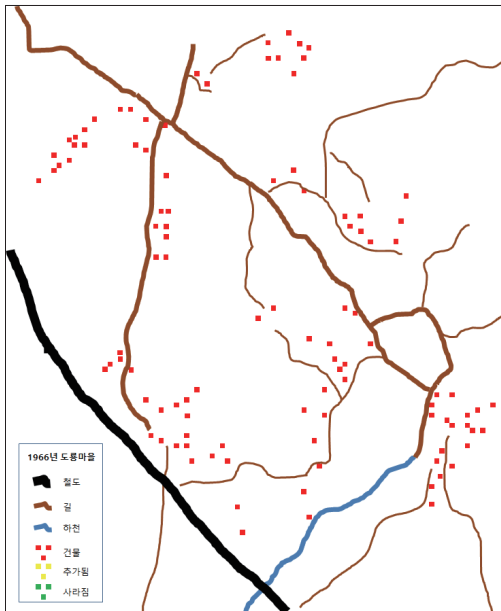
변했다는 느낌과 변화 없는 데이터

도룡마을은 사오백 년 된 오래된 자연마을로 행정명은 부곡동이다. 이 팀은 작년에 이어 매핑과정을 참여한 두 분이 연속으로 참여하고 있고, 향토연구 활동을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팀이다. 도룡마을에 추억을 갖고 있는 이 팀은 공공주택 예정지로 선정될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면서 아쉬움에 이 마을을 선정했다고 한다. 개발에 대한 논의 이후 마을 입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오래된 지역이라 집성촌이 있어 성씨 조사를 통해 집의 변화를 매핑하기로 하고, 길의 변화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지도를 이용해 변화 추이를 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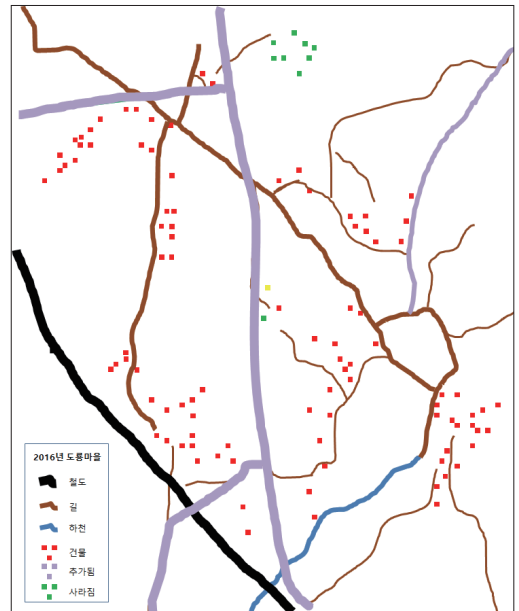
성씨 매핑은 구글 지도를 이용해 집 주소 및 집 사진 리스트를 만들고 마을 일을 보시는 분을 통해 성씨, 전출입상황, 회사가 된 집터, 회사가 된 나대지 등을 조사하여 매핑 했다. 길의 변화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 가능한 1966년 지도와 1980년대, 1990년대 지도를 찾아 비교했다. 그러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02년 덕영대로의 개통으로 마을이 나뉘면서 집성촌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2016년 지도를 찾아 길과 집의 변화상황을 OHP 필름에 점으로 찍어보았으나 이 또한 큰 변화를 찾기 어려웠다.

변화가 많지 않은 길은 예전 길과 새로 건설된 길로 표시하고, 성씨 집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집의 형태를 자세히 조사해 표시했다. 즉 증개축 여부와 주거용에서 사무실로 용도가 변경되었는지, 주거와 사무 두 가지 용도로 다 사용하고 있는지, 집터의 일부분을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 자세히 구분했다.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던 ‘마을의 변화 원인’에 의문이 풀리게 되었다. “길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사람이 사는 낮은 집들이 2층 공장으로 바뀌면서 마을이 변했다고 느껴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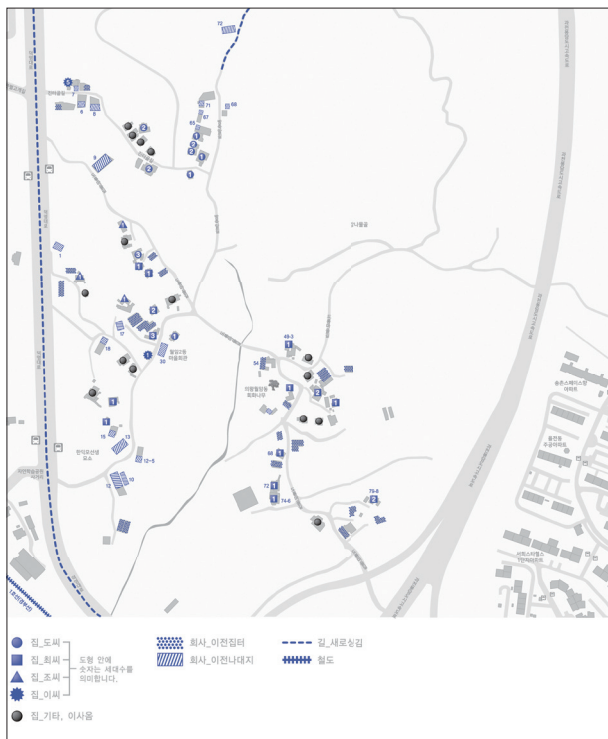
사오백 년 된 자연마을이 사라진다는 위기감으로 마을 사람들을 기록하고자 성씨 매핑을 시작하였으나, 마을 변화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무엇을 기록해야할지 지표 잡기가 모호해졌다. 그



1966년~2002년 도룡마을 길과 집의 변화 매핑



2002년~2016년 도룡마을 길과 집의 변화 매핑



도룡마을 성씨, 길과 터의 변화 매핑

러나 항공사진을 찾아 비교하고, 구글 맵을 이용해 마을 인터뷰도 진행하면서 ‘마을이 변했다’는 가설을 실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후 집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면서 생물의 변화가 아니라, 용도전환으로써 변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팀이 보여준 매핑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드러내기 힘들었으나 그동안 진행한 작업들은 상당히 충실한 단계를 밟았다는 과정상의 성과였다.

매핑이 가시적이라면, 의미를 채우는 구술

이 팀은 어떤 변화를 상상했을까? 있었던 것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것을 상상했을까? 그랬다면 매핑에 확연히 드러났을 것이다. 있었던 점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곳에 점들이 생겨나면 한눈에도 금방 알 수 있는, 변화 중인 도룡마을이 펼쳐졌을 것이다. 우리는 주로 재개발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변화를 목

격해왔다. 현 집은 밀어 없어지고 쭉쭉 커진 집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마을의 풍경이 뒤바뀌는 것이 개발의 결과이지 않던가.

도룡마을처럼 사라지지 않았지만 변화된 것도 주의 깊게 읽어볼 현상이기도 하다. 이쯤에서는 매핑의 단순함으로 메워지지 않는 구석이 있다. 매핑은 가시적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의미를 읽어내기 어렵다. 마을을 깊게 읽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채워지기도 한다. “마을이 사라지면 상실감에 상처받을 것 같아” 조사에 나섰다는 팀원, “마을과 이별을 준비하는 계기”로 시작했다는 팀원도 있다. 이후 마을 사람들과 구술기록 작업을 진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매핑은 가시적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의미를 읽어내기
어렵다. 마을을 깊게
읽는 방법이 필요하다.

빠르게 변하는 원터마을

일주일 새 바뀐 도로

원터마을은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도로명은 ‘원터아랫길’이다. 이 팀은 원터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주민 한 명과 의왕시에 거주하나 원터마을을 잘 모르는 주민 세 명이 참여했다. ‘원터마을에 대한 역사며, 사람들이며 거의 모든 것을 꿰뚫는 토박이 주민’의 애정과 열정 담긴 소개로 원터마을을 매핑하기로 했다. 이 마을은 30여 명 정도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다. 농사 짓던 땅이 수용되어 안양-판교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가 되면서 마을의 일부가 도로가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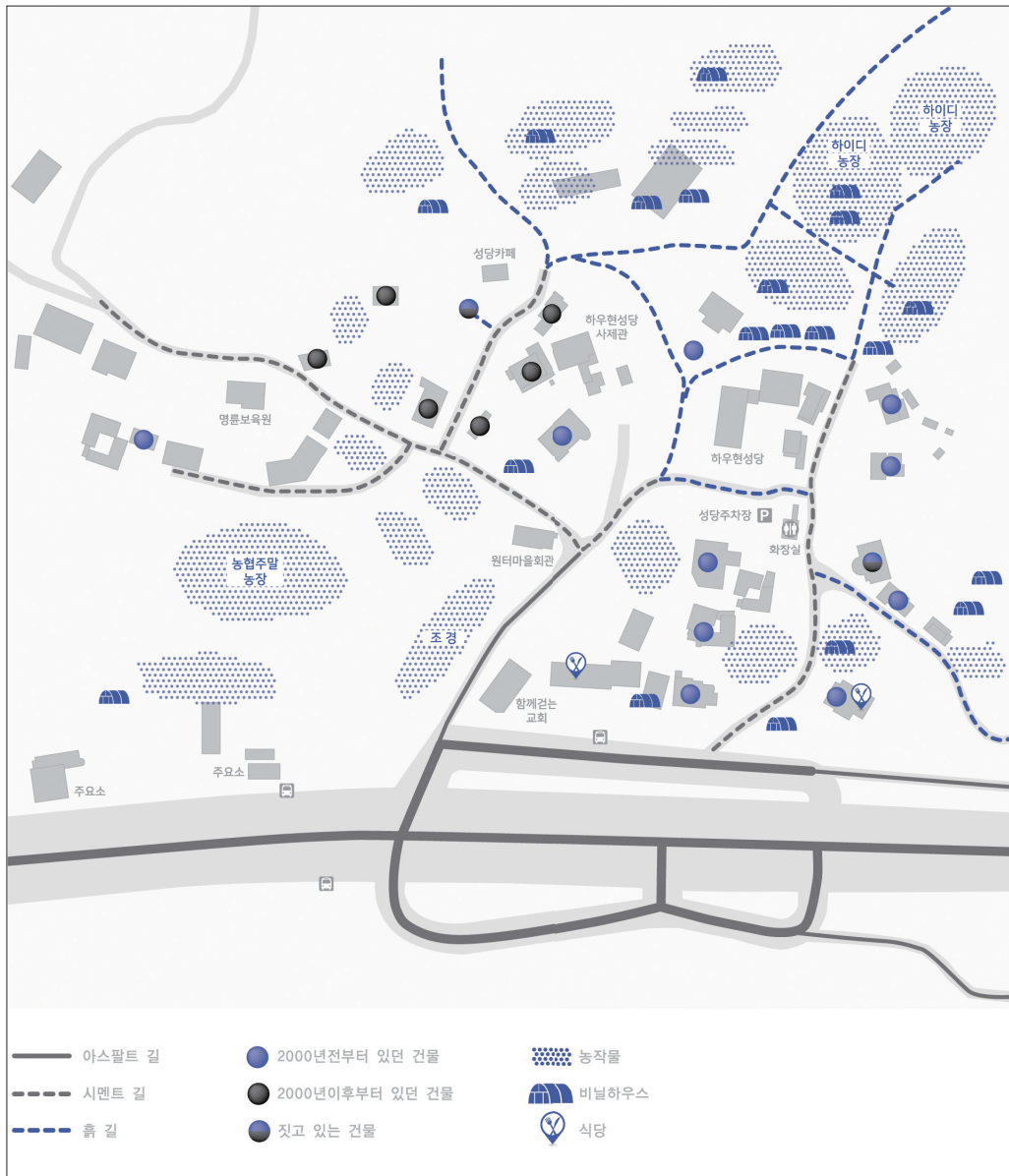
이곳의 변화는 답사할 때마다 매번 변했다는 소감에서 알 수 있었다. 여덟 차례 가까이 마을을 찾았다는 참여자는 일주일 새 흙길이 시멘트 길이 된 경험을 전했다. 이 팀은 마을 답사가 가장 활발한 팀이었다. “처음 갈 때 다르고, 두 번 갈 때 다르고, 세 번 갈 때 또 다르다. 한 마을을 이렇게 집중해서 어슬렁 돌아보는 게 흔치 않은데 (...) 머리로 익힌 것보다 몸으로 익힌 것이 더 오래간다고 들었는데 직접 발로 걷고 보고 또 걷고 또 보고, 서로 나누고 만들고 붙이고, 이 기억이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고 말한 참여자의 소감처럼 마을의 특징을 각자의 관심사로 어떻게 매핑할지 고민하며 열심히 다녔던 팀이었다.

털어내기로 드러내기

한 팀원은 원터마을에서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을 제안하였고, 다른 팀원은 식물과 꽃나무의 서식지를 알아보자고 했다. 새로 생긴 길과 오래된 길을 알아보자는 제안도 있었고, 동양원터 역사와 하우현 성당에 대해 조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의 흥미가 모두 달라 의견조율이 필요했다. 내부자 시각을 가진 참여자는 마을 이야기 조사를 꼭 하고 싶었고 외부자 시각을 가진 참여자들은 제안 할 주제가 딱히 없기도 했다. 회의 도중 매핑 기록의 범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중간에 퍼실리테이터가 매핑을 위한 필요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말을 끊기도 했다. 각자의 관심을 매핑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남은 과제였

다. 작년 참여 주민들 간 관계가 어긋났던 경험이 있어 몹시 긴장 하던 기획팀은 조정과정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이 팀은 마을이 매년 바뀌고 있음을 드러내는 길에 집중했다. 원터마을은 마을을 이해하기 어려웠겠다 싶을 만큼 마을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아주 작았다. 그런데 작고 좁은 만큼 변화의 속도가 보일 만큼 빨랐다. 길이 도로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맞는 말이겠다. 작은 마을에 아스팔트, 시멘트, 흙자갈 길이 공존한다는 것을 매핑 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길은 직접 그렸다. 개인 소유의 길은 지도에 표시가 되지 않는단다. 중간 워크숍 때 걱정했던 마을 이야기를 포기하고 도로의 변화과정에 집중하면서 매핑은 어디에도 없는 ‘도로로 바뀌는 중인 길’을 나타낸 지도가 되었다.



원터마을 길과 건물 매핑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_매핑활동

몸으로 읽는 매핑

마을 읽기는 어느 한 지점을 읽는 것 같지만 그 지점에 축적된 시간의 흐름을 관찰하며 이루어진다. 시간의 흐름은 공간을 통해 알 수 있다. 공간을 보려면 몸을 움직여야한다. 지역을 읽는 다양한 방법은 거의 모두 그럴 것이나 특히 매핑은 직접 그곳에 발을 따라가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마을을 걷지 않으면 기록할 수 없으니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강남대로를 그린 정희우 작가도 그림 그리기는 작업실에서 했겠지만 그리기 전에 강남 대로변에 붙어있는 건물 옥상은 모두 올라가 보았다고 한다. 또 건물의 폭과 간격을 보폭으로 측량했으니 작가의 말대로 ‘몸으로 그린 다큐’다. 자기 동네를 다양한 관점으로 혹은 느낌으로 표현한 데니스 우드도, 임완수 교수의 커뮤니티 매핑도, 김주환 퍼포머의 예술행위도 마을이라는 공간을 몸으로 읽어내는 과정이다.

때문에 매핑은 어슬렁거림이 핵심이다. 마을을 어슬렁거린다는 것은 하릴없이 건들거리며 걷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말이기도 하

특히 매핑은 직접
그곳에 발을 따라가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마을을 걷지
않으면 기록할 수
없으니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꼼꼼히 볼 수 있었던
것은 어슬렁거림이
낮설게 보기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다. 길은 목적지로 이어진 통과 과정일 뿐 길 위에 있는 일이 없어진 지금에서는 어슬렁거림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행하는 느낌’으로 어슬렁거리기를 시도했다는(고천동 사례) 것은 어슬렁거림을 가이드하기에 적당한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18년을 산 주민으로서(오전동 사례) 같은 동네를 ‘여행하는 느낌’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어슬렁거리면서 마을을 꼼꼼히 볼 수 있었다’(원터마을)는 문맥상의 역설이 가능했던 것은, 도달해야 할 목적이 없는 관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목적을 향해 길을 걷는다면 어슬렁거림은 불가능하다. 또 이미 봐야할 것이 정해져 있어 안 보이는 것은 여전히 보기 어렵다. 꼼꼼히 볼 수 있었던 것은 어슬렁거림이 낮설게 보기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지역읽기 방법으로 매핑

내가 살았던 경로를 지도에 찍어보면서 지도 위의 점으로 자기를 소개하기로 매핑하기를 시작했다. 마을에 대한 발언은 누가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지역을 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매핑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 간단하지만 문화원의 안과 밖에 대한 매핑을 해보고 직접 바라는 바를 발표해 보았다. 짧은 기간이지만 가능한 매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을 이어갔다. 다행인 것은 처음해 보는 작업이라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지역 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30~50대의 비교적 젊은 층의 참여자들이어서 그런지 새로운 방법을 배운다는 것에 호기심이 많았다. 2년 차에는 관심사에 따라

깊이 있는 마을활동을 이미 하고 있는 주민들 참여가 많았다. 1년 차에 이어 지역특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 운영자의 참여, 민간에서 운영되는 향토연구회는 연구팀원의 개별 참여에서 연구팀으로 확대해서 참여하였고, 지역에 오랫동안 살면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주민팀이 참여하였다.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마을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 혹은 물건 그리고 지리 환경적 특징 등 정보는 많이 알게 되었으나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시각화하는가의 어려움은 활동가들이 갖는 고민일 것이다. 산재된 지식을 2차로 활용하는 방안,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과정에 적절히 녹여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매핑은 꽤 매력적인 툴이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 사람마다 갈구하는 것도 다르고 하고 싶은 말도 다른데 그걸 누가 어떻게 전달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다”(2019 자료집, 2년차 참여자 소감)는 말은 마을 활동의 주체와 방법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산재된 지식을
2차로 활용하는
방안,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에 적절히
녹여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매핑은 꽤
매력적인 툴이었다.

의왕에서 이어가기

첫해는 매핑 결과를 보면서 시각적으로 드러난 점들이 명확하지 않아 당황했던, 매핑이 생소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떠올린 해라면, 두 번째 해는 마을로 나서는 것이 그래도 두렵지만은 않았던 듯하다. 또 두 해 지속 참여했던 주민의 아쉬워했던 점을 보완

해 자기 마을을 매핑할 수 있었고, 팀별 마을 읽기과정 피드백을 여러 번 진행했다. “2년차 마을큐레이터 과정에서 많이 보완을 해주셔서 놀라기도 했고, 감사했다”는 주민들의 소감도 있었다. 참여자들의 욕구와 요구는 때로 아주 구체적이다. 문화원에 대한 기대감 또한 크다. 안정적인 활동 공간과 향토사 연구의 선행기관으로 그동안 집적된 정보만으로도 지역에서 향토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역에 관심이 많은 운영단체가 있다는 것은 활동의 폭을 넓혀 가는데 좋은 조건이다. 지역이라는 공동 베이스에 연관된 활동을 연결하면 또 다른 이중배합의 결과물을 상상할 수 있다. 문화원이 크고 작은 다종다양한 운영단체 혹은 개인들을 파트너로 만나고자 접면을 확대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원 내 적은 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의 크기는 제한적이다. 더 큰 사업을 해야 할 경우 그 방안은 지역의 단체와 파트너십을 갖고 네트워크망을 확대하는데 있을 것이다. 문화원은 주민의 역량이 만나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주민 공간, 사람과 사람, 혹은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 공간,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시범공간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 백

결시선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N1. 매핑으로 지역읽기

N2. 나로부터 시작하는 지역읽기

하남문화원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마을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목표였다. 자기 경험을 말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자기 경험을 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로의 진입이다. 먼저 자기 설득이 가능해야 한다. 쓴다는 것은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자기만의 작업이다. 말하기와 쓰기는 다른 영역이다. 쓰기는 자기의 경험을 깊게 들여다보게 한다. 내 삶을 이해하는 깊이도 쓰면서 달라진다. 자기 삶을 쓰고 나면 말하기도 바뀐다.

여 백

나로부터 시작하는 지역읽기

첫 번째 해_ 마을 관찰하기

뭘 해야 하지

하남에서 진행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3년을 작성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1년만 하고 마 무리될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참여자나 기획팀 모두 암묵적으로 (정말로) 그리 생각하게 되었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첫 번째 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시작해야 할까는 기획팀에게 사뭇 진지한 고민이었다. 이 프로젝트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상상 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이다. 영화의 경우는 오프닝 첫 장면이, 소설에서는 첫 문장이 (김훈 소설가의 첫 문장은 외울 정도로) 유명해지기도 하며, 노래에서도 첫 소절의 음률이나 가사가 얼마나 느낌적인가가 중요시되지 않던가? 듣도 보도 못한 ‘마을큐레이터’가 뭐냐고 주민들은 문화원 담당자에게 묻고, 문화원 담당자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물어왔다. 이에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간은 ‘마을큐레이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합당한 응대의 시간이었 바랐다.

기획팀은 서촌에 살면서 지역을 기록하고 ‘일상에서 보물찾기’ 활동을 하며 『서촌방향』 책을 쓴 설재우 지역문화기획자를 첫 번째 이야기꾼으로 초대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설명하기도 하고 일제 식민지 시절의 삶이 남아있는 흔적과 기름 떡볶이집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나의 문화유산은 오락실’이라고 소개하기도 하며 서촌 마을 주민 당사자로서 소소한 일상을 바라보는 여러 개의 시선을 소개했다. 또한, 나의 기억과 마을의 기록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했다.

특강에 대한 나름의 기준은 있었다. 지난 이야기를 받아 적는 기록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어야 했고, 우리 마을을 대표하는 문화재나 유명한 인물에 대한 설명이나 지명의 유래와 같은 내용은 피했다. 사건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치적이나 시간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했다. 이러한 작업들은 시지(市紙)나 시청 홈페이지에 대략 실려 있기 때문이다. 하남에서의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문화해설사도 아니고 구술채록 작업도 아니고 생태해설 성격도 아니라는 것을 틈나는 대로 강조했다. 이미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의 참여가 많아서인데, 특별 활동 때 기존 활동 경험대로 쓸릴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숙한 활동을, 자기 이야기를 말 하고 쓰는 과정으로 활용하기를 바랐다.

참여자들은 하남에서 나고 자란 주민, 하남에서 태어나 타지에서 살다 다시 돌아와 살고 있는 주민,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하남을 두 번째 고향으로 삼은 주민 등 다양한 이유로 하남에 정착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남을 최종 정착지로 생각하고 모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졌다. 제2의 인생 혹은 제3의 인생을 하남에서 보내고자 하는 주민들이라 첫째 참여자 중에는 3~40대도 있었으나, 3년차 지속 참여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50대에서 70대까지 비교적 연령층이 높았다. 이들과 함께 마을에 대한 궁금한 점을 찾고, 마을 관찰을 시작하였다.

궁금한 마을

첫째의 작업은 마을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발견하는 과정, 마을에 대한 나의 관심에 대한 질문이었다. 어쩌면 궁금한 게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 이유를 알아채면서 조금씩 나갔다.

궁금한 분야가 비슷한 사람들 3~4명이 한 팀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진행했다. 파트너의 시선을 따라가 보고, 나의 의견도 지지 받고, 지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천천히 마을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요청했다. 팀원들은 오래 산 옆 사람이 전해주는 마을 이야기에 동공이 커지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마을 내 단골 김밥집의 가성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공유하였다. 본 프로그

램에서 끝까지 요구한 것은 유명한 인물이나 문화재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지 않기를, 자기의 일상에서 마주한 것을 들여다보기를 놓치지 말라는 당부였다. 그럼에도 첫해에는 아는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로 되돌아가기도 했고, 명장 이야기 혹은 흥밋거리에 머물기도 했지만, 모두 열심히 말하고, 돌아다니고, 썼다.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은, 활동은 팀으로 같이 하나, ‘1인 1글 제출’이었다.

적극적 말 걸기를 위한 한 평 전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담아 한 평 전시 발표회를 열었다. 형식은 전시 발표회이지만 전시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무엇을 발표할 것인가? 전시로 보여주지 못한 것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남길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수많은 선택이 필요한 조정의 시간이었다. 각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에 맞게 선별하되 과정은 모두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했다. 각 팀들은 의견을 조율하고 내용에 맞는 전시 방법과 시각적인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따로 만났다. 그리고 팀별로 자기가 조사한 것들을 설명했다. 이렇게 1년은 금방 흘렀다. 모두가 마을에 대해 가졌던 궁금증과 궁금증이 해소된 지점, 그리고 다시 궁금해진 점들을 적든 많은 쓰고 직접 설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두 번째 해_

나와 마을이야기

나와 마을 잇기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보는 것이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도 사실 막연하다.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표현의 하나일터인데 그 표현이란 것이 다른 어떤 것과 마주할 때 생기는 반응인 것이지 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내가 ‘나’인 이유는 ‘나’ 밖의 다른 것이 있음으로 가능하다. 나를 설명하는 것은 나 자체로 불가능하고 나와 연관된 관계로 이야기하게 된다.

나를 설명하는 것은
나 자체로 불가능하고
나와 연관된 관계로
이야기하게 된다.

자기 이야기로 접근하기 위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로 했다. 마을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김지연 퍼실리테이터와 긴 토론을 했다. 우리가 함께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참여자들에게 설명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했다. 퍼실리테이터는 본인 스스로 이해될 때까지 토론을 이어갔다. ‘나와 떠나는 마을 여행’은 이렇게 나온 주제였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약간 에둘러가는 길인 셈인데,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마을과 나는 이어져 있다. 나의 삶을 말하지 않고는 마을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나와 떠나는 마을 여행’의 부제는 ‘나의 마을을 소개합니다’였다. 나의 집을 소개하듯이 마을을 일인칭 시점으로 말해보는 것이었다.

글쓰기 워크숍

문화원 담당자에 의하면 첫째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에서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자기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이 과정의 중요한 핵심이자 방법이기도 해서, 글쓰기의 필요성과 어떻게 쓰고,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를 공유하는 과정을 놓치는 기획팀 의견이 있었다. 문학적 글쓰기 창작과정이 아니라 자기 삶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서 글쓰기를 설명하고,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기획팀은 운 좋게 은유 작가를 섭외할 수 있었다.

은유 작가는 ‘세상과 나를 잇는 글쓰기’로 글쓰기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 찬찬히 설명했다. “다양한 질문에 나의 생각과 의견을 또렷이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보통은 생각이 있어야 글을 쓴다고 하지만, 사실 글을 쓰면서 생각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특히 “글쓰기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의 근력을 키

우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생각의 근력은 바로 “사고력”이며 “나”라는 존재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해주었다. 이 말은 기획팀이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과정에서 주요하게 강조하는 점과 같았다.

자기 글을 써와서 매번 읽어달라는 참여자도 있었다. 글 써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글 쓸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해 봤는데, 마을을 소개하기 위해 앨범을 뒤지고 옛 생각을 꺼내 글을 쓰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는 참여자였다. 자기의 글을 누군가 읽어주고 말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고마움보다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일을 밀어둔다. 실제 쓴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기회가 없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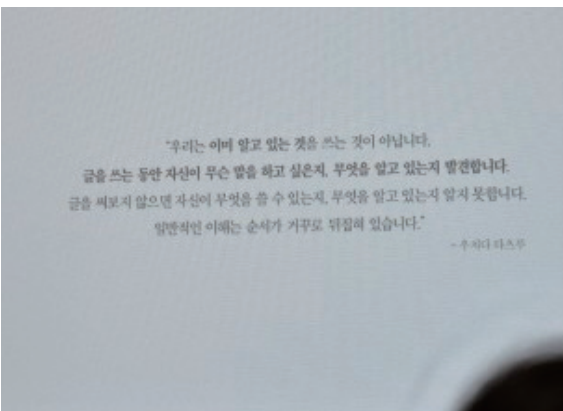
“있는 그대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여줄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는 은유작가의 설명으로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잘 쓰는 글이기 전에 글 쓰는 태도와 관계된 말이었으므로 진정으로 쓰고 싶은 참여자들에게 위로처럼 들렸으리라. 그리고 “수영처럼 꾸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락스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실패해야 배운다”고 글쓰기를 수영 배우기에 비유했다. 참여자들은 ‘락스물 정도야 뭐...’ 하는 표정이었다. 잘 쓰고 싶은 맘은 누구나 갖는 욕망일테니.

2회에 걸친 은유 작가와의 워크숍은 시간이 너무 짧아 모두 아쉬워했다. 그래도 자기 글을 써서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

다. “제일 좋았던 것은 내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기회였다”는 참여자의 소회는 자기 이야기를 쓰고 공유하는 경험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일상사를 참여자들 여럿과 공유한 것이 제일 좋았던 것은 자기의 처지를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라. 실제 이러한 자기 경험의 공유는 함께 활동하게 될 팀 구성이나 주제를 정하는데 좋은 기제였다. 각자의 관심사는 자기 일상과 절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일상사를
참여자들 여럿과
공유한 것이 제일
좋았던 것은 자기의
처지를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여서 수다 떨고 마을로 나가 어슬렁거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 생각만큼 넉넉하게 활동하기 힘들었다. 빨리 찾아온 여름이 늦게까지 버티는 통에 마을을 나땡길 기회가 그만큼 줄었다. 그러나 시원한 곳에서 자주 만나 커피 마시며 수다 떨기를 권했다. 마을 어슬렁거리기와 수다는 이 활동의 지침처럼 되었다.



뒷집지고 숨숨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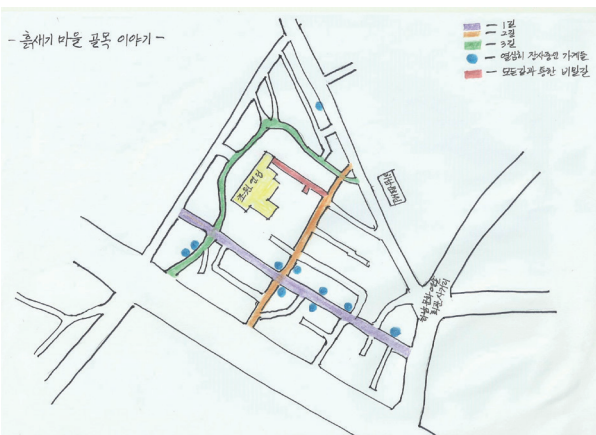
‘4인4색 흙새기 마을 읽기’ 팀은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마을이 도시 재개발을 앞두고 매일매일 사라져가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팀이다. 네 명의 참여자들은 각자의 관심사를 주제로 한 마을에 대해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우리는 흙새기 마을의 모습을 가감 없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자 했다.
무작정 바라보고자 뛰어든 흙새기 마을의 지금은 도시재개발 과정 중 그 막바지 모습이다.
빈집이 늘어났고 (...) 단기간 살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지금 이곳은 외국인 노동자와 곧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노인들이 산다. (...)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마트나 싼 가격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집밥 식당이 주를 이뤘다.
(...) 먹고사는 것만 겨우 남아버리는 마을, 내 생각은 마을에 단 한 사람이 살고 있더라도 그곳의 삶의 질을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흙새기 마을 메인골목 중심으로 잔가지처럼 뻗어 있는 작은 골목을 뒷집지고 숨숨하게 바라봤다. (장순란, ‘흙새기 마을 톺아보기’)

〈2018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자료집 제목 「뒷집지고 숨숨하게」는 장순란 님의 글에서 가져왔다. 마을을 어슬렁거리는 모습과 담백하게 읽고 진솔하게 쓰기를 표현하는 적절한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나의 마을에 대한 네 개의 시점이 숨숨하게 모였다.

흙새기 마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과 외국인 노동자

들이다. 강경숙 님은 은행마트 앞 평상에 모인 할머니들과 마지막 구성원이 될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적었다. 마을 소식을 제일 많이 알고 있어 대변인 역할을 하는 ‘변호사 할머니’는 25년 전 하남시 덕풍동 대웅빌라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15년 만에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부담금이 없어 10년 전 흙새기 마을로 이사를 해 은행마트 사랑방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흙새기 마을이 사라지면 할머니는 또다시 풍산동에 있는 새뜰 마을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한다(2018 자료집_흙새기 사랑방 사람들의 이야기, 강경숙).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을 다니면서 이웃 할머니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90세의 ‘꼬부랑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흰머리 할머니’는 그녀가 지어준 별칭이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자주 ‘사랑방’을 들락거렸는지, 그들과의 친밀도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사랑방의 구성원이다.



흙새기 마을 골목 지도



은행마트와 흙새기 마을 사람들

오현주 님은 새로운 마을 주민이 되어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이 궁금했다. 부모님이 ‘행길가’에서 자영업을 하시다 도시개발로 스물일곱 해를 살던 집을 떠나야 했던 친정집 이야기 끝에 “내 집을 품은 동네, 흙새기 마을”로 기억이 투영된다. “와이파이가 터지는 집, 담 밑에서 외국인들이 통화하는 소리다. 그들은 고국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말하고 또 말한다. 얼마나 그리울까”(2018 자료집_외국인 노동자들의 흙새기 마을살이, 오현주) 마을은 집을 품고 집은 가족을 품는다. 이 마을 골목에 있는 한 끼에 5000원 하는 ‘가정식 백반 식당’에서 마을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주 밥을 먹는다.

전소민 님은 골목에 집중했다. 골목이 흙새기 마을에서 유독 눈에 들어온 것은 어려서 놀던 유년의 추억이 그녀의 아이들로 옮겨졌기 때문일 게다. 관심사는 골목을 놀이터로 바꾼다. 함께 참여한 장순란 님은 기꺼이 골목놀이 레시피를 알려주었다.

그 밖에 하루를 살다가는 시장 사람들 이야기 ‘덕풍5일장, 사람 구경 하러 갑니다’, ‘아주 특별한 미사리 카페’에서 지친 삶을 위로 받았던, 지금은 없는 ‘로마’ 이야기를 쓴 팀, 그리고 긴 하루를 달래줬던 ‘덕풍천, 사용설명서’를 쓴 팀과 ‘내미길 이야기’ 팀이 있다. 내미길 이야기는 3차 연도로 이어지고 이후 개인 전시로 연결되는, 예기치 않은 확장이 일어나기도 했다.

소수자를 위한 이야기도 있었다. ‘특별한 사람을 위한 자연스런 식당’은 맛집 정보가 많지만, 뒤져도 찾기 힘들었다는 하남시의

유기농 음식점을 소개한 글이다. 알리지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어야 했던 참여자의 힘들었던 일상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자연스런 식당’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참여자의 ‘노모와 함께 걷는 아주 어른스런 산책’은 “의자에서 의자까지 힘들게 걸던” 어머니와의 산책을 쓴 글로, 의자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시간이라고 했다. 1시간가량 걸을 수 있는 산책로에 의자가 몇 개인지, 의자와 의자의 간격은 어떠한지, 땡벌이 그대로 내리찍는 자리인지, 등받이 달린 의자가 있는지는 노모와의 산책에 중요한 체크사항이었다고 한다. “내가 걷는 산책과 어머니의 산책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준 과정으로 길에 놓인 의자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마을의 길은 사람들의 활동이 겹치고 이야기가 오가는 공적공간이다. 점차 도로화 되어가는 길, 슬금슬금 없어지는 길 위의 의자는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질 기회를 사라지게 한다. 도시화 현상으로 당연한 귀결로 볼 것인가는 정말 생각해 볼 일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더욱 그렇다. 걷지 않으면 공간을 느끼지 못한다. 느끼는 공간의 크기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누구나 걸을 수 있어야하고 길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길과 의자는 쾌적한 공간을 가늠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걷지 않으면 공간을 느끼지 못한다.
느끼는 공간의 크기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누구나 걸을 수 있어야하고 길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길과 의자는 쾌적한 공간을 가늠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힘들고 지쳤다고 한다. 그래서 더 신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쉽고 어려움 사이에서 아주 약간만 넘어간 힘들, 포기하기에 아깝지만 밀고 가자니 벽찬, 그래도 옆 사람에 기대어

갈 만한 수준이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다. 물론 참여자들의 열의가 보여준 결과다. 우리는 참여자 이탈률 0%가 보여준 것은 만족도 그 이상의 것을 얻었다는 시그널일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기로 했다.

세 번째 해_

나로 시작하는 이야기

마을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에 의한 이야기로

올해에는 일곱 명의 주민이 참여하였다. 3년째 동행한 주민참여자는 다섯 분이다. 2년 차 참여와 올해 처음 참여하는 분은 각각 한 명씩이었다. 그동안 팀별로 활동을 했지만 글은 꼭 개별적으로 써왔다. 이제 일곱 분은 각자 하나의 주제에 대해 자기의 시선으로 일상의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공동의 관심으로 팀을 이루어 마을에 대해 썼다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을 자기 시각에 의해 쓰기로 한 것이 다르다면 다른 점이다.

마을에서 살고 있는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의 마을살이를 들여다보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이 단체는 마을 놀이터 작업, 잘 살기를 실현하기 위한 집안 수리, 임대주택 계약서 쓰는 방법 배우기 등 ‘살기’에 대한 활동을 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민들의 연륜으로 봐서 일상은 삶의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나, 문화 공간 강의실에서 그리고 큐레이터가 되고자 모여 있는 자리에서 논의되기에는 예술적이거나 학술적이지 않은 생활 속 이야기였다. 하지만 ‘살기’는 모든 것의 전제가 아니던가. 젊은 마을 기획자의 특강을 듣고 이러저러한 질

‘살기’는 모든 것의
전제가 아니던가.

문이 한차례 지나간 후 숙제가 주어졌다. ‘원-셀프 투어 미션’이다. 자기의 일상을 투어로 소개하는 것인데 (왜 이곳을 안내하는지) 생각하고 → (생각을 정리하고 핵심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 참여자모집을 위한 안내 홍보물을 만들고 → 실제 함께 나서는 과정이었다.

일주일 후, 7개의 투어코스가 소개되었다. ‘답답할 때 산책하는 길’, ‘7년을 반려견과 동행했던 길’, ‘언니와 걷던 길’, ‘남편과 걷던 산책길’, ‘우리 동네 고골 사람들 이야기’, ‘선린교회와 선린촌 마을 이야기’, ‘자기만의 산책길’ 등. 이후 각각의 투어 코스는 「슬렁슬렁 걸어볼래요?」(2019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자료집)에 실릴 자기 프로젝트의 뼈대가 되었다.

무얼 말하고 쓰지?

그들은 일생이
배경이었던 서사를
자기의 것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다보니
손바닥보다 조금 큰 빈
종이 앞에서 주눅이
들어 쓸게 없다는
말로 자기 일생을
지워버리고 만다.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할까. 어느 마을에서 몇째로 태어나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풍족한 가정에서 자라, 배움의 길이에 따라 다녔던 직장을 설명하고 이후 결혼과 출산으로 설명하다가, 다시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의 자식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풍족으로 반복되는 것이 대부분 5,60대의 어른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야기다. 자기가 성장했던 시대의 경제적 환경에서부터 시작해 다시 자식의 경제적 환경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반복한다. 그들은 일생이 배경이었던 서사를 자기의 것이라고 여겨왔다. 그러

다보니 손바닥보다 조금 큰 빈 종이 앞에서 주눅이 들어 쓸게 없다는 말로 자기 일생을 지워버리고 만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요”, “주로 어디를 가시나요”, “누구와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요”, “내가 사는 동네에 나 말고 또 누가 사는지요” 소소한 조각들을 연결하여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 쓰고 서로 읽고 얘기를 나누었다. 이것이 나를 만드는 것이라고. 참여자들은 나의 하루를 관찰해보기를 시작하였다. 내가 걷는 길을 그려보고, 사람을 만나는 장소를 표시해보며 하루 동선을 따라 지도를 그려갔다.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이 나를 노래¹⁾한다.

1)「모든 것은 노래한다」(데니스 우드, 프로파간다. 2015) 책 제목에서 빌려옴

평생 써도 못 다 쓸 이야기

일곱 분 모두 고향이 하남은 아니다. 하남이 고향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고향이 아니란 말도 하지 않았다. ‘고향이나 마찬가지’ 혹은 ‘두 번째 고향’이라는 말로 마무리한다. 유년의 기억이 없어 고향이라고 말하기는 적당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일생의 대부분을 살게 될 곳을 고향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여성들은 대부분 결혼 때문에 하남에서 살기 시작했다. 남성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은퇴 이후 하남을 찾았다. 참여자들은 50대에서 70대 초반이니 여성의 경우 20년에서 30년 이상 하남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것이다. 하남은 지금도 개발 중이다. 이분들은 개발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결혼 이후 시어른을 모시고 살며, 아이를 낳고 길렀던 삶의 현장이었다. 자기 이야기가 없을 수 없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지만 어디 삶이 한 겹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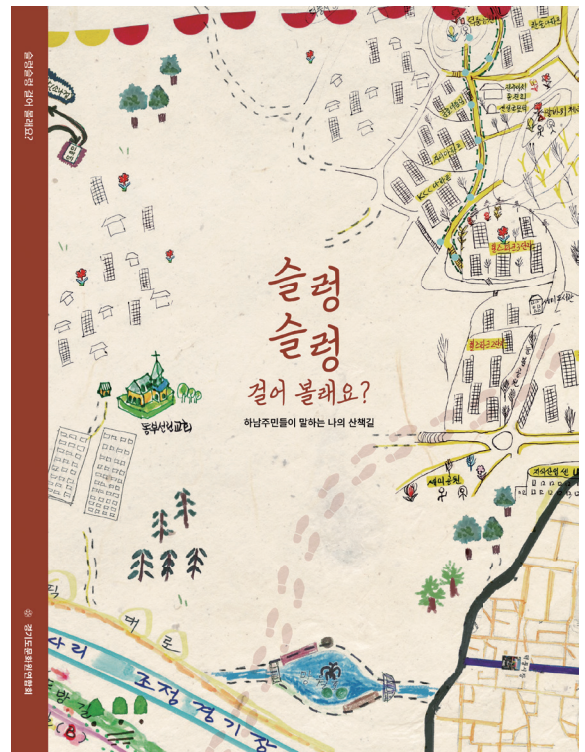
쭉 뻗은 고속도로를
타고 내달리는 일상이
아닌 이상, 마주치는
길과 길 위의 인연은
다 다를 수밖에.
드러나는 길도 사연도
다 달랐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이야기는 참여자 모두 ‘길’에 관한 관심으로 모였다. 집을 나섰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현대인의 일상이니, 동선 따라 하루가 구성되었겠다 싶었다. 그러나 쭉 뻗은 고속도로를 타고 내달리는 일상이 아닌 이상, 마주치는 길과 길 위의 인연은 다 다를 수밖에. 드러나는 길도 사연도 다 달랐다. 백 가지 삶이 있다면 이야기도 백 가지다. 소설가 구효서는 『강화도 지오그래피』(작가정신, 2018)에서 고향을 “흔적만 있는 곳, 그러나 모든 것을 복원 가능하게 하는 흔적, 어쩌면 사실과 경험 이상의 것들을 복원하게 하는 소중한 흔적들”이라고 했다. 그는 “고향에서 살던 15년의 흔적을 백분의 일도 다 쓰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한다. “평생 써도 못 다 쓸 고향”은 누구에게나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흔적들에서 나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한 사람을 위한 모두의 동행

팀별 활동에서 혼자 하는 활동으로 전환했으나 더운 여름에 자기 이야기가 담긴 마을을 찾아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워크숍에서 마을 투어를 위해 참가자를 모집했을 때 누군가 한사람이

안내를 하면 모두가 동행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고, 무더위를 감안해 모자와 부채와 양산을 취향대로 갖추고 며칠 동안 하남시 곳곳을 걸었다. 한여름 긴긴 워크숍 미션을 마치고 다시 모였다. ‘원-셀프(one-self) 투어 미션’은 ‘올-포-원(all for one) 투어’로 바뀌어 있었다. 돌아다녔던 마을은 대부분 알던 곳이었고, 간혹 기획된 마을이 겹치기도 했다. 각자 이 얘기 저 얘기 많은 말을 주고받았다. 그 사이 그 길이 왜 등장했는지 사연을 알게 되어서인지 발표하는 이를 바라보는 들은 이들의 표정은 깊어졌다. 그렇게 7개의 이야기가 나왔고 《지극히 사적인 길》, 《함께 걷기 위한 길》, 《기억하고 싶은 길》 세 개로 묶인 하남 주민의 산책길로 정리되었다. 짧게 소개하면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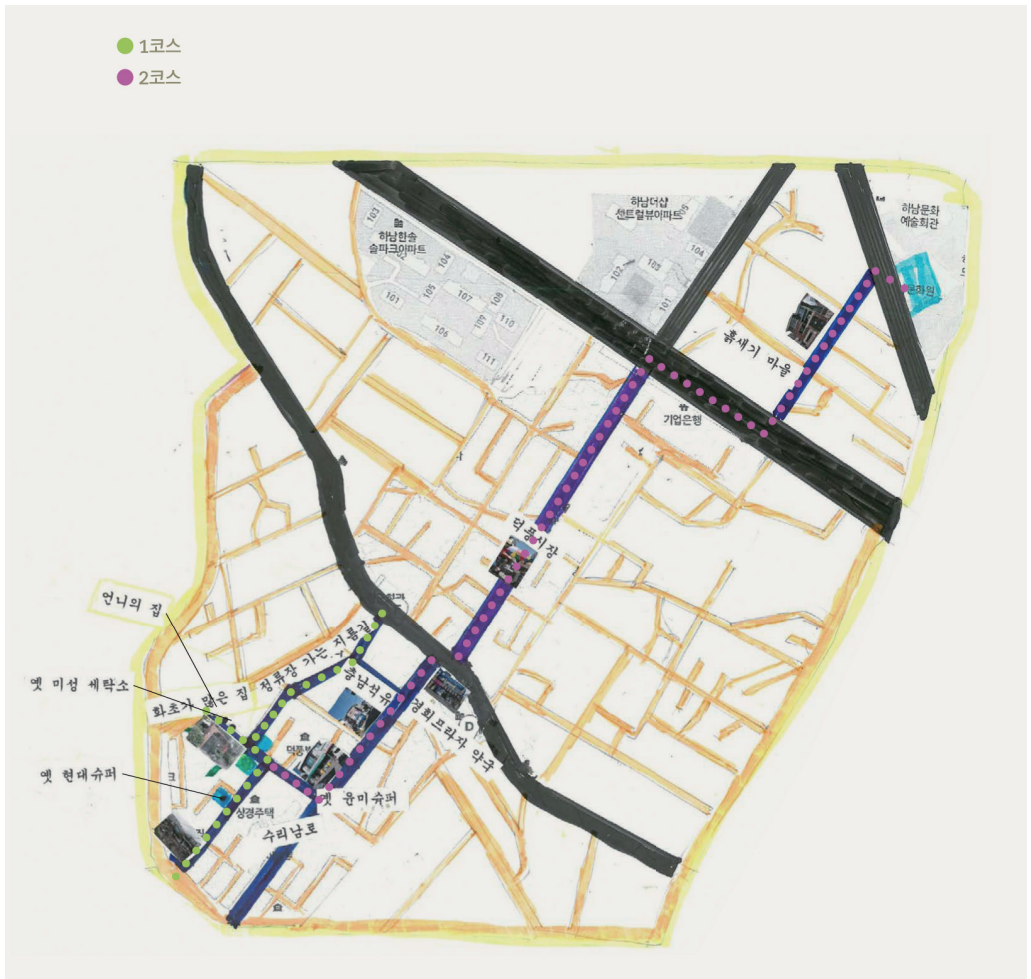
「슬렁슬렁 걸어볼래요?」
(2019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자료집)

《지극히 사적인 길》

나의 산책길을 소개합니다

‘나의 산책길을 소개합니다’에는 세 개의 코스가 나온다. 언니와 함께 걷던 추억이 있는 ‘숲길 코스’와 일상에서 자주 다니는 정류장 가는 지름길과 문화원 가는 길을 안내 한 ‘우리 집 골목길 코스’ 그리고 ‘창우동 아파트 코스’다. 이 길을 기획하고 글을 쓴 참가자는 학습지교사다. 매일 집을 나서지만 다니는 길은 요일별 스케줄에 따라 달라진다. 각각의 코스는 명사로 이어지지만 곳곳의 설명을 듣다 보면 화자를 따라 같이 걷는 것 같다. 1코스는 구불구불 집 사이로 난 작은 골목을 따라가는 길이다. 정류장까지 빠르게 도착하면서도 볼거리가 많은 이 길은 걷는 이들이 알아두면 꽤 효율적인 코스다. 2코스의 시작은 낙원 떡 방앗간인데 언니와 나의 추억이 겹치는 곳이다. 그곳은 엄마가 떡 방앗간을 운영했기에 언니와 나의 기억을 통해 지난날의 일들이 출현하는 장소다. 리처드 세넷은 『짓기와 거주하기』(김영사, 2020)에서 “공간과 장소의 차이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움직이는 속도로 인해 생긴다”고 말한다. 장소성의 상실은 모든 지역을 균질하게 만든다. “수송 네트워크는 사람들을 공간적으로 연결시켰지만 그들의 장소에 대한 경험은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마을 특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걷지 않기 때문에 공간 감각이 사라져서다.

마을 특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걷지 않기
때문에 공간 감각이
사라져서다.



우리 골목길 코스

-1코스는 버스정류장으로 난 지름길이다. 일터로 향하는 길이다.

우리집→ (구 현대슈퍼)마을 사랑방→ 미성세탁소(언니집 옆)→ 우체국 가는 지름길→ 정류장

-2코스는 매주 월요일 하남문화원 가는 길이다.

(상경주택경과)→ 낙원 떡 방앗간→ 지역주택조합 사무소(옛 윤미슈퍼)→ 현대에너지(충남석유)→ 경희약국→ 덕동시장→훈새기 마을→하남문화원

지도에는 없는 길

군인인 남편을 따라 전국을 다니다 남편이 퇴역한 후 하남에 정착한 참가자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건물 뒤쪽 산길로 이어진 산책길을 찾았다.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난 이 길은 ‘지도에 없는 길’이다. 계획된 길이 아니다 보니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직접 그려야 했다. 사람의 발길이 모여져 천천히 드러난 것이 길이고 그것이 지도로 만들어졌으나, 계획된 도로는 먼저 생기고 사람 혹은 차들이 지나다닌다.

리베카 솔닛은 『걷기의 인문학』(반비, 2017)에서 “걸었기에 도시들, 공원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 멀리까지 걸어갔으니 걷는 이야기 책들과 시들이 쓰인 것이며, 순례와 등산과 배회와 소풍을 기록한 방대한 분량의 책들이 쓰인 것이다. 역사의 풍경에는 이야기가 깃들여 있다. 우리를 역사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라고 말한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모든 것은 걷기에서 시작된 셈이다.

‘지도에 없는 길’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가기 싫어 빠른 길을 찾기 위해 시도한 것일 수도 있고, 공원으로 가기 위해 이왕이면 산길을 택했던 것일 수도 있겠으나 확실한 건 지도에 없는 길을 걸으면서 모녀의 이야기가 깃들었다는 점이다.

《함께 걷기 위한 길》

늘 그니의 산책길

‘늘 그니의 산책길’을 기획한 참여자는 ‘늘(항상) 그이’와 ‘늘은이’의 동음어에 착안해 이중의 의미를 담은 제목을 달았다. 그녀가 마을 이곳저곳을 걷게 된 것은 요통 때문이다. 병원을 다녀도 효과를 보지 못한 통증이 사라진 것은 걷은 이후부터다. 이사가 간 집 앞에 있는 망월천 길은 산책을 위해 의식적으로 찾은 길이다. 남자 늘그니(참여자 남편)는 여름 망월천변 높다란 갈대를 보

늘그니의 산책 ©장순란



고 “아버지께서 낙동강변의 갈대를 베어다 지붕을 엮었다는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두 부부는 자신들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걸 알아차린다. 아내는 꽃 사진을, 남편은 조류와 벌, 나비 등 곤충 사진을 많이 찍고 있었다. “늙은이들의 일상”이 된 망월천변 산책은 자연의 순환과 함께 두 늙은이들의 이야기도 함께 흐른다.

반려견 별이가 남겨준 산책길

별이는 이 글을 쓴 참여자가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다. 병원을 운영하는 그녀는 별이와 산책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7년을 키운 별이는 암으로 죽었다. 주인의 앓는 속을 받아주다 죽은 것 같아 맘이 아프다. 그녀는 입원한 환자들과 덕풍공원까지 가는 투어를 기획했다. 안내문을 보고 신청한 환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걸었다. 환자와의 투어는 다섯 차례가 지났다. “참 이상한 것은 올라갈 때는 원망의 산책길에서 돌아올 때는 감사의 산책길이 되어 내려온다는 사실”이다. 길을 걸으며 얘기하는 내내 마음도 열린 모양이다. 함께 산책했던 환자로부터 “쌓여있던 모든 말들을 쏟아 내는 만큼 병도 줄어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별이와 걸었던 길을 〈마을큐레이터 되기〉 과정에서 쓰게 되었고, 별이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고, 땀별 아래 참여자들과 땀 흘리며 같이 걸었다. 그리고 환자들과 그 길을 다시 걸으면서 별이를 떠나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덕풍공원 나들이 신청자에게
코스를 설명하고 있다
하남SD병원→
하남덕풍역파크어울림아파트→
말바위→ 학유정→ 회령군묘→
덕풍공원



©이상숙

당쟁이 산책길

집안일로 화가 나면 나와서 당쟁이 산책길을 걷는다. 화도 풀 겸 걷다 보면 마음은 편안해진다고 한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에 쓰기 어려우나 70세 넘는 남자의 외로움을 달래는 길이었다.

《기억하고 싶은 길》

고골은 천년 은행나무와 함께 마을이 사라질 예정이다. 해방 이후 공동체 삶을 꾸렸던 역사를 가진 선린촌, 이 흔적을 그나마 가

지고 있었던 선린교회도 사라진다. 모두 3기 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

천년 은행나무 고품의 노래

고골이 마지막 삶의 터전으로 생각했던 강신숙님은 고골에서의 자기 삶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특히 사진 찍기로 농촌 생활의 단조로움을 달랠던 30년 된 취미활동의 공이 컸다. 내미길은 고골마을의 한 부분인데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 작은 마을을 지칭한다. 내미길 안내는 지명이나 장소명이 아니라 ‘누구네 누구네’ 사람 사는 집으로 연결되어 있다. 과자집을 운영했



내미길 안내 지도

천년은행나무→(재광네)→태창네=까까네→문규네→(훈아네)→미녀네→
목도노인정→두손어닝(재영네와 연당)→상은네→(내우네)→(옥이네)→상경네→
(도연네)→(동호네)→윤택네→소나정(현옥이네,새마을회관)→영미네→미애네→
나뭇길카페(은정네)

* ()는 고인이 되었다

던 까까네, 지금은 카페가 된 은정네.... ~네는 ~의 할머니를 뜻한다. 은정네는 은정이 할머니다. 팔호 안에 들어있는 ~네는 이제 고인이 되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도 곧 헤어진다. 사진 속에 남아있는 내미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상과 사람들 사진은 중요한 마을 기록으로 남은 만큼 생활상이 그대로 들어있다. 농사지어 살던 마을인 만큼 절기에 맞춰 농사 짓던 모습과 마을 사람들이 통째로 여행 갔던 기록, 척사대회나 물놀이 등이 그대로 들어있다. 30년간 내미길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선훈이웃 선린촌을 아시나요?

선린촌 지도



박미미님은 선린교회가 한국전쟁 이후 공동생산 공동주거지였다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1차 연도에도 조사했었던 것을 바탕으로, 결혼 이후 시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선린교회를 통해 알게 된 선린촌 이야기를 더 자세히 써내려갔다. 곧 사라질 붉은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선린교회를 아쉬워하며 작고한 시어머니를 애도하는 이야기다.

말하고 쓴다는 것의 의미

“실제로 글을 쓴다는 건 인생과 세계를 마주하는 거예요. 좀 거창해 보이지만 참 평범한 말이에요. 산다는 건 결국 누군가를 만나고 이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글쓰기는 그걸 언어와 문자로 하는 것뿐입니다. 해서,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또 세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고미숙 고전평론가는 『읽고 쓴다는 것, 그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여』(북드라망, 2019)에서 쓴다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맞다. 참여자들은 마을에 대한 호기심으로 <마을큐레이터 되기>에 참여하였고 이왕 한 것 잘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옆 사람에 의지해서,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한다.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 첫해부터 참여하는 주민은 모두 자기의 글을 써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임을 알고 참여하였다. 두 사람 이상으로 구성된 팀으로 활동하지만 글은 각자 쓰는 방식이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수다 떨면서 자기 작업으로서 글쓰기를 요청했다. 참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무책임도 있지만, 참여자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형식을 마련하지 않은 탓도 있다. 자기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애초부터 참여자 개입 없이 진행하기 어렵다. 전 과정 워크숍의 형식을 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마을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목표였다.

자기 경험을 말한다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자기 경험을 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로의 진입이다. 먼저 자기 설득이 가능해야 한다. 쓴다는 것은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자기만의 작업이다. 말하기와 쓰기는 다른 영역이다. 쓰기는 자기의 경험을 깊게 들여다보게 한다. 내 삶을 이해하는 깊이도 쓰면서 달라진다. 자기 삶을 쓰고 나면 말하기도 바뀐다.

자기 일상을 써보면서 느끼는 ‘야릇한 감정’은 ‘내가 만나는 나’와의 순간에서 만들어지는 느낌일 터이다. 마르크오제가 『인류학자가 들려주는 일상 속 행복』(황소결음, 2020)에서 말한 “쓰는 자의 의식에는 언제나 타자가 있다”에 대입해보면 ‘쓰는 자, 나’는 ‘타자인 나’를 만나는 셈이다. 지나간 일을 되새겨 글쓰기로 옮긴다는 것은 지난 시간의 탐색이라는, 실은 모험이다. 두고두고 곱씹어도 끝없이 나올 것 같은 단물 같은 기억이 있는가 하면 가차 없이 물어버리고 싶은 기억도 있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도전, 어쩌다 마주한 내 모습,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채는 것... 실제 이런 일들은 일상에서 일어난다. 전문 분야에서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전문가들만의 영역, 경직된 영역이다. 이러저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일상이다.

두고두고 곱씹어도
끝없이 나올 것 같은
단물 같은 기억이
있는가 하면 가차
없이 물어버리고 싶은
기억도 있다.

이어가기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3년을 참여한 강신숙 님은 틈틈이 정리된 사진을 모아 하남시의 지원으로 개인전시를 진행했다. 이는 마을 생활사 기록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꼼꼼한 자료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뒷부분에 당사자의 글로 실었다.)

첫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문화원에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참여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쳤다. 간단한 설문지를 통해 마을의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활동 의향을 조사하였다. 이 설문은 주민들에게 자발성과 책임을 동시에 묻는 다짐과 같았다. 전 과정이 참여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이고, 소수의 인원이 팀별로 진행하다 보니, 문화원 담당자 입장에서는 꽤나 까다로운 프로젝트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전 설문지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는 절차는 적어도 참여자로서 진지한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절차였다고 생각한다. 실제 파일을 올리는 컴퓨터 작업, 프리젠테이션 발표 자료를 세팅하는 작업부터 이해되지 않는 과제에 대한 질문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일까지 일상 수시 대응을 해야 했다.

흔히 주민참여 사업의 경우 주민에 초점을 맞춰 설계한다. 하나의 사업의 관계자는 여럿이다. 주민 주도의 활동이 활성화되려면 그 외의 역할이 더불어 활성화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과 내용을 재조합하고 생성하는 플랫폼으로서 문화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한 팀 한 팀을 꼼꼼히 거론하며 활동 내용을 적어 보낸 문화원 담당자의 사업 후기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은 프로젝트가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강신숙님은 올해 행정지원을 받는 터라 사업자등록과 출판등록까지 번거로운 일들을 거쳐야 했던, “별걸 다 해보는 한 해”였다고 입꼬리가 올라간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문화원의 자문과 서류작성 등의 지원이 있지 않았을까. 플랫폼의 최대 미덕은 모험과 시도에 대한 환영,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있다. 문화를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제공자 입장뿐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지역 주체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시점이다.

코를 박고 보네!

하남 마을큐레이터 강신숙

“어머, 내 친구 ○○가 여기에 있네!” “옛날 우리 집이야!” “내가 여기에 있네!”하며 사진에 코를 박고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은 닭은꼴을 모아놓은 사진 앞에서 한참을 깔깔 웃는 소리가 들리더니 멀리 뒤따라오는 동료들을 불러 “이 사진 좀 봐봐” 한다. 같이 까르르 한다. 내가 좋아서 즐겁게 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감동 받으니 정말 마음이 뿌듯해진다.

고골·나뭇길

순간을 영원으로

2020

강신숙 지음



고골출판사

나는 2020년에 「고골·나뭇길 순간을 영원으로」, 「사진 속에만 있는 온수동」 두 권의 마을지를 만들었다. 하남문화원에서 3년 동안 <마을큐레이터 되기>를 배우며 마을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고, 마을 기록의 의미와 활용을 배우며 ‘기록은 기억을 지배 한다’는 말이 나의 머리에 자리 잡게 되었다. 생소한 단어, ‘마을큐레이터’를 찾아보니 ‘마을

의 현재를 재구성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있다. 전혀 모르는 부분이지만 성실히 열심히 하는 나의 장점을 믿고 도전하기로 했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1년차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의 1차 연도 목표는 ‘우리 지역이 좋아-일상에서 보물찾기’였다. 마을 전체를 자세히 관찰하기로 생각한 후 수정이 할머니 덕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집은 우리 옛집과 같은 해(1959년)에 지었고 우리 동네서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집이었다. 마루 벽에 식구들 사진이 가득 담긴 액자가 주-옥 걸려있고, 아주 오래된 그릇장이 있다. 방문 옆에는 새 그림이 있는 거울이 있다.

액자 속에서 우리 집에도 없는 어머니 사진이 보여 반가운 마음에 “엄마 사진이 있네요?” 했더니 아저씨께서 “안방에도 많아요. 들어와 봐요” 하신다. 방에 들어가니 아줌마께서 시집오실 때 혼수로 해오

신 장롱이 있고 벽에는 손자들 사진, 자식들이 수학여행 다녀오며 사가지고 온 기념품들이 걸려있다. 참으로 향수를 불러오게 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집 안방에도 장롱에 붙은 거울에 꽃과 새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 너무 반가웠다. 바로 전까지 부엌에 붙 때는 아궁이가 있었는데 입식으로 공사를 하여서 그 모습을 담을 수가 없어서 아쉬웠다. 나는 여기서 보물을 찾았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2년차

2차 연도 목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마을 읽기-나의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하루 동안에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여행코스'였다. 우리 팀은 마을갤러리 형식을 빌려 사진을 보면서 마을 한집 한집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동네를 소개하기로 했다. 동네 분들의 인터뷰를 하여 그 삶을 기록하였고, 집마다 다니며 옛날 앨범에서 동네 풍경이 있는 사진과 동네 사람들이 있는 사진을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을 인화하여 팀원들과 전시할 사진을 골랐다. 마을 가운데에 전시하기로 결정하고 장소를 물색하며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화원 일정상 문화원 로비에 전시를 하고 안내를 하게 되었다.

마을갤러리 준비과정

내미길 옛날 앨범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택을 방문해 마을과 사람들이 담긴 사진을 촬영하고 나의 앨범 속의 필름과 사진을 스캔하였다. 이 과정에서 잠자고 있는

보물을 찾아낸 듯한 기분이었다. 동네 어르신들을 인터뷰하여 마을 분들이 살아오신 이야기 들었다.

전시한 사진 속 내미길 이야기

땅이 해동하면 모판에 흙을 담고 기계로 법씨를 얇게 펴서 비닐을 씌워 보온하여 발아시킨 후 5월 중하순이 되면 물을 가둔 논에 모를 낸다. 우리는 90년대 초반까지 손모를 냈는데 그 후로는 기계모와 손모를 같이 냈다. 고골에는 밭보다 논이 더 많았다. 밭에 초식을 하고 김을 맨다. 가을이면 추수하고 올해 추수함을 감사하고 내년의 풍년을 기원하며 고사를 지낸다. 1990년대까지는 고골천에서 빨래를 하고 물놀이도 했다. 이렇게 한적하고 낭만인 모습을 간직했던 마을이 이제는 축사 창고로 변해있다. 추수하면 뒤뜰 장독대 옆의 터주에 추수한 벼를 넣고 고사를 지낸다. 1990년대의 은행나무는 가지를 내어 주어 여름이면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다.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을에 벼를 베어 타작하는 모습, 내미길 사람들의 살아온 모습 등 정겹고 아름다웠던 내미길



전시한 사진 속 내미길

의 어제와 오늘을 전시하였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마을큐레이터 수료식을 했다. 기획팀의 오다예 선생의 재치 있는 영상은 참가자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3년차

3차 연도 목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 어디에도 없는 내 마을을 소개하자’이다. 구석구석 들어있는 나름의 이야기를 소소하지만 소중한 것을 내 시점에서 보고 쓴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과 이야기가 담긴 공간을 1~2시간 정도 다니면서 설명하는 ‘원셀프 투어(oneself tour)’도 진행했다. 우리 동네에서 나만이 소개해 주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투어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 기획, 편집 모두 스스로 해야 했다. 내미길을 아침저녁으로 다니며 야생화, 채소, 주변 모습 등의 변화를 앵글에 담았다. 여기서 재배하는 채소, 야생화의 가지 수가 이렇게 많은지 미처 몰랐다.

사진을 보면서 아래 모퉁이부터 옷 모퉁이까지 한 집 한 집 돌면서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안내하였다.

출판기념회 겸 수료식에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인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을 모시고 참석을 했다. 아주 맛있는 도시락과 함께 책을 보여드리니 “나는 글씨가 잘 안

보여” 하시면서도 우리 동네가 나오고 내가 책에 나왔다면 신기해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니 마음이 뿌듯했다. 동네로 돌아와 “나는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 봤어. 책도 잘 만들었네.”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다.

내가 해야 할 ‘내미길 기록 프로젝트’

2019년 여름, 하남시청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었다. 마지막에 전국 자치단체나 어느 동에서 사업을 하면서 성공한 사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데 나는 ‘마을지 만들기’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강타했다. ‘저거는 내가 해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에 강의가 끝난 후에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자에게 의견을 알렸더니 좋은 생각이라며 응원을 해주었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세세하게 정리를 하여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다. 12월 말이 되어야 예산 통과 여부가 결정 나지만 나는 동네 어르신들이 살

아오신 이야기, 동네 이야기들을 인터뷰하여 기록하는 작업을 했다. 1942년부터 근래까지의 사진들과 1981년 이후 필름들을 스캔하였다. 마을 분들과 이곳에 사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신 분들께도 내미길 마을지를 만들려고 하니 사진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했다. 옛 필름에서 인화하지 않아 볼 수 없었던 동네 모습과 사람들이 보이던 마치 보물을 찾은 듯 매우 기뻐했다. 아주 많은 사진들 중에서 마을지에 넣을 사진을 1500여 장 골랐다.

12월 말에 예산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마을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렸다. 2020년 전반기에 책 출판과 전시회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1월부터 2월까지 고골 전체 모습을 사진작가와 함께 촬영하였고, 틈틈이 사진을 항목별로 분류하였다. 원고를 쓰거나 일을 진행하면서 자꾸 막히는 일이 반복되어 어려움이 매우 많았다. 인쇄소에 가서 상담하고 견적을 받아 보려고 하니 PDF파일이 완성되어야 정확한 견적이 나온다고 하며 예상 견적을 내주는데 전에 알아본 것

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걱정이 되었다. 책 만드는 비용에 비중을 두고 전시회는 간단하게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편집을 혼자 하려니 진행이 잘되지 않아 편집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니 날아갈 듯한 기분이 되었다. 골라 놓은 사진을 보고 또 보며 부족한 것은 다시 찍었다. 하루에 한번씩 동네를 돌며 새싹이 나거나 꽃이 피는 모습, 나뭇잎이 나오는 것 등 변화된 모습을 담았다, 고골이 유적지가 많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별명이 붙은 지역이므로 마을지에 문화재와 노거수 등을 함께 기록하기로 하였다.

동사무소, 시청, 문화원, 역사박물관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구하여 읽고 정리하였다. 동네 어르신들, 친척들, 지인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원고가 완성되었다. 사진 촬영하는 도중에 코로나19가 발생하여 걱정하면서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하였다. 마을 통장 일을 보는 나는 하남시, 동사무소, 농협 등 모든 외부활동이 중단되어 원고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다. ISBN 인증번호를 받는 일

도 쉽지가 않아 출판사 신고를 하고서 도서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 물어 일을 진행하니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 같은 일인 것이다. 여러 번의 원고 수정을 거쳐 드디어 완성본을 인쇄소에 넘기게 되었다. 그 뿌듯함이란...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출판기념회 겸 사진전시회 날짜를 2020년 6월 4일로 잡았다. 전시회 장소는 우리 마을 분들이 오며 가며 쉽게 보실 수 있는 내미길에서 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회관의 창고 안과 회관 앞의 담장에 연결하여 사진전시회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창고 내부의 작업은 미리 하여 사진을 붙인 우드락이며 액자를 걸어 놓았고, 담장에 전시할 것은 당일 오전에 작업하기로 했다. 그런데 5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생각 끝에 야외에서만 전시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내부에 부착했던 것을 모두 떼어내고 이것을 외부로 나와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다.

현수막 걸고 포스터와 방향 표시를 붙였다. 한 달 전부터 전시 기간 동안의 날씨를 알아보았는데 다행히 비가 오는 날이 없었다. 그래도 수시로 알아보았다. 혹시 비가 오면 이 많은 사진에 비닐을 씌워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되었다. 우드락에 코팅지를 씌우고 일기예보를 믿어보기로 했다.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협조로 전시회 준비가 끝났다.

전시회 당일 새벽부터 노인정 총무님과 함께 전시 물품을 붙이기 시작하였다. 낮이 되니 동네분들이 도와주셔서 예상보다 빨리 작업이 끝나게 되었다. 사진을 붙이고 나니 아주 훌륭한 전시장이 되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준비했고, 발열 조사용품도 준비하였다. 동네잔치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음식을 대접할 수 없게 되어 어르신들께 너무 송구스럽게 되었다.

오후 2시 「고골·나뭇길」 출판기념회 겸 사진전시회를 시작하였다. 하늘도 축하해주는 듯 맑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다.

“마을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뭔지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이런 거야! 참 잘했어.” “고생 많았어.” “참 좋은데.” “우리 이장 최고야!” 동네 어르신들께도 칭찬을 많이 받았다. 코를 박고 보는 모습은 정말 감동이었다. 이렇게 좋아하실 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어르신들은 사진 속에 있는 예전 우리 동네와 그리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추억에 잠겨 옛이야기들을 하셨다. 단체 사진 속 어르신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 마음이 찡했다.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도 와서 자기가 살던 옛집을 보며 반갑고 놀라워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전시회가 열리니 의아해하면서 “참 좋네요.” 한다. 오토바이 탄 채로 보는 사람, 출근하던 사람도 차창 너머로 사진을 본다.





사진전을 보며 감동하는 하남시장께 주민 참여예산으로 했다고 설명을 하였더니 “주민참여 성공사례입니다” 하시며 매우 좋아하셨다. 며칠 후 동사무소를 통해 시장께서 지인들께 마을지를 드리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마을지는 하남시청 각 부서, 하남시 14개 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각 도서관, 하남문화원, 하남역사박물관으로 전달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자료납본센터에서 국가 문헌으로 영구 보존하고 대국민 자료 이용 서비스에 제공한다며 책 2부를 요청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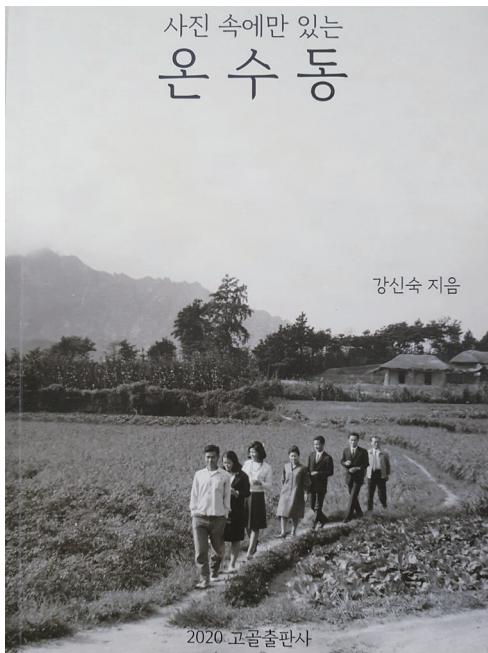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다시 내 맘속에 꿈틀거림이 시작되었다. 8월부터 내가 나고 자란 상계1동 온수동 마을지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1987년도에 신도시로 수용되어 동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만나기 어려워 항상 그리움으로 남아있던 내 고향 온수동. 노원문화원에 가서 자료를 구해 읽고 수락산자락을 돌면서 현재 모습을 촬영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사진 있으면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니 “사진이 없어” 한다.

다행히 친구들이 아줌마들 야유회 사진과 친구들 사진 2장을 보내왔다. 오빠가 중학교 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해서 우리 집에는 1950년대 사진이 많이 있었다. 내 사진은 아기 때부터 있다. 우리 가족들의 앨범에서 사진을 찾아 스캔하였다. 우리 집 주변의 사진은 있는데 윗말 사진이 한 장도 없어 아쉬웠지만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로 했다. 고모, 오빠, 언니들, 동생에게 기억 속의 온수동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온수동을 기록하면서 부모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많이 났다. 부족한 대로 10월에 마을지 「사진 속에만 있는 온수동」이 완성되었다. 가족, 친척,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드렸다. “너무 감동해서 밤새 울었다”, “지금 내가 그곳에 살고 있는 느낌이었다.”



“잇고 있던 동네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식구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을 한꺼번에 보게 해줘서 고마워.” 등등 별별 칭찬을 다 들었다. ‘내가 진짜 좋은 일을 했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 이맘때도 나는 여기에서 살 수 있을까?

1987년도에 내 고향 온수동을 신도시에 빼앗겼고 2021년에는 남편의 고향이자 나의 제2의 고향인 고골을 제3 신도시에 빼앗기게 되었다. 지금 이곳 주민들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우리는 왜 살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것을 모두 빼앗긴 채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하나? 지금 창밖에는 첫눈이 펄펄 내리고 있다.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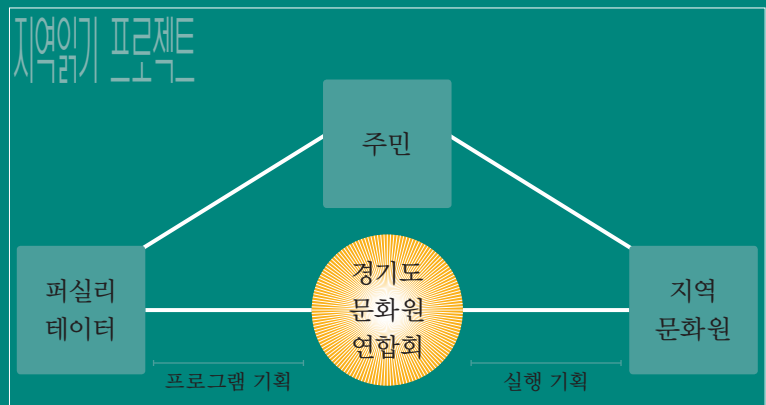
내미길에서



사이시선

N3. 자원조사로 지역읽기

이번 장에서는 기획과 실행 단계에 느슨하게 결합한 경기도문화
원연합회 담당자의 시선으로 오산의 사례를 다시 읽습니다.



사이시선

N3. 자원조사로 지역읽기

오산문화원

지도라는 매개로 마을은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가 된다.

다른 지역과 달리 오산의 마을큐레이터는 네 개 팀 모두 개선되어야 할 것과 제안 사항을 추가로 발표했다.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보인다는 것은 기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살고 싶은 마을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이-푸 투안이 ‘장소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의한 ‘토포필리아(topophilia)’, 즉 우리 안의 ‘토포필리아’를 깨우는 과정이기도 했다.

여 백

자원조사로 지역읽기

이야기꾼에서 마을큐레이터로

오산문화원은 2018년도에 오산 주민을 대상으로 ‘오산이야기꾼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이는 강의 형식으로 진행해오던 지역사 교육의 방향을 조금 틀어, 주민들이 오산의 전설, 민담, 설화 등 옛 이야기와 역사에 관한 강의를 듣고 직접 누군가에게 전달해보는 과정이었다. 주민 해설사나 문화재 해설사가 아닌 ‘이야기꾼’이라는 명칭을 붙인 데에는, 문화재를 찾아가거나 관광지를 방문해야 지역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 할머니가 손주에게 옛날이야기 들려주던 것처럼 일상의 관계에서 지역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러’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이야기꾼 양성과정’은 오산의 어원과 기원, 고인돌, 독산성, 켄리사 등 주민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학습해 전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내용과 소재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정확성에 기초한 전달이 중요하므로 ‘스토리텔러’의 생각이나 상상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었다.

오산문화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컸다. 오산시 자체가 시로 승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도시 개발로 하루가 다르게 지형과 사는 사람이 변해가는 상황에서 옛것에만 집중할 수는 없었다. 그런 와중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제안한 주민이 직접 지역의 일상을 조사하고, 이야깃거리를 찾아보자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문화원의 고민과 부합했다. 과거보단 현재로 시점을 옮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다. 그렇게 2019년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의 세 번째 지역은 오산이 되었다.

마을큐레이터와 에코뮤지엄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강의보다 워크숍 중심이다. 참여자는 자리에 앉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동네를 걷고, 기록하고, 관찰하면서 몸으로 경험한다. 때문에 강사가 아닌 퍼실리테이터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여자가 끝까지 수행하도록 돕는다. 오산의 퍼실리테이터는 류설아 기획자가 맡았다. 전 경기일보 문화부 기자이자, 마을조사와 구술 작업을 하고 있는 류설아 기획자는 기자로 활동했던 당시 도시재생을 주제로 10년 이상 취재해왔다.

첫 번째 시간에 류설아 퍼실리테이터는 마을큐레이터의 의미와 역할, 다양한 문화재생 사례에서 주민의 역할을 소개했다. 폐쇄

된 파출소를 주민 공간으로 바꾸고, 주민 주체가 문화행사들을 기획해 운영한 ‘군포 파출소가 돌아왔다’ 사례, 주민 스스로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고, 공동 육아와 마을 축제를 열면서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간 성남 논골 마을공동체 사례에 이어, 프랑스 알자스 지역의 에코뮤지엄을 소개했다. 알자스 주민이 프로그램의 기획자이자 운영자로 참여해 에코뮤지엄의 콘텐츠를 발굴한다. 마을에서 50년 넘게 이발사를 해온 할아버지, 가축을 키우는 사람, 전통방식으로 쿠키를 굽는 할머니, 오크통을 만드는 기술자를 주민기획자가 발견했다. 이발사 할아버지는 가게를 폐업했지만 주민기획자의 권유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래된 도구들로 이발 기술을 시연한다. 류설아 퍼실리테이터는 이렇게 마을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관계를 맺는 총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마을큐레이터라고 설명했다.

에코뮤지엄은 ‘마을큐레이터’ 기획 당시 착안했던 개념이기도 하다. ‘에코뮤지엄(Ecomuseum)’이란 생태 및 주거환경을 의미하는 에코(eco)와 박물관을 의미하는 뮤지엄(museum)이 합쳐진 단어이다. 박물관이라면 오래된 유물이 전시된 실내 공간을 떠올릴 것이다. 전통적인 박물관은 유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가 중요하지만 에코뮤지엄은 다른 개념이다. 배은 석은 『에코뮤지엄:지속가능한 농촌 희망 프로젝트』(북코리아, 2013)에서 “그동안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던 생활유산과 장소적 의미로서 지역의 생활터전인 삶의 현장, 즉 산업 시대의 탄광이나, 농사를 지어서 가루 뿜던 방앗간이나, 도로가 발달하기 전에 이용

동네, 마을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축에 쌓인
사람, 자연, 유물,
기억, 생활방식,
시대정신 등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읽어내는
것이다.

되던 운하 등 지역의 유산, 경관, 연장자의 기억, 자연유산, 전통 등이 전통적 박물관에서의 소장품 개념으로 등장하고, 건물이 있어야만 성립되던 박물관의 개념이 지역사회의 일정한 구역 전체로 확장된다.”고 에코뮤지엄의 유물과 유산에 대한 개념 변화를 설명했다. 마을큐레이터가 발견하고, 조사하는 지역자원의 범위 역시 확장한 유물·유산의 개념과 맥락이 닿아있다. 동네, 마을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축에 쌓인 사람, 자연, 유물, 기억, 생활방식, 시대정신 등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읽어내는 것이다.

에코뮤지엄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는 주민참여다. 앞서 류설아 퍼실리테이터가 알자스 에코뮤지엄 사례를 소개한 것처럼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유산을 발굴, 조사,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뮤지엄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1973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에코뮤지엄을 제안한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s Henri Rivière, 1897~1985)는 세 번에 걸쳐 에코뮤지엄의 정의를 수정했는데, 이를 ‘에코뮤지엄의 발전적 정의’라고 부른다. 1980년 마지막으로 수정된 정의에 따르면 “에코뮤지엄은 이러한 주민이 스스로를 인식하기 위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울이다. 거기에서 주민은 자신들이 살아왔고, 살고 있고, 또 살아가갈 지역을 세대의 연속성이나 비연속성을 통해서 이전 세대 주민의 설명에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한다. 에코뮤지엄은 이처럼 주민이 자신들을 좀 더 잘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일과 행동 그리고 내면성에 자부심을 갖고 방문자에게 내미는 거울이다.”¹⁾라

1)『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오하라 가즈오키, 김현정 옮김. 아르케, 2008)

고 지역 주민의 역할을 강조한다.

내적 동기를 찾아가는 과정

마을큐레이터 1년차 첫걸음은 가볍게 시작하기로 했다. 거창한 결과물이 아니라 나와 옆 사람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 듣고 알아보는 것이 목표다. 방식은 각자의 관심을 담은 지도 만들기였다.

지도 만들기 워크숍은 류설아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총 다섯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누구와 어떤 지도를 만들지 정하고, 팀별로 동네를 다니며 지도에 무엇을 담을지 찾았다. 조사를 다니고, 지도를 제작하면서 과정을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두 번의 시간이 있었다. 지도를 완성하고, 전시하기까지 3개월 동안 워크숍이 진행됐다.

퍼실리테이터 ‘내가 사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을 재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가장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발견하는 것이 이번 과정의 핵심입니다.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건 항상 ‘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내가 보는 시선에서 내가 관심 가는 이야기로 여러분만의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략된 것도 있고, 누군가는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취향과 관심이 담긴 지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마을큐레이터는 한 사람, 개인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야만 기관이나 지자체가 들여다 볼 수 없는 주민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지역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한 의무감에 하는 지역읽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할 뿐이다. 따라서 내적 동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왜 이 활동을 하는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말이다. 그런데 내적 동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풀어놓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기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문화원 회원처럼 기관과 긴밀하게 관계 형성이 되어있을 때 더더욱 그렇다. 단기간에 방향을 선회하기는 어렵다. 제대로 ‘나’를 마주해본 경험이 많지 않을뿐더러 문화원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했을지도 모른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3년간 한 지역에서 진행했던 이유는 ‘3년’ 정도는 돼야(실제 프로젝트 기간은 9개월 정도지만) ‘나’의 시각이 드러나고, 또 다른 연결과 확장이 가능할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관심을 담은 지도 만들기

대략 스무 명의 사람들이 강의실에 모였다. 첫 워크숍은 자기소개이다. 자기소개는 워크숍의 두 시간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처음부터 낯선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나’의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를 알아보고 공통의 주제를 끌어내는 과정이었다. ‘나’를 소개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발표자의 소개에서 관심 가는 키워드를 적기로 했다.

모든 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참여자는 군대를 막 제대한 20대 청년이었다. “새벽까지 해외 프로팀과 게임을 하다 와서 지금 많이 졸려요. 말이 헛나올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당당함에 곳곳에서 웃음이 새어 나왔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그는 박물관에서 일하는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 지원서를 냈지만 떨어졌다. ‘마을큐레이터’라는 현수막 문구를 보고 마을에서라도 활동하면서 천천히 성장해보고 싶어 큐레이터 과정을 듣게 됐다고 했다. 대체로 오산의 참여자는 4-50대로 타 지역에 비해 젊은 편이었고, 2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도 다양했다.

‘마을큐레이터’의 참여자는 대부분 역사문화체험 강사, 역사생태 강사, 문화관광 해설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레 ‘마을큐레이터’라는 명칭에 관심이 생겨 참여한 경우가 많았지만, 댄스 강사, 콜센터 근무자, 약국 직원, 어린이집 교사, 사진작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인상 깊거나 공감 가는 부분을 키워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주 언급된 키워드를 묶어 4가지 주제를 정했다. 첫 번째 주제는 ‘프로게이머’, ‘전통 장 담그기’, ‘줄눈시공’의 키워드를 묶어 독특한 직업이나 장인, 기술을 가진 사람 등 ‘사람 자원’으로 정했다. 두 번째 주제는 개발 등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마등산’, ‘생태’, ‘자연’이라는 키워드가 언급되어 ‘자연생태’로 정했다. 네 번째 주제는 ‘네트워크’, ‘낯술’, ‘소통’, ‘댄스’라는 키워드가 나와 ‘마

시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정했다.

정해진 주제와 관련해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나 장소, 알고 있는 소재가 있으면 포스트잇에 쓰고 원하는 주제에 붙였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주제에는 '제지회사 건물', '성황당', '돌탑'이 붙었고, 마시며 소통하는 공간에는 '비밀 아지트'라고 쓴 포스트잇이 붙었다. 각자 관심 있고, 조사하고 싶은 주제를 바탕으로 팀을 정했다. 한 팀에 네다섯 명씩 모여 팀명을 정하고, 전지 크기의 오산시 지도에 살고 있는 곳, 소개하고 싶은 공간, 좋아하는 곳 등을 스티커로 표시했다.

주제 정하기



지도에 표시하기





인물을 조사하기로 한 ‘오미수범’팀은 독특한 직업이나 손기술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고, 사라지는 것을 조사하기로 한 ‘지역의 샘터’팀은 아파트와 시골풍경이 동시에 있는 부산동을, 자연과 생태를 조사하는 ‘오매사랑’팀은 오산천을, 비밀아지트를 주제로 정한 ‘힐링아지트’팀은 팀원 각자가 가고 싶었던 켄리사, 오색시장, 서랑동을 지도의 범위로 정했다. 3주간 팀별로 조사할 곳을 다니며 걸었다. 중간피드백 시간, 참여자들은 걷기만 했는데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며 즐거워했다.

참여자들은 걷기만 했는데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며 즐거워했다.

조금 더 주제를 구체화해서 중간피드백 이후 4주간 팀별 조사를 다시 진행했다. 조사 기간이 길었던 것은 무더위와 여름휴가 일정으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시간적 여유를 둔 것인데, 일부 참여자는 오히려 기간이 길어 탄력적이지 못했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조사 후 한 번 더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팀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던져낼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지도 제작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류설아 퍼실리테이터를 비롯해 다른 팀 참여자들도 함께 피드백을 하며 서로 보완할 부분을 짚었다.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지도를 제작하고, 전시를 준비했다. 지도의 제목을 정하고, 만든 이유를 정리했다. 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 누가 어떻게 설명할지도 정했다. 전시 장소는 오산시청 로비이다. 처음에는 문화원 강의실에 전시하려고 했으나 오산문화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볼 수 있도록 시청 로비를 대관했다. 덕분에 오산시에서도 마을큐레이터의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전시 당일, 아침 일찍부터 마을큐레이터는 전시 준비로 바빴다. 이젤을 설치하고, 책상과 소품을 이용해 전시장을 꾸몄다. 오산문화원장은 축하 인사와 함께 수료증을 전달했고, 열여덟 명의 참여자가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을 마치고 다 같이 지난 활동 영상을 시청했다. 짧은 영상이지만 지난 과정들을 돌아보며 스스로와 함께 한 이들을 격려했다. 다음으로 팀별로 돌아가며 전시

한 지도를 설명했다.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이 함께 설명을 듣기도 하고, 전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했다. 발표를 마치고선 참여자 모두 둘러앉아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마쳤다.



내 안의 토포필리아를 깨우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공통적으로 참여자 스스로 결과를 전시하고, 설명하는 과정이다. 지도로 표현하고,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마을큐레이터의 편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다. 주제에 맞는 내용을 선별하고, 맥락에 따라 연결하기도 하면서 각자의 시선으로 지역을 재구성한다. 또한, 직접 설명함으로써 지도에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인문지리학자 이-푸 투안은 『공간과 장소』(사이, 2020)에서 “우리의 경험과 감정이 녹아들 때, 즉 공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때 그곳은 ‘장소로 발전’ 한다”고 했다. 지도라는 매개로 마을은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가 된다.

다른 지역과 달리 오산의 마을큐레이터는 네 개 팀 모두 개선되어야 할 것과 제안 사항을 추가로 발표했다.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보인다는 것은 기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살고 싶은 마을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이-푸 투안이 ‘장소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의한 ‘토포필리아(topophilia)’, 즉 우리 안의 ‘토포필리아’를 깨우는 과정이기도 했다.

오산의 마을큐레이터 네 팀이 마을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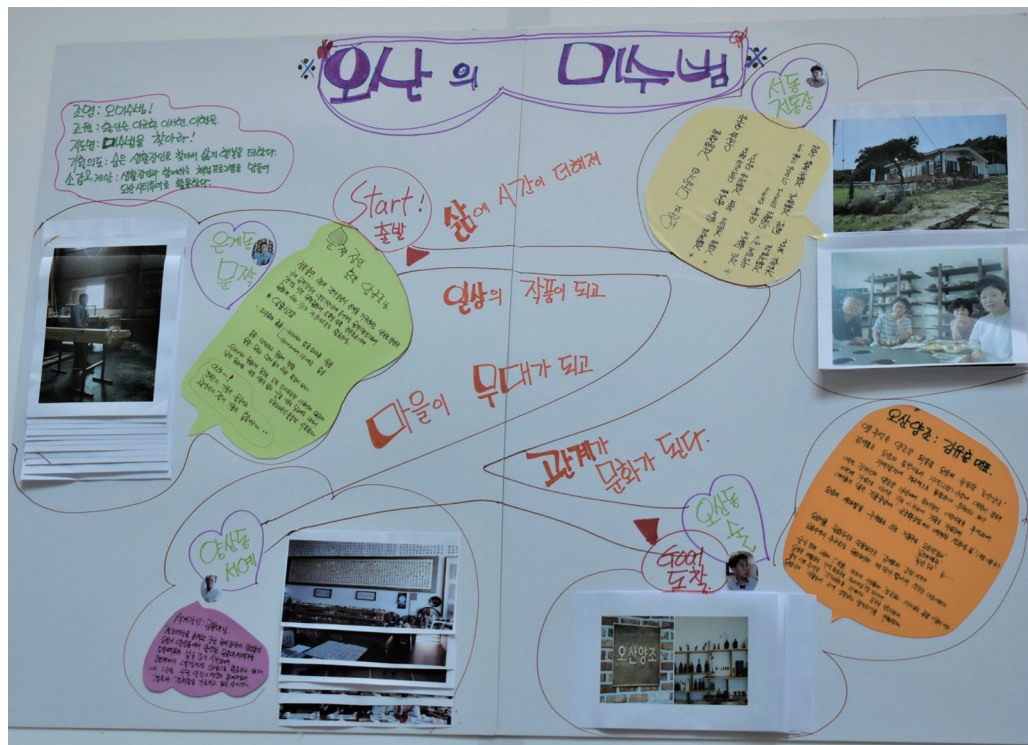
생활 장인과 함께하는 체험 코스

‘오미수범’팀은 ‘오산의 아름다운 손을 가진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우리 안의
‘토포필리아’를 깨우는
과정

라는 뜻이다. '사람'이라는 주제로 모여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가진 사람을 조사했다. 팀원 중에는 자기소개 때 전통 장을 만든다고 소개한 참여자가 있었다.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생활 기술을 가진 '생활 장인'을 주제로 정했다. 전통 문짜 제작, 전통음식과 전통 장 담그기, 서예, 막걸리 제조, 손기술을 가진 네 명의 사람들을 만나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인터뷰했다. 팀원들이 직접 생활 장인의 기술들을 체험해보면서 공통적으로 네 명 모두와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생활 장인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코스를 만들고 '미수법을 찾아라!'라는 제목의 지도를 만들었다. 제일 먼저 안규조 문짜 장인을 만나 장인의 작업장에서 창호기법으로 냄비받침 만들기를 체험한다. 다음은 팀원이기도 한 이규희 전통음식 장인을 만나 전통 고추장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다. 배를 채운 뒤 문용대 서예 장인이 있는 곳에서 가훈 쓰거나 족자 만들기 체험을 한다. 마지막으로 오색 시장에 위치한 오산막걸리 양조장에서 양조장 체험도 하고 수제맥주나 요리술을 구입 할 수 있는 코스를 소개했다. 체험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냄비받침과 고추장, 서예 작품, 막걸리 등 장인들의 작품도 지도와 함께 전시했다. 또한 장인과 함께하는 체험 코스를 오산 시티투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오산천 편리하게 이용하기

‘오매사랑’팀은 오산천의 생태와 활용도를 조사했다. 오산에는 휴식 공간이라고 할 만한 곳이 많지 않다. 오산천은 오산 시민에게 중요한 휴식 공간이자 행사도 많이 열려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많은 장소이다. ‘오매사랑’팀은 오산천에서 볼 수 있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즐길 거리가 표시된 지도를 만들었다.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궁화동산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계절마다 식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림판은 있는지 세세하게 조사했다.

그렇게 조사하고 보니 불편하고, 아쉬운 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더운 여름날 손도 씻고, 물도 마시면 좋겠는데 음수대가 없었고, 공유자전거가 있지만 반납하려면 빌린 곳까지 돌아가서 반납해야 했다. 벤치와 화장실도 부족했다. 이용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안 사항으로 정리했고, 빠르게 걷기 대회, 유모차의 날, 애완견과 걷기 행사 등 오산천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오산천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우리 동네 마실길

‘기억의 샘터’팀은 도시 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것들을 찾아 추억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부산동 근처는 개발이 막 이루어지는 곳이라 아파트가 즐비한 도시의 풍경과 시골의 풍경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이곳을 조사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부산동이 어떤 동네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볍게 걸었다. 벽화마을이 조성되었지만 10년 정도 지나서 관리도 되지 않고, 쓰레기도 많았다. 두 번째는 과거 사진도 수집하고, 옛 지명도 알아보고, 오래 살



있던 분을 인터뷰하며 골목골목을 다녔다. 다녀보니 한두 시간 정도 산책하기에 좋았다. 특히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마땅히 걸을 만한 곳이 없었는데 이곳은 옛 정취를 그대로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길이었다. ‘기억의 샘터’팀은 주제를 ‘우리 동네 마실길’로 정하고 걷기 좋은 길을 표시 했다. 길마다 특징이나 이야기를 조사해 이름도 붙였다. ‘무궁화길’, ‘장점다리길’, ‘물고기길’ 등인데 재밌는 건 ‘개조심길’이다. 길을 지나다 집마다 개가 2, 3마리씩 짖길래 여기는 왜 다들 개를 키우냐고 주민에게 물었더니 동네 끝 길이라 무서워서 개를 키운다고 했다. 그래서 ‘개조심길’이라고 이름 붙였다.

나무와 교육 이야기

‘힐링아지트’팀의 처음 주제는 ‘낯술하기 좋은 장소’였다. 그런데 구성원 중 학부모들이 많아서인지 조사한 결과들이 모두 교육과 관련되어 있었다. 피드백을 거쳐 주제를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변경하고, 오래된 나무들과 교육을 연결해 이야기 지도를 만들었다. 켈리사의 향나무, 천문학박사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꽃집 닭갈비 옆 나무, 서랑동의 350년 된 느티나무를 소개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가면 좋은 곳, 교육 방식에 대한 이야기, 체험학습이 가능한 곳 등을 풀어냈다.

이 나이에 치열함은 있다

류설아 퍼실리테이터는 네 팀 모두 발표를 마치고 소감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제가 항상 처음부터 강조했던 건 ‘한 분, 한 분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오산이란 지역에서 내가 오산 시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그 시간이 가장 치열했던 것 같아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물을 내야하니까 마지막 순간에 엄청 싸우셨죠. 우리가 나이가 있거나 사회적인 지위나 책임 때문에 잘 싸우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넘어가고 나와 다른 사람으로 치부하고 오히려 선을 그어버리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은 정해져 있

고 더 이상 누군가와 다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엔 여러분이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자기의 주장과 자기가 발견했던 그 가치를 잘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잘 싸우시더라고요. 오늘의 이 결과물은 아주 훌륭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원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공간에서 고민했던 것, 싸우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 내가 알아낸 것들, 그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는 곧 편집’이라고 주장하는 『에디톨로지』(21세기북스, 2014)의 저자 김정운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건과 의미를 각자의 방식으로 편집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아간다. 마을큐레이터는 주제별로 한 팀이 되어 하나의 지도를 만들면서 지난하게 서로의 편집 방식에 대립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는 과정을 겪었다. 그런 낯선 상황에서 얻는 것도 있다. 바로 ‘나’에 대한 발견이다.

낯선 상황에서 얻는
것도 있다. 바로 ‘나’에
대한 발견이다.

참여자1 지난주 저희 조가 좀 치열했죠? 중간에 약간의 의견차가 있어서 방향이 조금 수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집에 가서 ‘내가 아직도 치열함이 남아있구나, 이제 은퇴할 시기인데 아직도 이런 의욕이 아직도 남아있었구나’ 해서 놀랐거든요. 오늘은 우리 팀장님이 계셔서 안도하고 왔는데 제게 발표라는 무거운 짐을 주셔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 걸 끝까지 해야지’ 생각한 결과를 오늘 맺게 돼서 기쁘고 앞으로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2 제가 이번에 배운 것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 괴로웠어요.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이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공자님이 그러셨잖아요. 육십은 이순.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래요. 귀 이(耳)자에 순할 순(順)자. 그러니까 무슨 애길 들어도 하하하, 그래, 그래 너도 맞고, 다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공자님의 경지까진 못 가도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귀가 좀 순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내가 대견하다’ 생각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참여자들이 갈등이 생기거나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산문화원 사업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많이 했다고 한다. 담당자는 사업의 취지와 맥락을 알기에 서로 다른 개인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문화원 담당자가 참여자들과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소통한다. 담당자의 세심한 챙김과 무엇이든 괜찮다는 지지의 표현은 주민의 참여율과 적극성을 끌어낸다.

마을큐레이터에서 동네문화기획자로

마을큐레이터를 진행한 하남, 의왕, 오산 모두 마을큐레이터를 다르게 정의한다. 모이는 주민의 성향과 진행하는 문화원의 방향, 퍼실리테이터가 풀어나가는 방식에 의해 저마다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다. 때로는 이런 상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호하게 만들기도

하고, 방향과 계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도 한다. 그런데 오산에서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마치고 퍼실리테이터, 문화원, 참여자가 마을큐레이터를 동일하게 정의했다. ‘동네문화 기획자’라고.

오산시는 2019년 12월 제2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제안하거나 실행하는 역할이 필수다. 문화도시 사업은 협치 구조를 기반으로 추진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민, 문화예술인, 기획자, 행정담당자 그룹이 협의체를 이뤄 추진한다. 오산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9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오산문화원이 협력해 진행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사업은 주민 주체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후에 오산문화원은 자체적으로 <마을큐레이터 되기 심화과정>을 한 달간 진행하고 2020년도 예비문화도시사업으로 <우리동네 문화기획>을 제안해 진행 중이다. 마을큐레이터 과정의 참여자는 <우리동네 문화기획> 사업의 리더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오산문화원은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자체 예산을 편성했다. 예비문화도시 사업과는 별도로 향토문화연구사업에 시비 약 사천만 원을 편성해 <우리 마을의 소리를 찾아서>, <오산 역사 기록하기>, <마을큐레이터 양성>으로 지역을 기록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처음부터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시범사업의 성격으로서,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는 실험의 과정이기도 했다. 첫 번째는 과거부터 전해오는 전통으로 지역을 읽어왔던 문화원이 지역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혀 지금, 현재의 지역도 읽을 수 있다면 사업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문화원 건물에 주민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권에서 활동하다가 거점이 필요할 때 문화원으로 모이는 방식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일종의 실험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니 협력으로 참여한 지역문화원에서 좋은 건 취하고, 맞지 않는 것은 버려가면서 자체적으로 끌어가길 바랐다. 그런데 오산문화원은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1년 만에 마을큐레이터와 문화원의 접점을 찾은 것이다. 올해 오산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마을큐레이터 과정은 주민들이 사진을 활용해 지역을 읽는다. 지역읽기의 방식은 바뀌었지만 주민과 지속해서 협력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있다.

다시 에코뮤지엄으로 돌아와서(에코뮤지엄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리비에르는 ‘에코뮤지엄의 발전적 정의’에서 행정과 주민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에코뮤지엄은 행정당국과 주민이 같이 구상하고 만들어 활동하는 수단이다. 행정당국은 전문가와 함께 편의를 도모하고, 재원을 제공한다. 주민은 각자의 흥미에 따라서 자신들의 지식과 대처능력을 제공한다.”²⁾ 여기서 행정당국에 문화원을 적용해도 무방

2) 『에코뮤지엄: 지속가능한 농촌 희망 프로젝트』(배은석, 북코리아, 2013)

하다. 지금까지는 문화원과 함께할 수 있는 주민들을 만나고, 협력의 가능성을 맛봤다면 이제는 주민과 함께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남아있다. 동네문화기획자는 만들어지거나 양성되지 않는다. 더 나은 방향,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주민,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주민으로부터 동네문화기획이 시작된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 가벼운 협력의 경험치가 쌓여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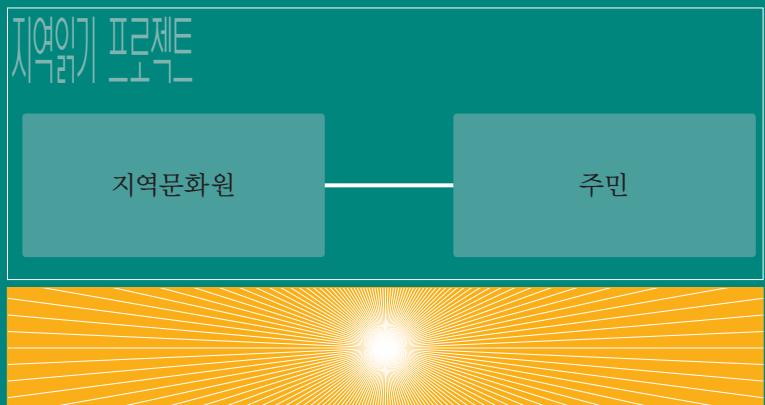
여 백

바깥시선

N4. 추억으로 지역읽기

N5. 구술로 지역읽기

의정부문화원은 2019년부터, 이천문화원은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희영, 오다예 기획자는 사무국장, 담당자,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외부인의 시선으로 의정부와 이천의 사례를 다시 읽습니다.



바깥시선

N4. 추억으로 지역읽기

N5. 구술로 지역읽기

의정부문화원

문화원은 주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흥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발 빠르게 연구진의 보조 역할이 아닌 주민이기에 가능한 역할을 고민했다. 그것은 바로 숨어있는 제보자, 알려지지 않은 문화자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기존 참여자가 어려워했던 구술조사와 기록 과정을 과감히 건너뛴다. 대신 구술과 기록의 소재를 찾는 것에 집중했다. 주민이기에 알 수 있는 세밀한 관계의 영역, 일상의 영역을 주민의 눈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의정부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기억찾기 프로젝트**
산곡동에 대한 기억을 나눠주실 제보자를 찾습니다.
문의 ☎ 031-872-5678 (의정부문화원)

- 오래 거주하신 분
- 사진이나 기록이 많은 분

주최 | 의정부문화원 후원 | 의정부시

추억으로 지역읽기

제보자를 찾습니다

의정부문화원에서 ‘제보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발견했다. ‘제보자’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져 들여다보니 제보자는 다름 아닌 동네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 추억거리가 있거나 사진을 가진 사람이었다. 의정부문화원은 주민들에게 기억을 제보 받는 것에서부터 마을기록을 시작했다.

의정부문화원은 2019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마을조사를 시작했다. 도시 개발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지역을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주민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마을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10년간의 장기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것이 의정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옛 마을의 모습과 현재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기록하는 <의정부 기억 찾기 프로젝트>이다. 해마다 마을 한 곳을 정해 마을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민(제보자)을 만나 구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의식주를 비롯해 생업, 놀이, 의례 등을 마을지 형태로 발

간하는 프로젝트이다.

문화원 사무국장 보통 의정부 사람의 옷, 패션에 대해 연구하면 거기서 끝나요. 옷 입는 것을 말하려면 먹는 것, 사는 것,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먹고, 살고, 입고 하다보면 왜 여기에 살게 되었는지 배경부터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야 답을 찾는데 지금까지 지역 연구는 개별 주제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 이 옷을 입었지?’가 아니라 ‘무슨 옷을 입었는지’로 끝납니다. 그런 개별 연구가 전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문화원에서 하는 마을조사이고, 현재 여기서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입니다. 과거에서 멈춰버리지 않게 하려고 해요. ‘몇 년대 의정부가 어떠했는가’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를 조사하기 위해선 그 시간 동안 여기서 살아온 사람들을 조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화원이 제보자를 찾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주민의 도움이 필요했다. 문화원이 하고자 하는 기록 활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제보자를 섭외하거나 자신이 제보자가 되어 기억을 나눠줄 수 있는 주민이 필요했다. 지역의 이야기를 가장 잘 알고,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역사학자나 민속학자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기 때문이다.

의정부문화원은 2019년 〈시민마을기록자 양성 과정〉을 시작했다. 양성 과정은 8주간의 교육과 구술채록 실습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을 들은 참여자는 의정부 향토문화연구소장을 비롯해 민속학, 국문학 등을 전공한 연구진과 현장에서 마을조사에 참여한다. 따라서 커리큘럼은 마을조사의 개념부터 구술을 비롯한 개

인생애 조사 방법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론 교육을 마치고 시민마을기록자는 마을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 수집과 제보자를 파악하는 마을기초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의정부시를 서남권, 서북권, 동남권, 동북권 총 4개 권역, 5개 팀으로 구분해 연구진 한 명과 시민마을기록자 한두 명이 팀을 이뤘다. 시민마을기록자는 조사 대상(제보자)을 소개하기도 하고, 조사자로서 사진촬영을 하거나 제보자를 인터뷰했다. 그 결과, 전문 연구진과 시민마을기록자의 협력으로 「마을의 역사와 지역민의 삶 - 의정부 마을기초조사 보고서」와 마을지 형태의 「의정부 기억 찾기 프로젝트 의기투합(議記to合) - 헬로뽀벌」 두 권의 책이 발간되었다.

주민만이 할 수 있는 일

2020년 두 번째로 시작한 2기 〈시민마을기록자 양성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미션이 예년과 달랐다. 이유는 ‘너무 어렵다’는 참여자의 반응 때문이었다. 2019년도 시민마을기록자 양성과정에서 강의에 참여한 인원은 30여 명이었지만 현장에서 마을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8명이었다. 8주의 교육으로 전문 연구진과 합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이다.

문화원 사무국장 처음의 기대치는 높았어요. 시민들이 전문가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사나 기록의 영역은 높았습니다. 시민기록자분들이 시작할 때는 용기를 가지고 하셨는데 막상 해 보니까 과정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 기록을 어렵게 생각하고 안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두 번째 미션으로 기록과 가공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할 테니 참여자는 재료를 찾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은 전문가보다 훨씬 잘하세요. 인터뷰도 친한 마을사람들이니까 전문가보다도 이들이 더 잘해요.

주민이기에 알 수 있는
세밀한 관계의 영역,
일상의 영역을 주민의
눈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문화원은 주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흥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발 빠르게 연구진의 보조 역할이 아닌 주민이기에 가능한 역할을 고민했다. 그것은 바로 숨어있는 제보자, 알려지지 않은 문화자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기존 참여자가 어려워했던 구술조사와 기록 과정을 과감히 건너뛴다. 대신 구술과 기록의 소재를 찾는 것에 집중했다. 주민이기에 알 수 있는 세밀한 관계의 영역, 일상의 영역을 주민의 눈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이 맺고 있는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바탕으로 기록할 대상을 찾으면 문화원은 이를 정리하고, 분류한다. 시민마을기록자가 찾은 문화자원 중 심층적인 기록이 필요한 대상이 있으면, 이를 전문 연구진이 조사하여 기록하거나 구술조사 교육을 받은 1기 시민마을기록자가 심층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명칭은 같은 시민마을기록자이지만 2기 활동은 ‘자원 발굴과 수집’에 방점이 있다.

프로그램은 예년보다 강의가 줄고, 현장 조사 기간이 늘었다. 2020년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총 4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구술조사의 의미와 필요성 등 기록을 하는 이유와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인터뷰 방법과 시민기록자의 역할 등 필수적인 부분으로 압축했다. 강사는 2019년에도 참여한 서종원 중앙대학교 연구교수와 민속학을 전공한 전소운 의정부문화원 문화사업팀장(사업담당자)이 맡았다. 6월부터 시작된 현장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보다 기간이 늘었지만 현장에서 겪은 어려운 점을 공유하는 중간보고회의와 결과공유회의를 거쳐 11월에 마무리되었다.

우리 동네 문화공간은 오래된 카센터

시민마을기록자 활동은 문화원이 먼저 조사 주제를 정하면 시민마을기록가 주제에 해당되는 대상을 찾아 인터뷰하는 방식이다. 언뜻 보면 일반적인 조사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특별한 점은 ‘주제’에 대해 시민마을기록자만의 해석이 가미된다는 것이다.

시민마을기록자가 조사할 첫 번째 주제는 ‘우리 동네 문화공간’이었다. 처음 무엇이 문화공간인 것 같냐는 담당자의 질문에 문화원, 예술의 전당, 극장, 공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다시 물어도 극장이 중앙극장으로 바뀌는 정도였다. 담당자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범위를 한정 짓지 말고, 무엇이든 얘기해보자고 제안했더니 한 참여자가 ‘카센터’라고 대답했다. 남편이 오랫동안 카센터를 운영하는 데 사람들이 자주 모여 이야기하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라 그

곳이 남편의 문화공간이라고 했다.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장소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문화공간’은 헌책방, 빨래터, 마라톤 코스 등 다양한 장소로 확장되었다.

우리마을기록단 씬.바.귀 - 의정부 방방곡곡 숨어있는 문화 공간 찾기 프로젝트 조사자 : 전 현미		
제보자 정보		
이름 : 조영애	성별 (남성 / 여성)	출생연도 (나이) : 1982-2-23
인터뷰 날짜 : 2020년 7월 11일	인터뷰 장소 : 비틀즈 음악사안	
의정부 거주 기간 :	제보자 선정 이유 : 비틀즈 음악사 직원임	
문화 공간 정보		
공간 이름 : 비틀즈 음악사	이름의 유래 : 영국의 4인조보컬그룹 비틀즈의 이름	
주소 : 의정부시 중앙로		
개점 시기 : 약 20년 넘음	공간 내 제보자 역할 : 직원	
연락처 :	주요활동 : 판매	
이력사항 : (점포 이전, 분점, 확장, 대를 이어 운영 등등) 의정부에서 너무나 오래되고 잘 알려진 악기사이며 음반 CD, 악기 등 팝음악의 역사를 가장 오래 고객과 함께 해온 악기사이다.		
문화 공간이 가지는 의미		
- 조사자가 생각하는 문화 공간이 의정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 음악사가 의정부의 문화적 소거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하며, 중요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다하여 주고 있다고 본다. 살아있는 팝, 보컬리스트들의 문화적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구술 자료 (선택사항)		
- 초창기의 이야기, 가장 창사가 됐던 시절 이야기, 점포를 열게 된 이유, 점포의 변화 과정, 단골 등 노포 혹은 문화공간 관련 이야기 1가지 너무나 오래되어 기록하기 힘들다는 것이 저의 소견이다. 한국의 너무나 많은 팝 (popular musician) 공간에서 살아있는 로컬러 장르의 역사라고 생각한다.		

손으로 기록한 조사활동표

논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되었고, 참여자에겐 조사활동표가 주어졌다. 조사활동표는 인터뷰 대상인 제보자에 관한 정보와 공간의 이름, 유래, 개점 시기, 의미와 스토리 등 무엇을 조사해야하는지 정리된 양식이다. 시민마을기록자는 각자가 생각하는 문화공간을 조사하며 사진을 찍고, 조사활동표를 작성했다.

‘가금철교’, ‘비틀즈음악사’, ‘동막경로당’, ‘수성자동차공업사’ 등 문화원 담당자도 전혀 생각지 못한 곳들이 조사되었다. 그중에는 간판 없는 슈퍼도 있었다. 간판도 없는 허름한 가게 앞에 할머니들이 의자를 놓고 앉아 도란도란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의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인물’이라는 주제가 주어졌다. 문화인물은 의정부에서 1963년도부터 시작한 목장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현재까지 운영하는 목장 주인, 미군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해 온 사람 등 30년 이상 거주하며 의정부의 옛 모습을 기억하거나 한 가지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들이 소개됐다.

문화원 사무국장은 과거의 영향이 현재에 어떻게 미치는지 정리되어야 다음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조사와 기록의 시점은 현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이 생각하는 문화공간과 문화인물이라는 주제는 조사의 시점을 근현대로 향하게 함과 동시에 주민에게 무엇을 기록으로 남겨야하는지 묻는다. 시민마을기록자가 조사한 결과는 개인의 경험과 나름의 기준에서

선별된 것이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는 현재 무엇을 기록해야 하고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주민의 생각이 담겨있다.

집집마다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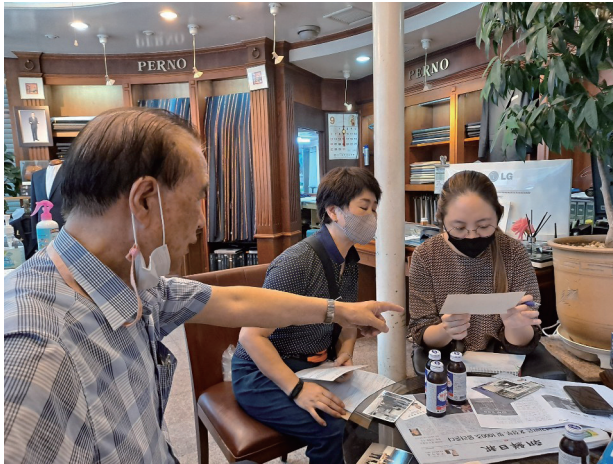
2기 시민마을기록자는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소개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동네 곳곳을 잘 알고 있어야 했기에 참여자는 의정부에 2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시민마을기록자 양성 과정〉에 참여한 32명의 참여자는 지역 활동가가 많았고, 이들 중 25명은 새마을회 소속으로 60대 부녀회장이 대부분이다. 새마을회는 동네를 기반으로 봉사활동, 음식 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소위 집집마다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들이기에 시민마을기록자 활동에 있어 적격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동네 마당밭일지라도 막상 인터뷰를 하려니 시작이 쉽지 않았다. ‘누구나 아는 공간인데 이게 뭐라고 소개하지?’, ‘내가 생각하는 게 문화공간이 맞나?’하며 주저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담당자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 ‘이게 뭐라고?’, ‘이건 뭐하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중에는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단골집에 가서 수다 떨듯이 이야기하고 오세요.”라고 말했다. 다만 겹치는 대상이 없도록 단체 메신저에서 어디를 조사할 것인지 미리 공유하고 작성한 조사활동표를

올리기로 했다. 다들 인터뷰를 망설이고 있을 때 메신저에 누군가 조사활동표를 공유했고, 망설이던 참여자들도 인터뷰에 속도가 붙었다.

인터뷰는 혼자 가도 괜찮고, 짝을 지어 가도 괜찮았다. 인터뷰 중 한 시민마을기록자는 혼자서 시도하다 예상치 못한 거절에 당황했던 일도 있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노포를 취재하러 갔을 때다. 가게에 항상 손님이 많아서 혼자 몇 번을 서성이며 한 가한 시간을 찾아 들어갔다. 그런데 주인은 없었고, 종업원들에게선 귀찮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홍보하러 왔거나 뭔가 판매하러 온 것처럼 오해한 것 같았다. 식당을 나오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지? 기록자는 괜히 한다고 해서 문전박대나 당하네.’라고 생각하며 활동을 후회도 했다고 한다. 중간보고회에서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고민을 털어놓자 담당자가 함께 가겠다고 해 다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누구를 만나도 스스로없이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지만 정보를 얻기 위해 누군가에게 활동을 소개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이들에게도 새로운 영역이라 연습과 적응이 필요했다. 담당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지지했다.

시민마을기록자는 문화공간과 문화인물을 포함하여 총 143건을 조사했다. 한 사람당 다섯에서 여섯 건씩 조사한 것이다. 조사한 곳 중에는 30년 이상의 오래된 가게들이 많았다. 한 지역에 오래 살아온 지역주민이기에 자기가 다니던 단골집을 조사하거나, 어



디가 오래된 가게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 누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 고향집에서 혼례까지 치렀는지, 어디가 슬레이트집이었다가 새로 건물을 지었는지, 어느 밤나무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지역의 변화를 지켜보고 함께 살아온 주민이기에 가능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의.기.사 매거진

의정부는 미군부대가 일찍이 들어서면서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아온 곳이다. 60년대에는 순대를 먹을 때 케첩을 찾기도 했고, 그 당시 유행을 선도했기에 여대생들은 옷을 사기 위해 의정부로 오기도 했다. 시민마을기록자가 찾은 공간에서도 의정부의 7,80년대를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가 많다. 살아있는 포퓰러(popular) 장르의 역사라고 소개한 ‘비틀즈 음악사’는 3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었고, 1986년에 개업한 의정부 최초의 피자가게도 소개되었다. 70년대 다방에서는 커피가루를 넣고 필터 없이 가라앉혀 마시거나 찬물을 붓는 그라운드 커피를 팔기도 했다. 40년

이 넘게 간판이 바뀌지 않은 ‘비바 양복점’은 미군부대 캠프 레드 클라우드와 번성과 쇠퇴를 함께했다.

이렇게 의정부를 추억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의.기.사 매거진>이라는 이름으로 웹과 SNS로 발신된다. ‘의.기.사’는 ‘의정부를 기록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시민마을기록자가 작성한 조사활동표를 보기 좋게 편집해 한 장짜리 웹자보로 만든 것이다. 의정부문화원 홈페이지에는 <의.기.사 매거진>이라는 별도의 메뉴가 있어, 1호부터 현재는 66호까지 시민마을기록자가 조사한 결과들이 꾸준히 업로드 되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도 의정부문화원을 친구추가하면 웹자보를 매일 받아볼 수 있다.

자료집이나 책을 발간하는 것과 달리, 웹이나 SNS로 활동 결과를 공유했을 때의 장점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매거진을 받아본 사람들은 ‘나도 단골이다’, ‘나도 거기 가봤다’ 등의 공감에서부터 ‘어릴 때 자주 가던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아직도 있냐’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의.기.사 매거진>은 참여자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추억’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웹과 SNS기반의 <의.기.사 매거진>은 ‘추억의 공간’, ‘추억의 노포’라는 맥락이 더해진 콘텐츠이며, 새로운 이야기가 생성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사무국장은 “옛날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는 것이지만 소통과 연결이라는 생각도 들어요.”라고 했다.

의 정부를 기록하는 사람들

추억의 노포를 만나다

발행일 2020. 9. 24 발행처 의정부문화원
의정부시민마을기록자 박경옥, 정미자

유행을 선도하는 멋쟁이들이 찾았던

비바양복점



비바양복점 대표 채학권(70세) 재단사
의정부시 흥선로 10

비바양복점의 간판을 마주한 순간 마치 영화 세트장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이곳 흥선로 일대는 미군부대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함께 번성했고, 쇠퇴를 맞이했다.

비바양복점 채학권(70세) 대표는 16살때부터 재단 기술을 배워서 30세에 약혼을 하고, 그 해에 현재 자리에 비바양복점을 오픈하였다. 박음질 해주는 사람은 따로 두고 재단사로 40년 넘게 양복점을 운영하였다. 비바양복점이 호황을 누릴 때는 품질도 좋으면서 미국에 비

해 양복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미군들이 한국에서 양복을 많이 맞춰서 본국으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도 옷을 맞추러 많이 이곳을 찾았다. 미군들은 갑작스럽게 본국에서 일이 생기면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고도 옷을 못주거나, 반대로 돈을 못받고 옷만 만든 경우도 종종 있었다. 8, 90년대엔 유니섹스 스타일이 유행이어서 옷을 크게 입다보니 옷 사이즈가 조금 달라도 크게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억은 사전적 의미로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다시 생각해 내는 것”(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한다. 추억은 회상과 같은 의미로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행위이다. 그동안 기억과 회상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차원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집단적, 문화적 그리고 공공적인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억 문화 연구』(커뮤니케이션북스, 2014)에서 태지호는 기억을 “사회 구성원들이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기억은 단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행위를 위해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조건들이 개인의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때문에, 지역에 대한 개인의 기억을 수집하고, 회상으로서 ‘기억해 내는 행위’는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읽어낼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지역에 대한 개인의
기억을 수집하고,
회상으로서 ‘기억해
내는 행위’는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읽어낼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아카이브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장기적이고 영구적으로 남겨야 할 가치가 있는 기록이라는 의미이고, 둘째는 이러한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를 뜻한다. <의.기.사 매거진>은 활동가들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초기 단계이지만 지속적으로 시민마을기록자의 기록이 쌓이고, 이야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활용된다면 그 자체로 아카이브의 기능도 가능할 것이다.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일

문화원 담당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마을을 다닐 수가 없어서 제보자를 소개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인적 인프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신곡동은 재개발 구역인데, 철거가 되고 있는 상황을 문화원에 말씀해 주셔서 사진 촬영이나 기록 준비도 할 수 있었어요. 문화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고 계시니까 선생님들께 전화 드려서 “호원동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인터뷰하실만한 분이 계실까요?”하고 물어보면 알려주시고 인터뷰도 해주셨어요. 시민마을기록자 활동을 직접 하시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알고 계셔서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완결되지 않은,
비어있는 부분에
상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둘
때 비로소 협력이
이루어진다.

시민마을기록자는 재개발 구역이나 철거 지역을 발견하면 제일 먼저 문화원을 찾는다. 문화원은 마을조사를 해야 하는데 인터뷰 해주실 분이 있는지 시민마을기록자에게 묻는다. 의정부문화원은 주민과의 관계를 ‘파트너’로 정의한다. 협력 관계인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필요와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완결되지 않은, 비어있는 부분에 상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둘 때 비로소 협력이 이루어진다. 의정부문화원은 완결된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어떤 주민들이, 어떤 활동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느냐에 따라 방법과 방식은 유동적으로 변한다.

〈시민마을기록자 양성 과정〉이 연차별로 연속성을 갖지 않는 이유는 기수별로 방식과 분야를 다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주민들의 관심이나 흥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가 맞는 역할로서 마을 기록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했다. 1기는 구술조사, 2기는

자원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다음은 사진으로 기록하는 팀을 꾸릴 계획이다.

“한 가지 방식을 유지하거나 1기, 2기, 3기 단계별로 이어지는 개념이 아닌 각자의 영역으로 파트를 만들면서 확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시민마을기록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진행되고, 각자에게 맞는 미션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펜화 팀은 사진으로 기록한 팀이 재료를 넘겨주면 펜화로 기록 하고, 구술 기록하는 팀에게 재료를 주면 인터뷰를 통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라고 문화원 사무국장은 설명했다. 여기서 문화원의 역할은 필요한 사람에게 각자의 소재를 연결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마을기록자의 활동 결과를 문화원만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활동할 거리를 팀별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재료가 가공되면 그 다음은 재단이나 예술가, 문화원이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문화원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영역을 나눠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정부문화원의 문화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인 펜화팀에서는 마을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 사진팀은 개발 예정인 마을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문화원은 마을기록이라는 맥락으로 각각의 활동을 연결하고, 개별적인 결과물들이 공동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역할 하고자 한다.

누구나 참여하는 제보시스템

의정부문화원은 각 분야의 활동이 연결되고, 확장되는 것은 지향하지만 동아리 형태로 조직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동아리 형태를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 사무국장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동아리도 아니고 개개인이었으면 해요. 시민마을기록자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요. 무엇으로 묶어지는 순간 제한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문화원이 미션을 던졌을 때 개개인이 미션을 가지고 사방에서 움직여서 모아지게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하나의 동아리나 집단이 되면 그들만의 영역이 될 것 같기 때문이었다. 동아리나 그룹이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해 던진 질문에 돌아온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다.

“문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 자꾸 묶으려고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문화원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첼로반은 첼로반으로 묶여요. 문화원회원으로 그냥 존재해야 하는데 그 틀을 우리가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문화원이 어느 순간 조직으로 묶어서 그들만 관리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은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 시도를 해가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의정부문화원은 시민마을기록자의 시민을 동아리나 문화원 회원으로 한정 짓지 않으려 한다. 주민 누구나 제보자가 되어 자신의 마을살이를 나누고, 기록할 거리가 있다면 사진, 구술, 드로잉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기를 바랐다. 문화원은 마을기록의 거점이 되어 활동을 지원하고, 아카이브하는 것이다. “꿈꾸는 것은 시민들이 다 기록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민마을기록자 양성 과정>이 지속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내가 의정부에 대해 소개하고 싶은 것들을 올리면 그중에 채택해서 2차, 3차로 가공하기도 하고 또 기록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나가서 조사도 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정책사업의 결과이든 관성적으로 그래왔든, 문화원은 센터(생활문화센터이건 지역문화센터이건)를 지향해 왔다. 센터는 건물 안에서 어떤 활동이든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갖추고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 센터 관리자는 프로그램부터 공간까지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를 관리한다. 그런데 센터의 맹점은 재미있게도 센터를 향하게 한다는 거다. 어느 순간 센터를 중심으로 경계가 구분될 때가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자와 이용하지 않는 자, 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센터 바깥의 프로그램, 센터의 동아리와 센터 바깥의 동아리로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정부문화원이 활동가들을 조직으로 묶지 않겠다는 얘기는 센터 중심으로 향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이야기로 들렸다.

과정으로서의 마을기록을 위하여

의정부문화원에서 시민마을기록자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회원과 ‘마을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

다’는 대화를 나누면서부터다. 옛날에 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앉은 어르신께 물었던 것처럼, 동네에 누가 새로 이사 오면 마을전문가를 만나 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문화원 사무국장 이 프로젝트에도 담당 마을이 있어요. 처음부터 마을을 정해서 담당자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었으면 했어요. 제가 그리는 것은 의정부에 살려고 와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동사무소에서 마을과 관련해 기록된 책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의정부 기억 찾기 프로젝트 의기투합(議記to合)> 사업으로 발간하는 마을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을 만나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마을이 어떤 곳인지도 알고 처음 이사 오면 어색하고 힘든데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을 만나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과정이 오래되면 그런 분들이 탄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을기록은 ‘어떤 마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도구이다.

결국 시민마을기록자는 마을에서 주민 간의 소소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교류하며 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 과정에서 마을기록은 ‘어떤 마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도구이다. 문화원은 주민과 함께 마을기록을 통해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단기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의정부 기억 찾기 프로젝트>는 10년간의 장기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원장, 사무국장, 직원조차도 임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게 맞나?’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고 사무국장은 말한다. 결과로서가 아닌 과정으로서 마을기록이 진행되려면 맥락이 이어지고, 노하우가 축적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마을기록은 지금, 문화원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문화원 사무국장 시민마을기록자는 많아졌으면 좋겠고, 제보자는 자기가 제보자라고 스스로를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거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 지려면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알려져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저희의 숙제예요. ‘문화원에서 이런 거 한다더라, 재밌더라’하고 어디선가 들어보셔서 마음을 쉽게 여시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시선

N4. 추억으로 지역읽기

N5. 구술로 지역읽기

이천문화원

구술사 기록 3년 과정의 주제 흐름은 넓은 범위의 '사람'에서 좁고 깊은 범위의 '사람'으로 변화해 왔다. '사람'에서 '개인'을, '직업군'에서 '삶의 도구로서의 노동'을, '과거'가 아닌 '과거로부터 지금'을 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록물로 무엇이 남느냐 보다 '시민이, 시민기록자가, 마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가 아닐까 싶다. 그것이 역량으로, 자부심으로, 소중함으로, 행복으로, 삶의 긍정으로, 에너지로, 애뜻함으로, 인정으로, 삶의 태도로서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일러두기

인문학이라는 큰 줄기 안에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업구조와 시민들의 결합지점을 정리 해 두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 시민기록자 교육과 활동 전개를 그림으로 정리 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진행해 온 만큼 자세한 교육과 활동과정을 모두 담을 수 없어, 그림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무엇보다 교육과 활동기록에 대한 정보는 이천문화원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이미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 다루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다. 사업을 기획하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볼 때 인문학으로 시작한 시민교육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로 확장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며, 시민기록자를 중심으로 볼 때 시선과 역량의 변화를,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볼 때 마을과 삶을 마주하는 과정과 변화를 필자의 시선으로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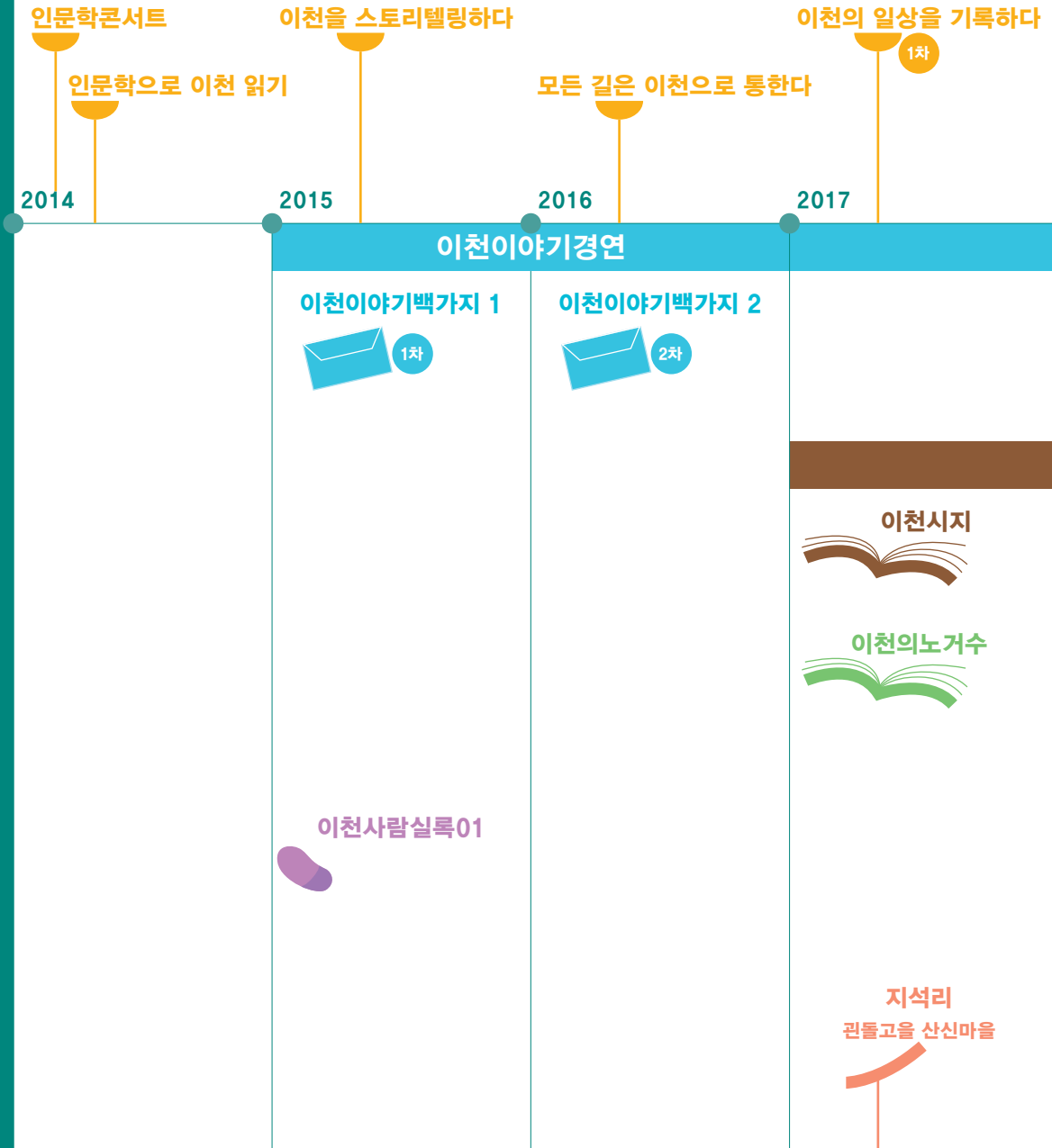
구술로 지역읽기

인문학에서 시민기록자까지

이천문화원이 하는 인문학

“이천문화원이 하는 인문학은 그냥 인문학이 아니라 ‘이천의 인문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그 위에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세우고, 다 함께 삶의 터전인 이천을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천의 인문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17년 시민기록자 과정의 강의를 모아 발행한 도서 「이천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다」의 발간사를 통해 이천문화원의 인문학에 대한 고민을 들어 볼 수 있다. 4년간 꾸준히 이천에 대해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이천만의 고민이며 답일 것이다. 문화원은 이천의 인문학을 이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천의 이야기에 집중한 강좌와 시민기록자의 단단한 활동기반을 만들어 낸 시민 중심의 인문학을 만나 보려한다.





시민인문학,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천문화원은 2014년 <인문학으로 이천읽기>강좌를 시작으로 7년 동안 시민인문학강좌를 이어오고 있다.

시민인문학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서 기획한 경기도 메모리사업의 파트너기관으로 문화원과의 연계를 제안 받으면서부터 시작하였다. 몇 회에 걸친 워크숍 과정에서 이천의 아카이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물론 기존에도 향토사나 지역연구를 통한 자료들은 있었지만, 이천 구석구석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담아내기 위해선 이천 사람이, 이천의 이야기를 기록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 문화원은 직원이나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되어 기록하고 발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시민 스스로 기록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따라서, 인문학강좌는 시민이 기록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확장되고, 지역에 사람을 남기고자 기획했다. 이런 고민으로부터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가 시작되었다.

인문학 (人文學, 영어: humanities)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표현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로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경험적인 접근을 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며 사변적인 방법을 폭넓게 사용한다.

위키백과에서는 인문학을 위와 같이 설명한다.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학문이며, 변하는 사회 안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와 의미를 찾는 학문이기도 하다. 결국 인문학은 단순한 지식습득이 아니라 삶이라는 긴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내리기까지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한다. 이천의 인문학은 이천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과 마을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찾기 위한 과정이며, 그 과정을 문화원과 시민들이 함께 찾아가길 바랐다.

이천의 인문학은
이천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과 마을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찾기 위한 과정

이천을 담은 인문학

2014년 <인문학으로 이천읽기>라는 주제로 시작 해 <이천을 스토리텔링 하다>,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 <이천의 일상을 기록하다>, <천 개의 마을>, <가을인문학 콘서트> 그리고 <여성인문학>으로 이어왔다.

강의 주제와 커리큘럼은 구술, 기록, 조사 등 시민 참여가 가능한 문화원 사업과 연계하여 기획했다. 배우거나 알게 된 것들을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문화원도 시민들과 협업하는 방법을 실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했다.

2014년부터 3년간은 이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기본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더불어 지역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얼마나 흥미 있는지, 지역의 이야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다

2014

인문학콘서트

인문학으로 이천 읽기

양한 강의를 담으려 했다.

〈인문학으로 이천 읽기〉는 지역 인문학이라는 낯선 과정을 앞에 두고 경계를 넓히고자 했다. ‘인문학과 이천’의 관계에서부터 경계 허물기, 협동의 가치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통해 인문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다음 해 부터는 주제를 정하고 강좌와 실습과정을 병행했다.

2015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다

2015년 〈이천을 스토리텔링 하다〉는 종교, 사람, 문화, 역사 이야기를 이천을 중심으로 담았다. 동학, 유교문화, 풍수와 명당, 천주교와 개신교 등 이천에서 벌어진 다양한 이야기를 알게 했다. ‘이천을 스토리텔링’ 한다는 것은 앞으로 만날 다양한 ‘이천’이라는 주제를 무엇과 연결시킬 것인가? 어떻게 생생한 이야기로 전달할 것인가? 이천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등 다양한 접근과 방식을 고민하게 했다.

2016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

2016년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는 예술, 산업, 과학, 역사 등의 주제를 이천을 중심으로 지금의 우리와 이어지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지역을 화두로 새로운 발상, 새로운 느낌으로 만나는 지역기반의 인문학 강좌로, 결국 ‘이천’에서 시작해 ‘이천’으로 맺을 수 있는 이천만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이천의 인문학 강좌에는 스토리가 있다. 스토리가 있다는 것은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연결’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매해 어떻게 주제를 연

결하여 무엇에 집중 할 것인가?’의 고민이 커리큘럼과 네이밍에 담겨있다. ‘통한다’라는 말은 ‘연결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 길이 통하는 것처럼 ‘서희’라는 주제를 밀레니엄 영토와 연결하고, 역사와 사진예술, 예술과 의과학, 삼국유사와 이천유사 등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장르와 장르를 연결하고, 전통 이야기를 현대적인 언어로 네이밍 한 커리큘럼이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간이 담겨 있어 ‘지금’이 역사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년의 과정 전체 기획도 폭넓은 인문학에 대한 이해, 이천을 이야기 하는 법, 이천이라는 지역의 중요성으로, 조금씩 이천으로 집중하였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간이 담겨 있어
'지금'이 역사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문학과 시민기록자의 연결

앞선 3년의 과정과 이를 통한 활동기록은 시민들이 지역을 읽고, 지역사람과 만나고, 이야기를 구성하고, 기록하는 것의 필요를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2017년과 2018년은 ‘사람’과 ‘마을’에 집중했다.

3년의 시간동안 ‘이천시민기록자’라는 지역문화전문인력들이 생겨나기 위한 충분한 토양을 만들어 왔고, 시민들이 지역에서 무언가를 찾고 기록해야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애초에 인문학 과정이 이천 아트 도슨트, 문화유산 교육교사, 아카이브 전문가, 마을기록전문가 등 시민기록자 양성을 염두에 둔 기획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해 시민기록자과정과 이야기꾼양성과정에 맞추어 기획 했다.

2017

이천의 일상을 기록하다

2017 인문학 강좌 <이천의 일상을 기록하다>는 시민기록자 양성을 위한 강의와 탐방프로그램으로, 2018년 <천 개의 마을>은 기록을 위한 실행과정을 중심으로 했다. 소소한 일상의 천 개의 기억, 그리고 마을의 작은 이야기가 모여 천 개의 마을이야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사람의 기록,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의 기록을 준비하는 강좌였다.

2018

천 개의 마을

‘일상’과 ‘기록’ 그리고 ‘기억’이라는 주제어는 서로 연결하고 분리되면서 ‘삶을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했다. 삶과 일상, 일상의 기록, 우리 삶의 장면들 등 일상과 기억, 기록에 대한 강의와, 기록의 매체로 사진, 구술사, 텍스트와 예술로 기록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아카이브의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과정을 기획했다. ‘일상’이나 ‘기억’은 공동체 기록이건 개인의 기록이건 개인의 삶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도 힘들고,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해와 실행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록하기를 위한 실행 과정으로는 나무와 사람살이, 마을자치, 공동체 기반의 예술, 마을을 재발견하기, 그리고 마을기록의 사례 등 실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시민기록자 1년차에는 ‘시지편찬’ 작업과 이천의 문화지 ‘설봉문화’ 일부에 참여하거나, 전문가들의 마을기록에 참여해 실습과정을 거쳤지만, 2018년부터는 시민기록자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진행해 보는 첫 해였기 때문에 인문학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시민기록자 과정은 2년차이지만 5년간의 인문학 과정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다양성’을 담은 인문학, ‘다양성’을 고민하는 기록

앞선 2년의 과정이 사람과 마을로 들어가는 실행과정 중심이라면, 3-4년차는 주제에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과정이었다. 주변을 더 둘러보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보고,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3년차인 2019년에는 <가을인문학> 강좌를 통해 ‘다양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와 인식, 왕건이라는 인물을 놓고 보는 안동과 이천의 지역정신, 제주 목사 송정규의 해외문건록을 통한 제주문화의 이해에 이르기까지 이천 사람과 다른 지역과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이 불법 반출한 문화재인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은 이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폭넓은 시민운동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4년차인 2020년에는 <21세기, 여성이 이끄는 문화의 시대>라는 주제로 ‘젠더’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보려 했다. 여성 인문학은 이천문화원이 기획한 시민인문학의 최종 지향점이기도 하다. 인문학을 보편적인 인간탐구로서 볼 때, 지역 내 여성의 노동과 손길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와 같이 보조자의 역할로만

2019●

가을 인문학

2020●

여성 인문학

남아 있다. 젠더적인 차원에서 여성을 바라보기 위한 시도가 필요했고, 기록의 차원에서 가려져 있는 여성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다. 방대한 주제이긴 하지만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고민하기에 충분한 주제이다. 생명의 수호자로서 여성, 공동체의 시작으로서 여성, 태어나고 살아감의 시작으로서 여성, 그리고 나혜석과 김만덕 등 선구적인 인물을 통해서 보는 여성의 자기인식을 인문학에서 마주보고자 했다.

이천의 인문학 강좌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과 문화원의 관계 맺기를 시작했고, 실습과정을 통해 함께하기를 연습했고, 인문학에서 펼쳐진 시민들에 의한 기록 사업으로 <구술사>, <마을지>, <기록화 사업> 그리고 <이천의 이야기꾼> 사업으로 연결하고 확장해가고 있다.

인문학 강좌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일거리의 바탕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늘 열려있는 이천문화원의 든든한 자원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인문학 강좌로 비롯된 시민기록자와 이야기꾼은 그 해 인문학 과정을 마친 후 연결되는 워크숍을 통해 사업 장르별 심화과정을 거친다. 강도 높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차곡차곡 쌓인 인문학의 힘은 그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확장해나가는 힘이 된다.

무엇을 기록하던...

기록의 큰 그림

문화원은 그동안 왜 아카이브를 스스로 하지 못했는가?

수많은 기관에서 해 왔던 아카이브와 문화원 아카이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문화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아카이브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많은 문화원들이 하고 있는 향토사 작업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도시중심이 아닌 로컬중심의 아카이브 작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천이 가진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가진 구술사의 가치는 무엇인가?

구술된 내용을 채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작업이 지역을 활력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수많은 문제의식과 생각을 이어가다가 근·현대에 관한 기억들을 소환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들이 그들 스스로 지역에서의 삶과 기억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만들고, 마을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간

직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그들이 문화원을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지역을 활기 있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포괄적인 인문학적 시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좋은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커리큘럼을 짜고, 함께 배우고 논의하는 워크숍과 심화과정을 거쳤다. 전문가들과 만나면서 이천이 가진 문제의식을 접하게 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기록해야 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나눴다. 시민기록자 과정을 마치면 시민기록자 인증서(Certificate)가 발급된다. 시민기록자들은 문화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함께 가는 파트너다. 비록 정규적인 일자리 형태는 아니지만, 문화원은 지역 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사업과 일거리들을 지속적으로 프로젝트화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요와 욕구, 필요성과 가치가 지역사회에 선택되고, 고정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지역문화생태계가 만들어지기까지 같이 뛰는 마음으로 징검다리를 만들고 넘는 작업들을 해 오고 있었다.

시민기록자 활동 실습하기

시민기록자 1년차 활동은 사진을 잘 찍는 사람, 인터뷰를 잘 하는 사람 등 시민기록자들이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이천 시지 편찬 프로젝트>와 <노거수 프로젝트>로 나뉘어 실습과정을

거치도록 했고, 전문가 중심의 마을지에도 참여했다.

특히 이천 시지 편찬의 대중화를 위한 시민기록자의 결합은 주목할 만한 과정이었다.

문화원 담당자 **제가 시지작업을 할 때는 아직 시민기록자 활동을 할 때는 아닌데, 시지 작업 담당자로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민속학을 하는 입장이고, 그동안 시지를 해 왔기 때문에 전문가, 학자들이 쓰는 게 익숙하고 당연한 상황 이었거든요. ‘시지’라는 게 딱딱하고, 가장 공신력 있는 책인데, 일정 부분을 시민인 전혀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맡아 쓰신다는 것에 대해 충격이었죠.**

인터뷰에서 밝혔듯 시지의 일부를 시민기록자의 조사와 인터뷰와 같이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록물을 게재한다는 것은 도전이었다. 지식리 마을지나 ‘설봉문화’의 한 부분으로 기록한 ‘노거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기존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던 기록의 한 부분을 시민이 맡아서 집필하거나 진행하는 것은, 큰 도전이자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 도전은 시민기록자가 지역에서 어떤 위치 인지를 경험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활동에 대해 비전을 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구술사|

구술로 풀어낸 이천 사람들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좌로 경계를 넓혔던 2015년 인문학은

2015

이천사람실록01



지역에 사람을 남기고자 기획되었다.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했다. 인문학 강좌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문학 동아리 '문화원 정대'가 구술채록 작업을 진행했다. 어르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천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담기 위한 구술채록집 「이천사람 실록」은 인터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께 '소풍'이라는 주제로 다가선 첫 활동이다.

2018

이천사람실록02
이천아니면가당키나하나

시민기록자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2018년부터 매해 「이천 아
니면 가당키나 하나」, 「창천동에서 90년을 살았지」, 「이천의 여성
을 말하다」를 기록·발간하고 있다. 첫 해 근·현대의 기록이라는
맥락에서 시작한 구술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이천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지금의 이천을 이루는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14명
의 사람들을 선정해 구술지 이천사람실록2 「이천 아니면 가당키
나 하나」를 발간했다. 이 해 구술사는 이천의 근·현대사에 있어

2019

이천사람실록03
창천동에서90년을살았지

상징적인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다면, 2019년에는
조금 더 마을단위로 시선을 옮겨 개인의 이야기를 주제로 담은 구
술지 만들었다. 이천의 사람들이라는 방대한 주제는 특별한 개인
의 이야기들을 '이천사'라는 넓은 개념의 아카이브자료로 묶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간된 구술지 이천사람실록3 「창천
동에서 90년을 살았지」는 지금은 사라진 창천동의 옛 모습을 사
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기록이다.

2020

이천사람실록04
이천의여성을말하다

2020년 이천사람실록4는 '여성'이라는 주제를 갖는다. 인문학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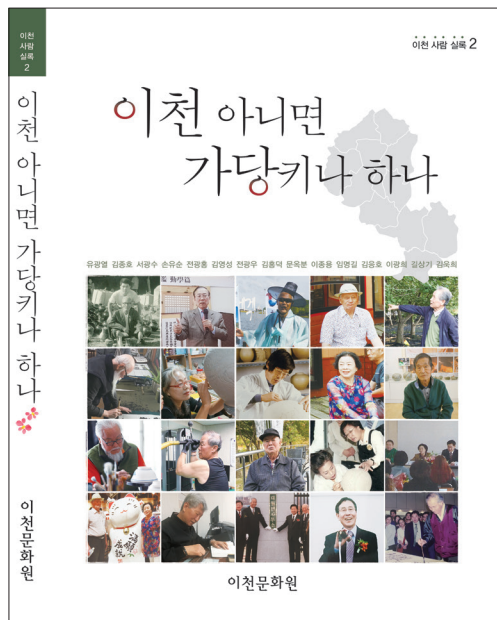
정에서도 밝혔듯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의 삶은 시작과 성장, 품어 펼침, 풍요 등의 상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마을살이에 서 여성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가려져 있거나 보조자의 역할로 폄하되어왔다. 농부이자 이장 아내로서의 삶, 소방관, 귀화한 일본인, 초등학교 앞 문구점 아줌마 등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지역을 이루고 있는 여성들을 조명했다. 시민기록자가 “여성의 구술사기록은 개인사를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듯, 지역에서 여성의 역량을 드러내고, 삶의 여정을 의미화 하는 과정은 중요한 일이다.

구술사 기록 3년 과정의 주제 흐름은 넓은 범위의 ‘사람’에서 좁고 깊은 범위의 ‘사람’으로 변화해 왔다. ‘사람’에서 ‘개인’을, ‘직업군’에서 ‘삶의 도구로서의 노동’을, ‘과거’가 아닌 ‘과거로부터 지금’을 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록물로 무엇이 남느냐 보다 ‘시민이, 시민기록자가, 마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가 아닐까 싶다. 그것이 역량으로, 자부심으로, 소중함으로, 행복으로, 삶의 긍정으로, 에너지로, 애뜻함으로, 인정으로, 삶의 태도로서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천 아니면 가당키나 하나

「이천 아니면 가당키나 하나」는 14명의 이천 시민의 생애사이다.



60대 후반에서 80대까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천 지역의 변화와 같이 한 세대이다. 이 소소한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 한 세대의 파란만장한 삶뿐 아니라 지역의 변화와 발전 과정, 삶의 풍속, 변영과 쇠퇴 등 지금의 이천을 이루는 과정들이 생생하다.

이천을 이룬 사람들이 중심인 이 책에는 이천 하면 빠질 수 없는 도예가들의 이야기를 비롯해, 아직도 서당을 운영하고 있는 유학자, 이천 쌀막걸리를 60년간 만들고 있는 로컬푸드의 장인, 이천의 길목을 연 장본인인 터미널을 개장한 사람, 그리고 연탄가게와 솜틀집, 공무원이 된 발가운데 집 막내아들까지 30년 이상 거주 하면서 이천을 이루고 이천답게 만드는 소소하지만 거인 같은 다양한 사람들을 담았다.

“어떤 사람이든 다양한 ‘서사’를 내면에 담고 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인생의 이야기가 구술 채록의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조차 뜻하지 않게 이야기가 늘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실은 이런 이야

기가 딱히 숨어 있는 것은 아니지 싶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는 언제나 그것과 접촉할 수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¹⁾

늘 우리 눈앞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이천 사람들의 이야기 중 여성 도예인을 기록을 잠시 소개한다.

1)『단편적인 것의 사회학』(기시 마사히코, 김경원 옮김, 이마,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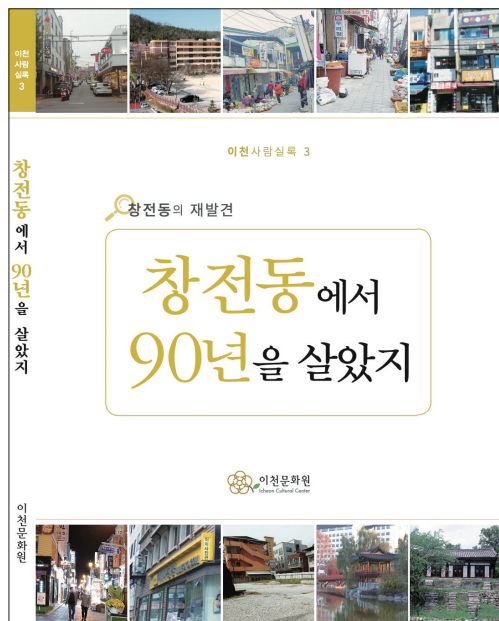
이천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여성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요장을 직접 운영하며 스스로 자신의 도자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여성이다. 두 번째는 남편과 함께 도자기를 만들지만 자신의 존재는 드러내지 않고 남편이 빛나도록 묵묵히 돕는 여성들이고, 세 번째는 도자기 회사 혹은 공방이나 매장에서 도자기 작업을 하는 여성들이다.

부드러운 흙이 단단한 도자기가 되고 그것이 상품화 되어 판매될 때까지 거쳐야 할 여러 공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상당하다. 하지만 여성 도예인을 향한 조명은 아직까지 미약해 보이고 그들의 탄탄하고 착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록조차 많이 남아있지 않다. 여성 도예인의 삶의 기록은 특정한 개인사를 뛰어 넘는다. (...) 가마에 불을 때는 날이면, 여자들은 부정 탄다며 가마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다. (...) 고등학교 입학금이 18,000원이던 시절에 한달 급여가 3,000원이었으니 낮은 보수였다. (...) 기술자들은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그녀를 비웃었다. 그녀가 조각칼을 만지는 것도 싫어했다. 특히 여자에게는 절대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기술자들의 어깨 너머로 기술을 배우기 시작
했다. (『이천 아니면 가당키나 하나』, 2018)

그림 그리기 대신 뜨개질을 하고, 남자형제들에게 양보한 진학 대신 서울로 돈벌러 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여성들에게 흔한 이야기다. 하지만 시민기록자는 ‘이천의 여성 도예인’으로서 개인의 삶을 조명하고, 그 시절 작업장의 문화를 드러낸다. 또한 그녀의 삶의 기록을 특정한 개인사를 뛰어 넘어 바라보고 있었다.

창전동에서 90년을 살았지



“1980년대 이천에서 가장 먼저 도시화가 이루어졌던 창전동은 이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에만 남게 될 것이기에, 늦기 전에 창전동의 옛길, 창전동에 있었던 건물, 상점 등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창전동에서 90년을 살았지』 발간사, 2019)

창전동이라는 도시는 이천에서 가장 먼저 도심공동화가 일어난 곳이자 가장 낙후한 지역이다. 관공서들이 처음 생

겨난 곳이며, 병원, 이천역 등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이천 최초로 백화점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주변 지역으로 상권이 확장되면서 점점 낙후된 모습을 보인다. 그 때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에만 남게 될 창전동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창전동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이 생각은 시민기록자들로 하여금 옛날 만화방을, 가장 오래 된 슈퍼마켓을, 3대가 운영하는 사진관을, 시민의 손으로 만든 학교를, 그리고 90년을 창전동에서 살아온 어르신을 만나게 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산업화를 이루던 시대의 이천을 만날 수 있었고, 구술사는 마을지의 역할로 확장하게 되었다.

야쿠르트 배달만 36년

이 중 36년간 창전동 곳곳을 누비며 야쿠르트를 판매했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잠깐 만나보려한다.

“야쿠르트를 그만두고서 몇 년간은 꿈에서도 여전히 웃으면서 신나게 야쿠르트를 배달하더라니까.”

한국야쿠르트 이천점에 근무한 노보현 할머니는 40년간 이천에 살면서 72세까지 근무했다. 3-4명이 근무했던 초창기에서 근무 인원이 늘어나면서 옮겨진 사무실의 위치들, 노란색 회사 옷에 하얀 운동화를 신고 골목골목을 누비고, 거리 한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36년간 보아 왔으니 어떤 건물이 언제 생기고, 무너지고, 들고 난 자리를 이보다 더 잘 알 수는 없다.

창전동 중앙통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 6월에 공사를 마쳤어. (...) 공사하기 전에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살겠다’던 진흙길이 중앙통 길이었어. 비가 조금만 와도 흙길에 종아리까지 푹푹 빠졌거든. (...) 지금은 많이 낡았지만 허름한 건물을 새로 단장하니 장사도 잘 되었지. 타 지역에서도 문화의 거리에 관광버스까지 대절해서 오곤 했어. 설봉산 구경을 하고 나서 복개천에 버스를 세우고, 우르르 중앙통 문화의 거리까지 구경을 왔지. (...) 지금 기억에 인상적이었던 중앙통 건물은 만경슈퍼인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땅도 제일 많았고, 건물도 컸어. 지금의 칸타타 노래방까지 그 집 건물로 기억해. 대동주유소도(현 씨네 호텔 자리) 야쿠르트 제품을 많이 소비해줘서 지금도 모습이 생생하지. 실버 사거리 가기 전에 있었던 대동주유소 자리에 혜성빌딩이 세워졌어. 그곳 4층과 5층에는 씨네 세븐이라는 영화관도 있어서 유명했지. 지금은 영화관이 없어졌지만, 대동주유소는 원래 부자였어. 양정빌딩 짓기 전에는 원래 아담한 집이었어.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고, 경치가 좋았지. 주인은 대동주유소 큰딸로 기억하고, 양정빌딩은 8층 건물로 삼성생명 사무실이 그곳에서 오래 있었는데 빌딩 주인은 누구인지 모르겠네. (「창전동에서 90년을 살았지」, 2019)

IMF로 100년이 넘는 조흥은행이 무너지고, 야쿠르트를 팔아주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 매출이 줄어드는 것 보다 가까

이 지내던 사람들이 흩어져 가슴이 아팠다고 전한다. 이후 병원이 많이 생겨나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일자리가 늘어난 이야기, 그 많던 병원이 지금은 소아과 찾기 힘들만큼 아이들이 줄었다는 이야기 등 창전동의 36년이 어제 이야기처럼 생생히 기록되었다. 번성했던 그 때가 그리울 법도 한데 이 한마디로 그녀가 삶을 대하는 방식을 전해준다.

“없어진 것이 있으면 새로 생겨나는 것도 있지”

셋별 슈퍼 가주세요~

이천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셋별 슈퍼 가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목적지에 대해 더이상 묻지 않고 창전동 424-34번지로 향한다. 그런데 막상 목적지에 도착해보면 슈퍼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셋별 갈비’라는 음식점이 있다, 다만 ‘셋별’과 ‘갈비’ 사이에 쓰여 있는 ‘SUPER(슈퍼)’라는 단어 덕분에 이 곳이 예전 ‘셋별 슈퍼’ 자리였음을 짐작케 한다. (...) 부모세대에게 익히 들어서인지 ‘셋별 슈퍼’라는 이름과 위치는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 주변에 건물이 하나둘 늘어날 때, 설계를 맡은 이들은 너무나없이 셋별 슈퍼를 중심으로 설계도를 그리고 설명을 했다. 셋별 슈퍼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향교, 왼쪽으로 가면 주유소, 아래로 가면 실버 사거리 등등 모든 설계의 중심점이 되었다. (『창전동에서 90년을 살았지』, 2019)



초상을 입은 집이 생기면 화투가 또 많이 나가요. 한 통에 도매가 250원에 들어오는데, 이걸 1,000원에 팔아도 묻지도 않고 사갔어요. (...) 아무튼, 화투가 나가는 날은 ‘누구네 집인지는 몰라도 어느 집에 초상이 났구나.’ 정도는 알 수 있었죠. (셋별 슈퍼 이성재씨)

요즘처럼 집에 우산이 많던 시절이 아니었으니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을사람 대부분이 셋별슈퍼의 우산을 사 들고 나가고, 주택이 늘어나면 세제와 화장지를 준비한다. 방과후 아이들의 간식도, 퇴근 후 거나하게 취한 사람들의 귀갓길까지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셋별슈퍼는 마을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맺는 시간동안 빛나주었던 것이다.

셋별 슈퍼를 시민기록자는 이렇게 기록한다.

“창전동 424-34번지, ‘셋별 슈퍼’의 유리창 너머로 창전동 주민들의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어떻게 보면 ‘셋별 슈퍼’는 동네 대소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프리즘이었다.”(시민기록자)

『장소경험과 로컬정체성』(소명출판, 2013)에서는 “인간의 장소경험은 개별성을 띠는 동시에 공통성을 띤다. 특정 장소가 개인에 따라

다르게 경험될 수도 있지만 공통적 경험이 형성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장소에서의 공통적 경험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깊은 유대를 느끼는 로컬의 생성 기반이 된다.”고 했다. 한 장소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이해와 겪음의 과정을 거쳐 내밀한 결들의 차이를 내포한 유사성을 띠고 있는 창전동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이 하나이면 서 동시에 전하는 이의 수만큼 다양하다.

|마을지|

어떤 마을지를 만들 것인가?

2017년 시민기록자 활동을 시작하면서 경기학연구센터와 이천문화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던 지식리 마을지 작업에 결합하여 기록 과정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센터에서도 흔쾌히 좋다고 해 시작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각자 편한 시간에 들어와 짧은 시간에 조사하고 혼자 집필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라 시민기록자들이 따라다니는 게 편할 리 없다. 스케줄도 맞춰야 하고 과정이나 방법을 알려주기도 해야 하니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시민기록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을 내어준 만큼 무언가 도움이 되려고 했지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걱정 반 눈치 반, 그렇게 서로에게 시간을 들여야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시민기록자 스스로 해야 하니 연습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열심히 발품을 팔았다.

이천문화원은 문화원이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하고 잘 할 수 있는

2017

지식리
관동고을 산신마을

영역은 근·현대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한다.

문화원 사무국장 마을이 모여 이천시가 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마을지를 만드는 작업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길들여지는 것이 아닌 자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길은 주민들이 마을을 성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려면 주민을 주체로 세우는 마을지 형태로 가야해요.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마을지가 아니라 주민들이 마을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고, 스스로 마을의 의미를 찾게 되고, 마을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마을지를 생각했어요.

2018

마장면
양각산 선비마을

2018년부터 마을지는 소수 전문가 집단에 의해 기록되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천에 살고 있는 시민기록자들이 스스로 기록했다. 기존 기관주도의 마을지는 지명, 마을의 역사, 행정, 교통, 경제, 민속 등 읍·면·동 중심의 보고서 형태를 띠다면, 시민기록자의 손에서 탄생한 마을지는 좀 더 소소하고 재미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마을을 선정할 때는 자발성과 적극성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 기획자 측에서 무조건 정하고 마을을 들어가는건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마을기록에 관심 있는 마을이 서너군데 있었고 덕분에 자발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마을기록은 인생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을기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표준대로 묵묵히 기록하기 보다는, 자기의 경험, 살아온 시간 등을 기록 작업에 풀어놓아야 합니다. 그 시간

에 기록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²⁾

2)『누구나 마을
아카이브』(이영남 외,
더 페이퍼, 2018)

그래서 이천의 마을지는 마을기록에 관심 있는 시민기록자들이 모여 내가 잘 할 수 있는 기술, 재능, 취미를 활용하여 마을을 기록하기로 했다. 자기의 경험, 살아온 시간을 녹인 누군가의 손으로 그린 마을지도, 누군가의 사진으로 담아낸 포토 에세이,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시간을 담은 추억의 사진, 마을을 지키는 나무들의 기록, 마을의 행사를 중심으로 한 마을 달력, 또 지금은 사라진 마을들을 담았고, 학교를 담았고, 기억 속에만 있던 옛날이야기를 남겼다.

왜? 이런 기록을 남기려 했을까? 여러 번 찬찬히 기록을 들여다 보았다.

마을은 사람이 살았거나 살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 마을의 이야기는 곧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다. 주민들이 기록 하려는 마을지의 방향은 곧 ‘마을이라는 공간에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마을살이의 기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기록 하려는
마을지의 방향은 곧
‘마을이라는 공간에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마을살이의 기록’

우리만 만들 수 있는 마을지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위성지도도 거리 뷰도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도로명 주소나 번지수도 금세 확인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곳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곳인지, 어떤 곳이었는데는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을지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위성지도도 거리 뷰도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도로명 주소나 번지수도 금세 확인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곳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곳인지, 어떤 곳이었는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관리 지도입니다.



192

2019●

백사면
왕골자릿골



백사면 조읍리 왕골자릿골 마을지도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다. 자릿골이라는 이름처럼 왕골 논이 자리 잡고 있고, 이천에서만 자란다는 게걸무 밭도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은 조읍리 주민들의 집과 사는 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을은 신씨와 정씨 집성촌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뿐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마을에 살고 있는가? 이 마을에서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가?’를 읽을 수 있는 마을지도라는 것이다. 우리만 만들 수 있는 지도, 우리만 할 수 있는 마을기록이다.

부르크하르트는 『역사의 단상』³⁾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어 현재의 상태에서 과거역사의 실마리를 잡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역사의 출발을 현재로 보고 있다. 현재가 과거와 실타래처럼 엮여 지금의 삶이 과거 일상으로부터의 연속, 즉 ‘삶의 연속성’으로 바라보았다. 앙리 르페브르의 도처에 위치하지만 아무 곳에도 없는 것이라는 ‘일상의 역사성’도 같은 맥락이다. 하나의 지도 안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는 것은 지금이 어느 한순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였던 과거와 과거가 될 지금이 실타래처럼 엮여 삶을 연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무엇보다 그 안에 ‘지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잘 기록하는 것 역시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는 지금 역사의 기록이라 할 수 있겠다.

3) 『부르크하르트』
(최정철, 한길사,
2010)에서 인용

‘지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잘 기록하는
것 역시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는 지금
역사의 기록이라 할 수
있겠다.

미쓰리에서 왕 할머니까지, 삶이 담긴 마을

“미쓰리 하다가 새댁, 아줌마, 엄마, 할머니. 이제는 왕할머니가 되어버렸다며, 나도 젊었던 시절이 있었다 싶다.”

선비마을 이옥순 할머니의 한마디다.

선비마을과 자릿골, 두 마을지에는 이야기를 품은 동네사람들 소개가 실려 있다.

길지 않더라도 한 집, 한 집 모두 찾아가 인터뷰를 넣었다. 쉬운

관리 양각산 선비마을 주민 인터뷰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 마을사람들

46 · 47

양각산 선비마을



원유정, 한옥순

원유정 할아버지는 관리가 고향이고, 한옥순 할머니는 신둔 고장말이 고향이다. 스물두 살에 시집와 아들 둘, 딸 둘을 낳아 길렀다. 여기는 바스가 안 들어와서 시에서 보내주는 형택택시를 주로 이용한다. 형택택시를 이용해 이천 시내를 면하게 다닐 수 있어 좋다고 하신다. 두 분이서 따뜻한 햇살이 도토리밭을 들로 뜰질라 밭대기를 제거하고 계셨다. 도토리밭을 들로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힘든 내색이 없으시다.



윤일숙, 안선

신랑이 많이 어려서 고향이기도 하고 친정도 가까운 이곳으로 왔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이사 온 지는 3년 되었다. 아이들은 딸 셋을 두고 있다. 요즘은 가을경이로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다. 신랑은 마을회관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가고 매일 부른 자연을 접하면서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길가에 꽃을 심기도 하고 곳곳을 예쁘고 보기 좋게 꾸미려고 애쓰고 있다.



윤승현, 김순애, 이용은, 윤주혁

윤승현 할아버지는 여기 관리가 고향이다. 김순애 할머니는 감성리에서 스물세 살에 시집왔다. 나일 배 운다고 해서 콩을 말려야 해서 빨리 거둬들이는 것이라고 하신다. 향남이 오셔서 도와주면 아들이 쉬는 날이라 같이 하고 있다.



노래교실 장사정선교

오늘은 마늘 심는다고 마을이 분주하다. 노래교실 선생님이 왔는데도 노래는 무슨 아귀수임하지도 아예 마늘 심으라고, 책을 위로 오게 심으면 된다고. 장성교 강지도 책을 꼭꼭 눌러 줘도 심는다. 요즘은 가을간이들 흐느라 노래교실에 많이 들 못 오신다. 강장이 끝나야 땅을 운다고 하신다. 동네 어머님들은 노래할 땐 기분이 좋게 하신다고. 몸이 이따 속다가도, 몸을 삼백씩 흔들흔들 움직이면서 쉽게 막 부를 수 있어서 노래교실 시간이 즐겁고 하신다.



유명옥

서울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곳 관리에 집을 사서 농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아들만 셋을 두고 있다.



민경호, 이옥순

“미쓰 리”하다가 새댁, 아줌마, 엄마, 할머니. 이제는 왕 할머니가 되었다며, 나도 젊었던 시절이 있었나 싶다며 이옥순 할머니가 웃으신다. “아들이 시집다리가 광해서 집-나가 돌아오지도 않아. 나는 일 만장 받고 할만자로 반으로 여기 관리 부근 풀으로 이사 들어왔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아들 셋까지로 많이 얻었어. 이 책보고 이틀만(지음) 소식 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영마가 나만 기다리고 살고 있다고, 돌아오기만 해준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셨다.



왕성식(노인회장)

관리가 고향이며, 1남 2녀를 두고 있다. 아들은 결혼해 경기도 광주에서 살고 있다. 조광에 관한 일을 하고 있고, 약 1,000여 평에다 집에 막을 농작물을 짓고 있다. 집 앞에 커다란 태극기를 날아놓았는데 “나라가 있어야 삶이 있고, 삶이 있어야 내가 있지”라며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심에 담아 놓았다고 하신다. 군부대가 돌아와 마을이 사라지고, 이를 적 친구들이 타지로 떠나간 것이 마음이 간 속다고 하신다.



김경현, 이은주, 김지호, 김지호

부담님은 모두 안개지고 결혼해서 관리계 살고 있다. 양각산 자락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뚜렷하게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이들이 어려서 박게서 뛰어 놀게 하고 심은데 수번에 놀아터도 없고, 뽕나무 높 공간이 많이 아깝다. 이은주 씨는 아들 중근동에 어른들을 위한 공간으로 정지도 만들고 놓고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았는데 어린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설치하면 좋겠다고 한다.

일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마을 구성원 모두를 잊지 않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했다. 사람이 있어야 마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관2리 심문기·안동순 할아버지는 관리가 고향이고, 할머니는 스물두살에 금산에서 시집왔다. (...) 예전엔 이천 장, 용인 장으로 소나 돼지를 팔거나 사러 다녔다. 한 번은 산 넘어 신둔면으로 해서 이천 장으로 돼지새끼를 팔러 갔는데, 기껏 동네사람이 두 마리를 사게 되어 다시 마을로 힘들게 안고 왔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관2리 이주철 관리가 고향이고 14대째 살고 있다. 예전에는 장남이라 벼농사를 30마지기 정도 지었었다고 하신다. 그리고 살면서 화폐개혁이 두 번 있었는데 1953년에 100:1로 1962년에는 10:1로 있었다며 옛 시절을 떠올리셨다.

관3리 한상경 그때는 요기 아래 보이는 하천이 개울이었지. 그곳이 빨래터였어. (...) 이 계절 가을에는 들국화를 너무 좋아해 들국화만 보면 절로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고 시라도 쓰고 싶다면서 수줍어 하셨다.

관3리 노래교실 강사 정선교 오늘은 마늘 심는다고 마을이 분주하다. 노래교실 선생님이 왔는데도 노래는 무슨 야외수업하자고 어여 마늘 심으라고, 짝을 위로 오게 심으면 된다고….

1. 조읍리 동네 사람들

112 • 113



변옥자(80) 임도재(81)

60년을 해로한 부부에게 조읍리는 인정 많고 나쁜 사람이 없는 곳이다. 스무 살에 시집온 변옥자 씨는 신씨네고 임씨네고 서로 남이라 생각 인하여 사는 후한 인심을 마을의 자랑으로 꼽는다.

김택선(74)

조읍리로 이사 온 지 12년 된 김택선 씨는 꽃을 좋아해서 꽃 전도사처럼 화단을 가꾸며 산다. 벚꽃이 피면 동네도 문을 여는 것 같더라. 나루지 바라지 않는 삶을 추구한다. 그치에서 조읍리는 진심을 나누니 불편 없이 편안한 곳이다.

이철규(90)

서울에서 살던 이철규 씨는 6.25전쟁 당시 오라버니가 계신 외사촌으로 피난을 왔다가 군인 긴 신랑한테 시집을 줬다. 그때부터 70여 년을 살아도 변함없이 참 좋은 마을이 조읍리다.

신봉철(50) 장홍(53)

신봉철 씨는 이곳이 고동이고 아내는 심양에서 이곳으로 시집왔다. 두 사람이 행복하니 마음도 행복한 곳이라는 게 부부의 지론이다. 이들에게 조읍리는 전통을 지키려 애쓰며 이웃과 더불어 숨 쉬는 마을이다.

조읍리 왕골자릿골 주민 인터뷰

조읍1리 신제철(58),전춘옥(57)
보시다시피 아담하고, 집성촌이다
보니 다 친인척이라 정이 많고, 사
고가 없어 자부심이 느껴진다. 여
기서 태어나고 분가를 못해봤다.

조읍2리 정광영(83) 내가 사는 내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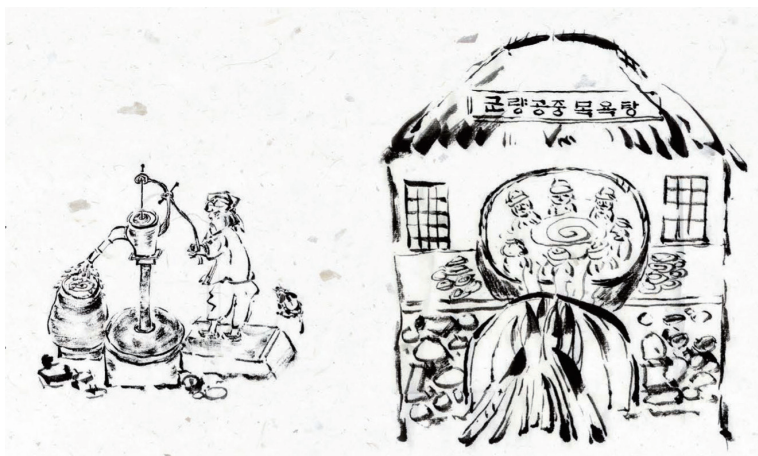
이천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사
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옛날에는
마을을 지나 돼지를 팔러 다녔다
는 이야기, 14대째 이곳에서 살고
계신 할아버지께 화폐개혁의 이야
기도 들을 수 있었다. 집성촌에 시
집와서 한 번도 분가를 못해본 중
년부부의 이야기와, 도시에서는 상
상할 수 없는 마늘밭 노래수업 이
야기까지, 이곳이 내가 사는 내 마

을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 할 수 있는 마을이야기인 것이다. "뭘 별
거 아닌 이야기를 궁금해 해? 내가 뭐라고~"라고 말하지만,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
을 느낄 수 있다고 시민기록자들은 말한다. 한 발 다가서니 곁을
내어주신다.

마을의 변천사

“마을에 큰 솔이 걸렸다.”

“어느날 마을에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헛간과 비슷한 모습의 작은 흙집이 세워지고 큰 가마솔이 걸렸다. 관리마을에 처음으로 공중목욕탕이 탄생한 순간이었다.”(서민기록자) 큰 주물 가마솔을 걸어 나무로 물을 끓여 사용했던 선비마을의 첫 공중목욕탕이다. 펌프로 물을 받거나 개울물을 퍼 날라야 했고, 무쇠솔이 뜨거워 나무 판을 깔고 들어가야 했던 그 때의 기억은 사진으로도 남겨진 것이 없어 주민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 기록했다.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공중목욕탕이 생겼던 1970년대의 이야기다.



무언가 생기면 무언가 사라지기도 한다.

군부대의 이전으로 사라진 마을 이야기,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

투쟁 했던 시간을 기록으로 남겼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끝내 관4리와 회억리 주민들은 그간 살아온 집과 땅을 잃었고, 그들이 살던 곳은 지도에서 사라졌다. 그 치열했던 4개월의 시간이 마을지 안에 기록되었다.

양각산 선비마을이 기존 마을지의 틀을 벗어나 사람에 좀 더 집중했다면, 왕골 자릿골은 인문지리적 환경과 마을의 형성과정, 마을 지명 유래와 옛지도 등 기존의 마을지가 가진 기능까지 담아 보려 했다. 세거성씨인 온양정씨溫陽鄭氏와 평산신씨平山申氏가 살았던 신촌말, 정촌말 이야기와 농축산물 현황 등 역사와 현재를 기록했다. ‘마을 생활과 모임’이라는 주제 안에는 400년 된 마을 집터이야기와 마을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왕골자리매기 과정, 그리고 너무 맛있어서 게걸스럽게 먹었다는 게걸무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한 조읍리 농업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특히 마을 조직과 활동, 마을에 함께 하는 기업을 소개하면서 개인적인 삶의 공간을 넘어 마을단위의 삶을 기록한 시각이 돋보였다.

우리 마을의 일 년 열두 달

두 마을의 생활은 마을달력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선비마을의 ‘마을달력’, 자릿골의 ‘조읍리의 열두달’은 주민들의 한 해 행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마을살이 기록이다. 마을지가 기록된 정해년 마을달력은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의 농사달력과 비슷하지만 마을의 축제, 야유회, 마을정비, 체육

대회, 학교 동문회, 등산로 제초작업, 마을 대청소, 대동회 등 마을의 한 해 살이가 모두 기록되어있다. 또 작물 마다 다른 파종, 수확, 가공 등을 보면 이 마을의 작물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 특히 선비마을의 그림달력은 마을주민들과 시민기록자의 짧은 한마디와 이야기를 담은 정겨운 그림이 마치 그림동화 같다.

마을우체통 · 마을달력

십일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일동	9
10	11 10.15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소설	23
24	25	26	27	28	29	30

십이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대동
8	9	10	11 11.15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마을 대청소 및 마을회관주변						
22	23	24	25 상인일 비하일 31.12.24.25	26	27	28
마을 청산보고 대동회						
29	30	31				

140 • 147

임직원 선배마을

2019 11.12

“오늘은 김장하는 날”
동네 사람들 도란도란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겨울을 준비합니다.
마끈한 수육에 박질려 한잔할 수 있는 작은 동네잔치는 해마다 이어집니다.

— 시민기록자 이은희



이은희 이원 배씨한테 살고 있다. 우연히 배씨를 만났을 때 그날이 인연이 되어 이원 시민기록자가 되었다. 시민기록자 중 그림을 담당하고 있다.

『누구나 마을 아카이브』(더페이퍼, 2018)에서 이경래는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해 마을에 대한 기억을 전승하는 것이며, 주류의 기록 보존소에 남아 있지 않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공

정한 기록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다고 말한다. 특히 풀뿌리 운동으로서 마을기록은 일치된 의견으로 가는 합의 과정이 지속가능한 내적 동력을 확보 해 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마을에서는 계속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고, 꼼지락꼼지락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소통 속에서 진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여 하나의
거주자 운동으로
아카이브 하는 것의
의미는 기록을 위함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함이다.

소통 속에서 진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여 하나의 거주자 운동으로 아카이브 하는 것의 의미는 기록을 위함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함이다.

결이 다른 마을지로 확장

마을지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행정을 중심으로 한 기존 마을지의 형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구술기록의 마을지 형태, 시민기록자들의 조사를 중심으로 한 형태 등 각자 생각하는 마을지의 형식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생소한 마을지의 형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서로 원하는 바가 드러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배운 것, 기획되어진 것, 주어진 것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 다른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의견을 사람들과 나누고, 설득하고,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공동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의 마을기록이 획일화 되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사람 수 만큼 다양한 시선의 기록이 곳곳

에서 생겨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제안들을 받아 2020년도 마을지는 세 곳의 마을에서 세 개의 주체로 진행된다.

아미리 마을은 전적으로 연구자 중심인 마을지다. 과거 30년 전 아미리를 조사했던 연구자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변화를 바탕으로 집필한다. 대대리는 시민기록자가 팀을 이루어 조사, 인터뷰, 자료수집, 집필 등 전 과정을 진행하고, 일부 자료는 마을주민 몇 명이 직접 정리하고 집필에 참여해 만들고 있다. 특히 산내리는 이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주민 자치활동으로 마을을 기록한다. 마을에 살고 있는 시민기록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데, 이 마을은 4년 전부터 마을기록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모여 집필을 하고 있던 마을이다.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 80대 노인들이 직접 글을 써놓기도 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마을그림도 들어간다. 자원이 많은 마을이 아니지만 교회나 마을회관을 만드는 과정 등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는 작업들이 눈에 띄는 마을이다. 시민기록자가 참여하긴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할 수 있도록 시민기록자가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술작업을 통해 마을에 누군가가 찾아오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고, 마을에서 시민기록자들이 활동하게 되면서, 마을지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마을 내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시민기록자가 찾아가지 않아도 마을 스스로 마을지

2020

대대리
산내리
아미리

만들기에 관심을 보인다. 내가 사는 곳을 잘 기록하고 싶은 욕구가 마을마다 번지고 있다.

2017

이천의 노거수

|기록화|

사진으로 기록하는 이천이야기

기록화팀은 사진기록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기록이다. 시민기록자활동 첫 해 「설봉문화」에 노거수를 소개하는 실습과정을 거쳤다. 오래된 나무는 마을과 함께 살아왔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왔다. 이 나무들을 데이터화 하고 거기에 담긴 이야기를 담는 작업이 1차 연도 목표 중 하나다. 이천의 노거수를 식물학적 나무를 넘어 인문학적 의미를 담기로 했다.

2018

노거수이야기

기록을 하다보니 잘못된 정보, 누락된 나무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마을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노거수에 대한 기억을 들춰내고 자료를 확인하면서, 2017년 단행본으로 노거수 도감 「이천의 노거수」를 만들었다. 개별적으로 활동할 때는 자료에 대한 오류수정이나 훼손된 나무의 관리 요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기록자가 되어 도감을 만들게 되니 가능한 부분이 많아졌다. 시민기록자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문학 과정을 거치면서 노거수를 비롯해 이천의 다양한 예술작품, 문화유산이나 의미 있는 공간 등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으로, 주제를 정해 기록할 것을 제안하였다.

3년차에는 이천의 조각 작품 등 설치예술을 사진에 담아 기록했고, 올해는 이천시를 권역으로 나누어 종교, 서당, 역사인물, 역사적 장소를 중심으로 지역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곳이나 한 세대에 정신적 영향을 미쳤던 곳을 사진과 이야기가 담긴 달력을 만들고 있다. 책으로 남기는 것 보다 가깝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력이라는 기록방법을 택했다. 또한, 사진으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찾고, 관련된 사람을 찾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를 모으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알릴 것인가? 이는 시민기록자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찾는 과정이다.

이 외에도 기록화팀은 구술기록과 마을기록 작업을 함께 한다. 시민기록자는 어디든 따로 또 같이 참여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역과 마을과 사람을 만난다.

|시민기록, 그 이후|

기록 소재의 확장

7년의 인문학 과정과 4년의 시민기록자 활동은 문화원 사업의 확장, 시민기록자와 마을사람들의 활동의 확장, 그리고 아카이브 자료의 확장을 만들어 왔다. 이 기록들은 기획과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확장되기도 하지만 기록물 스스로 확장되기도 한다.

2019●

설치예술



2020●

문화유산



2015●

이천이야기백가지 1



“이천을 찾아 온 한 손님이 함께 자리 한 사람들에게 이천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이천에도 이야기는 많이 있다. 그런데 이천에서만 들을 수 있고 이천냄새가 풍기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과연 몇 가지나 알고 있나?”(「이천이야기 백가지」 서문, 2015)

〈이천 이야기꾼 양성〉은 이천을 소재로 하는 고유한 이야기를 시민들이 나누고 이천에 들어서면 어디서나 누구나 구수한 이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문화콘텐츠 발굴을 목적으로 2015년에 시작되었다. 단순히 이야기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꾼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은 2년차 이후로는 쉽지 않았다. 이야기의 구술 자료들은 있었지만 시민들에게 알려주려면 시나리오가 필요했고, 밑 자료들을 동화집으로 만들어야 했다. 시민기록자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았다.

2016●

이천이야기백가지 2



시민기록자들의 구술은 마을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이야기와 원천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보따리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사람,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기억에 남아 있던 이야기들이 시민기록자들의 손을 거쳐 기록 되면서 멈춰있던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어져갔다. 이야기꾼 사업은 인문학 과정의 한 축으로 기획된 것이지만, 시민기록자의 역할이 확장된 콘텐츠 사업이기도 하다.

시민기록자들이 수집하고 정리 한 이천의 이야기를 모아 이야기
꾼 양성과정에서 발굴 된 이야기꾼들과 함께 <가을 인문학 콘서
트>를 열었다. 6년간의 인문학 과정과 이를 중심으로 한 시민기
록자와 시민들의 활동을 한 곳에 모아 낸 자리다.

또, 문화원 입장에서는 기록물로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많이 구
축되었다. 구술을 통해 얻어진 기록물들은 앞으로 기록해야 할
될 새로운 주제를 던져주기도 한다.

2020●

가을 인문학콘서트



문화원 사무국장 이번(2020년)에는 이천의 여성인물을 집중하려고 해요. 구술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스토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의 특정
주제나 사건, 장소들을 볼 수 있게 엮어보자 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한국전쟁을 경험한
사람,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해보면 좋겠어요. 구술사는 사실 팩트도 중요
하지만 더 근저에는 공동체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6.25라고 모두 다 같은 6.25가 아
니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겪어낸 6.25거든요.

그렇다.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낸 수많은 6.25가 존재할 것이다.
개별적으로 겪고 이해의 정도가 다른 경험이지만 마을사람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기억에 대한 기록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기록을 넘어 마을살이로

단지! 기록을 했을 뿐인데, 우리가 만든 기록들은 스스로 영역을
넓혀나갔다. 마을주민들을 만나면서 뜻하지 않은 만남이 이루어

지기도 하고, 고민하던 일들을 함께 풀어갈 사람들을 얻기도 한다.

자릿골은 올해 마을축제에 왕골자리를 이용한 상품들을 내어놓았다. 660년의 전통을 다시 잇기 위해 자리틀을 복원하고 주민들과 자리매는 일을 시작했지만 판로를 개척하거나 홍보를 할 수 없었던 이 마을은 마을지 작업을 시작하면서 자릿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창출을 위해 고민하던 중 만난 젊은 외지인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 상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마을 행사 참여는 물론, 이제는 마을주민이 되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번져갔다.

자릿골은 올해 홉을 키웠다. 남편과 함께 이천으로 이사 온 젊은 사장님은 지역에서 난 쌀로 맥주를 만들고 싶었다. 농부였던 부모님, 그리고 판로를 고민하는 많은 농부들을 보면서 식품공학이라는 전공을 살려 지역농산물로 수제맥주를 만들기로 했다. 긴 시간을 두고 재배하고 연구할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자릿골의 만남이 인연이 되어, 자릿골 마을 사람들과 함께 홉을 재배했다. 맥주 공방은 맥주 공장이 되었고, 자릿골 브루어리가 세상에 나왔다.

자릿골 마을은 마을주민의 전통을 잇는 자리 매기기로, 새로운 농사로, 마을 이름을 건 브루어리로, 그리고 마을 자치로,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 마을을 드러냄으로써 마을에 볼거리가 늘어나고, 마을의 생산품들이 마을 안에서 가공되고 유통되고, 마을 중심으로 살기로 확장되기도 한다. 전적으로 시민기록자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일은 아니지만 사람을

만나고, 의견을 내고, 각자 할 수 있는 것들로 힘을 보태면서 마을에 활기가 돈다. 시민기록자 활동은 기록을 넘어 즐겁고 지혜로운 마을살이를 위한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알게 한다.

시민기록자 활동은
기록을 넘어
즐겁고 지혜로운
마을살이를 위한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알게 한다.

스스로 날아간 독수리 소년단

단지! 기록을 했을 뿐인데, 이천의 이야기들은 스스로 날개를 달고 날아다닌다.

이천에는 독수리소년과 항일벽보사건이라는 이야기로만 남아 있는 독립운동 이야기가 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14명의 소년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다. 고작 10살 정도의 소년들을 끌고 가 고문을 하고, 독립 된지 몇 달 전에 죽은 소년도 있다. 자료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 시민기록자 한정혜씨는 동화책을 만들어 기록했다.

책이 나오면서 광복회에서 알게되고, 뉴스에서도 취재를 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포스터 그리기로 이천에 알리는 작업도 진행됐다. 미국에 있는 시민기록자의 후배가 번역 해서 한인회에 알리고 싶다고 했다. 이 동화책은 아마존을 통해 판매되기도 하고, 이 일로 독수리 소년단이었던 두 명의 노인은 보훈을 받게 되었다.

작년에도 올해도..., 기록은 내가 했지만 책들이 스스로 나가 날개를 달고 날아다녀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뿌듯하고 신기해요. 이것은 무엇의 힘일까요?

나는 이천 시민기록자입니다

이천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사람

‘이천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사람’, 이천문화원에서 소개하는 시민기록자의 역할이다.

시민기록자의 매력은 다양한 연령에 다양한 직업과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 여러 가지 시선으로 마을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자가 잘 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협의하고, 엮어 내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가능성을 보기도 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스스로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졌다는 것도 뿌듯하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다가 생각이 무참히 깨질 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풀리지 않던 것들이 이가 맞물려 채워질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과 마을,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사라진 것들을 보니, 현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전동을 통해서 지금은 사라진 셋별슈퍼를 조사하게 됐어

요. 셋별슈퍼 사장님도 그렇지만 주변 분들도 없어진 곳을 어떻게 다 찾아서 기록했는지 신기해했어요.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없는데, 현재가 없으면 미래에 없다는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민기록자 한정혜)

시민기록자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년퇴직하신 우직한 인상의 남자분이셨는데, 처음에는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시고, 인터뷰도 거절하시고, 경계를 많이 하셨어요. 평생 쌓아온 이미지가 있으셔서 실수하실까 봐 걱정하신 것 같아요. 계속 찾아뵙고, 인터뷰도 하고 보니 나중에는 밥 좀 먹고 가라고 하시고, 지나가다가 만나도 아는척 해주시고 자꾸 챙겨주시는 따뜻한 분이셨더라고요. 이분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사람’을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 분의 따뜻한 마음이 보였어요. (시민기록자 이은희)

사람들은 내 삶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걸 왜찍어? 뭐하러 찍어?’라고 하세요. 막상 책으로 나오면 너무 집중해서 보시는데, 본인 스스로 나도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책이 된다는 것을 신기해하세요.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하시는걸 보면 몽클하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민기록자 김정희)

마을사람들은 우리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도 많이 변했어요. 자릿골 같은 경우는 입간판도 만들어 놓으시고, 왕골도 갖다놓으시고, 마을을 꾸미고 재조명하시더라고요. (시민기록자 이은희)

노거수는 문화재가 아니다보니까 최소한의 관리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 무당들이 잘 찾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상한 사이비 같은 무당이 와서 태극기나 못을 박은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을 분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니 얼마 전에 그 태극기가 없어졌어요. (시민기록자 문초진)

몇 명의 시민기록자들이 마을 깊숙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본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무엇이 보일지 기대된다. 무언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마을 곳곳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장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일상이 되어가는 과정에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울 뿐이다.

문화원의 역할

문화원도, 시민들도 처음인 4년간의 지역기록과정을 통해 이제 서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문화원은 시민기록자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 없는 지역문화 생태계를 고민한

다. 이들이 기록해 온 소중한 자료들이 쓰이고,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해 주는 것. 지역출판, 지역서점, 지역일거리가 활성화 되고, 문화적 욕구가 충만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지역 문화적 ‘일’생태계가 만들어 지는 것이 문화원의 할 일이라고 문화원 사무국장은 말한다.

문화원은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시민기록자들은 그 대접에 걸 맞는 역량을 쌓는다. 처음 이 과정을 시작 했을 때는 인문학이, 시민기록자 활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랐다면, 이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 기록들이, 이 과정들이 서로 만나 지역의 출판, 서점, 일거리의 확장 등으로 영역을 넓힐 것이라는 것이 서서히 보인다.

환대의 의례

약속시간 보다 조금 늦어 혈레벌떡 들어간 8월의 오후. 회의실 책상 위에는 몇 개의 접시에 포도가 나뉘어 놓여있었고, 조금 후에는 시원한 커피가 등장했다. 낮설었다. 시원한 물 한 잔이어도 고마울 이 자리에 과일까지 있으니 황송하기 그지없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알았다. 이 작은 행동들이 매일매일 환대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는 것을 말이다.

인터뷰어

‘시민기록자’라는 네이밍을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있나요?

참여자1

기록자라는 의미가 교과서적인 이미지였어요. 삶의 이야
기가 아니라 역사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혹시 이거 보셨
어요? (시민기록자 신분증을 슬며시 꺼내 보인다)

참여자2

저희는 시민기록자 신분증이라는 게 있는데, 어르신들
만나러 갈 때 이런 거 들고 가면, 아무튼 관공서에서 왔
나보다 하시고는 그냥 들어오라고 하세요. (웃음)

인터뷰어

그게 중요한가요? (웃음) 그럼 시민기록자가 뭐예요? 라
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세요?

참여자1

(이번에는 지갑에서 슬쩍 명함을 꺼내 보여 준다) 시민기
록자가 뭐냐? 명함을 만들어주셨는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바쁘긴 하지만 시민기록자 활동을 하면서 더 부
지런해졌어요. 지역이나 마을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
고, 또 다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참여자3

이천의 시민기록자들은 모두다 하나씩 이 명함을 만들어
주셨어요.

참여자2

신분증은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 주신 거고, 명함은 시민 기록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활동하기 전에 한통씩 다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다보면 저희가 누군지 뭘 하러 왔는지 설명하기 참 힘든데 명함을 드리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참여자4

아쉬운 점은 어르신들이라서 잘 안 보인다고….

참여자3

저희가 문화원 직원인줄 아세요. 다음에는 이름 크게 해 달라고….



인터뷰어

어떤 점 때문에 시민기록자를 계속 하시나요?

참여자4

처음에는 몰랐는데 작년 의병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느낀 게 있어요. 사무국장님의 리더십. 담당자의 관심? (웃음) 글쓰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확실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역할을 담당자가 참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특히 각각의 사람들에게 모두 다르게 관심을 주세요. 사람들의 특성을 알고 다 챙겨주시니까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보니 나도 여기 녹아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인 것 같아요.

참여자2

리더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원은 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해 주세요. 아니 그 이상을 해주시죠. 정보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능한 시간에 맞춰주시고, 여기 왔을 때도 귀한 분들 모시듯 대해주시고, 하는 일에 대해 터치하지 않으세요. 터치하지 않는 것은 방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거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술사 강의도 찾아 듣고, 내 글을 계속 다듬으면서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시민기록자는 ‘나’가 드러나면 안되거든요. 마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면 하기 힘들어요. 나는 이미 나를 내세워준 문화원이나 나를 써준 곳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먼저 내세워야 하죠. 그래서 시민기록자

는 겸손하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1

제가 느끼는 문화원은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열 명이면 열 명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참여자2

편집 작업을 할 때도 윤문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문화원은 그냥 맞춤법과 문맥정도만 정리하도록 하세요. 글 쓴 사람을 배려하고 읽는 사람도 눈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니까... 각자의 개성을 잘 살리려고 해요.

생각해보니 기획자와 진행자 인터뷰는 필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진행했었다. 한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누가 오든, 반기고, 대접하고, 환대하는 습관. 아니 마음 채움이 반복되면서 느끼는 진정성이 받은 대가보다 훨씬 많은 무엇으로 그들을 독려하고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 환대의 표현이다.

『사람, 장소, 환대』(김현경, 문학과 지성사, 2019)에서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이상인 절대적 환대를 빌어 세 가지로 규정했다.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환대, 복

수하지 않는 환대가 그것이다. 공적 공간에서 모든 사람은 의례적으로 평등하며, 모든 인간생명은 출생과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환대받아 살아가고, 그가 사람으로서 사회 속에 현상하고 있음을 몸짓과 말로써 확인해주는 행위를 절대적 환대라고 규정했다. 이 책에 따르면 개인에게 자리/장소를 마련해 주고 그의 영토에 울타리를 둘러 주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이다.

이들에게 시민기록자라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공적 공간에서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며, 그들이 이천지역에 현상하고 있음을 몸짓과 말로써 확인해주고, 응원하며, 울타리를 둘러주는 문화원의 역할이, 이들로 하여 환대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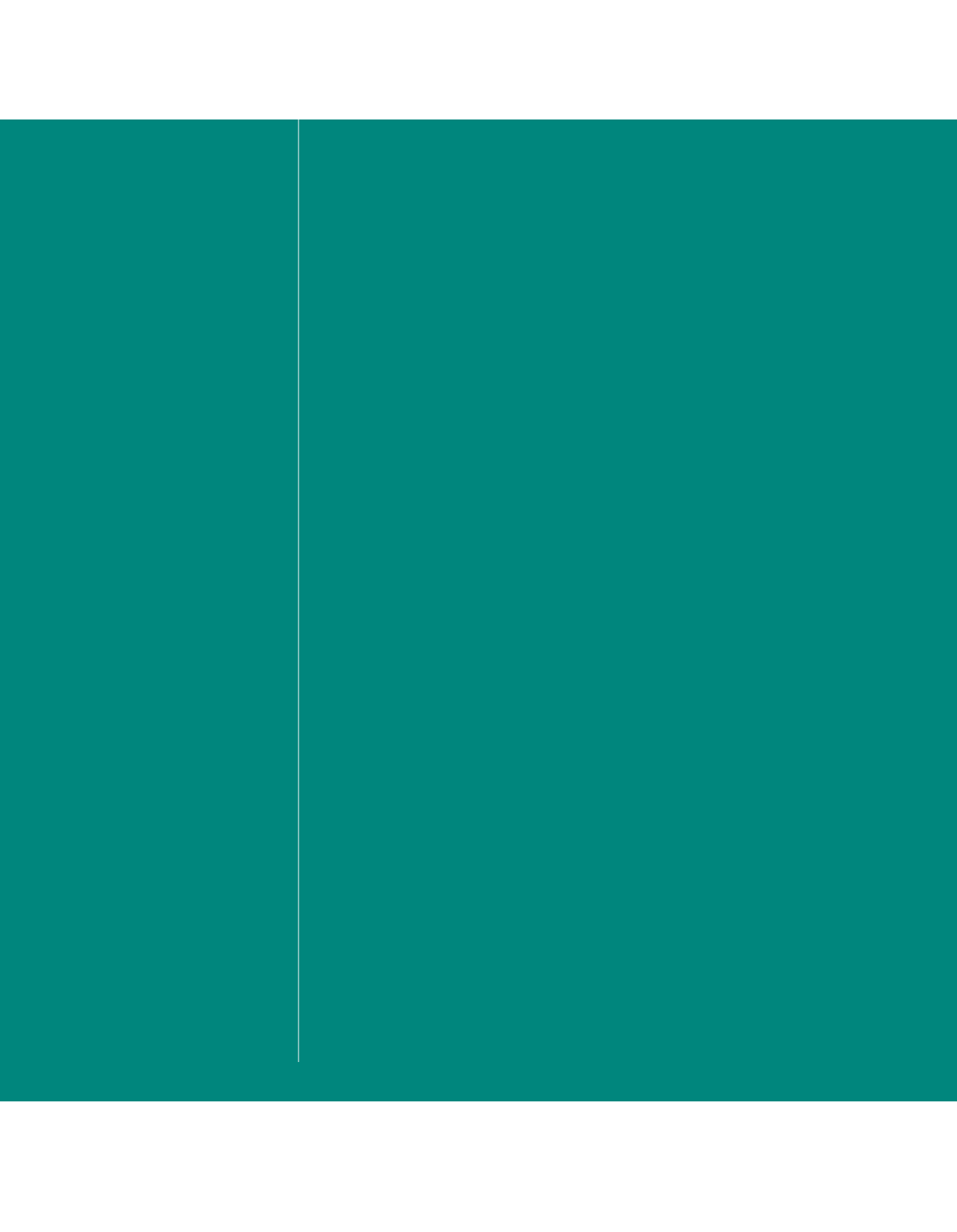




마을의 진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_ 마을큐레이터, 시민기록자의 진화를 위하여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마을기록과 아카이빙을 위하여



마을의 진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_ 마을큐레이터, 시민기록자의 진화를 위하여

고영직 문학평론가

삶은 밀도다

프랑스 시인 조에 부스케는 “삶은 나날들이 아니다. 삶은 밀도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나날들로 구성되는 삶의 밀도를 높이는 일이야말로 어쩌면 삶의 격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스무살 무렵인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독일군이 쏜 총알을 맞고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려는 채찍질과도 같은 말이었으리라. 그렇다. 삶은 한날 나날들로 구성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일상을 비일상으로 만드는 자극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 자극을 문화기획이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술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한날 나날들로 구성되는 삶

은 진짜 삶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삶에는 생존은 있을지언정 생활이 없기 때문이다.

‘삶은 밀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기획들이 과연 참여 공동체를 위한 문화적 기획을 하고, 시민 또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제대로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문화기획자들이 지역에서 문화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 지역을 ‘캔버스’로 보려는 태도는 없었는지도 관건이다. 지역을 캔버스로 보려는 태도와 관점에서는 참여 공동체를 위한 기획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고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빠져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욕망(=

필요)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사람은 없고, 기획자 의도만 작동하는 문화기획이 과연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식의 시대착오적 기획자 마인드는 아직도 여전하다. 정부 문화정책을 비롯해 중간지원조직인 광역·기초문화재단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시대의 예술지원정책이 그러하다. 정부 및 지방정부를 비롯해 광역·기초문화재단의 긴급예술지원은 코로나19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던 대로 of 관성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코로나19 시대 예술지원은 긴급지원을 표방하지만, 여전히 공모-경쟁-선발-사업-평가-정산이라는 과정을 풀코스로 밟아야 한다. 현장 예술인, 프리랜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가 추진한다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사업은 사람 없는 예술지원의 대표적 졸속 사례일 것이다.

대안은 없는가.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의 주민市民 입장에서 사심私心 가득한 기획들을

구상하며, 지역 사람들과 더불어 추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지역문화원과 협력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와 인천·의정부문화원의 〈시민기록자〉 사업의 문제의식 또한 사심 가득한 기획과 활동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는 삶터인 지역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적 기획을 수행하며 사람을 키우고자 한 사업이었던 것이다.

마을큐레이터, 시민기록자는 ‘동네지식인’이다

지역문화원은 자율·분권·협치를 강조하고, ‘사람이 있는 문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힌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험대 앞에 서 있다. 자율·분권·협치는 저절로 형성되고 구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원은 각자의 지역에서 예술가 내지는 주민(시민)들과의 수평水平적인 협력의 경험들을 쌓아가며 각자의

사례를 만들어가며 자기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원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오산·의왕·하남문화원과 서로 손을 잡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천·의정부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주민들과 지역 읽기 사업을 시작한 데에는 지역에서 요구되는 문화원의 역할이 갈수록 사회적 접착제(glue)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 주민들과 협력의 경험을 쌓으며 끈끈한 관계의 발효醱酵 과정을 거치고, 지역문화원들과 단단한 협력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역문화원으로서의 인력 충원을 따로 하지 않고도 내실 있는 사업들을 기획할 수 있는 동시에 활동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동네)을 새롭게 발견하는 눈을 기르고 동네기획자로 탄생한다는 점은 모두를 위한 도시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한 처사이다. 환대하는 마을은 결국 환대하는 마음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리슨투더시티가 서울시 후원으로 발행한 『재난 도시』(비매품, 2019)에 따르면,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적 약자들을 위해서는 무장해 대피소를 마련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웃과 장애인들과의 일상적인 관계가 생명과 직결된다고 강조한다.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가벼운 교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과 마을을 연결하며, 나와 다른 사람들과 생활방식의 전환을 즐겁게 고민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이 필요하다.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리듬과 에너지의 흐름에 ‘의하여’ 사는 유쾌한 작당(作黨) 모임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비전은 코로나19 시대 ‘운명의 지침(指針)’(한용운) 같은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 삶을 조금씩 바꾸려는 삶의 전환이 필요하고, 시민을 존경하며 웃음의 도시로 바꾸려는 행정의 유쾌한 실험 또한 요청된다.

이와 관련해 가장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인생은 단편적인 것이 모여 이루어진다”(기시 마사히코)는 점을 겹쳐히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은 리쓰메이칸대학 사

회학과 교수인 기시 마사히코가 오키나와 소수자들을 인터뷰하며 집필한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위즈덤하우스, 2016)에서 표방하는 기본 문제의식이다. 기시 마사히코는 전통적인 사회학적 방법론과 시선에서 벗어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에서 이야기주권을 구현하는 화해(和議)의 민주주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역에 사는 주민이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럿 있다. 예를 들어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있다. 그러나 이때의 마을큐레이터와 시민기록자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며 우리 눈과 귀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던 동네 사람들을 가시화(可視化)하는 작업이 바로 마을큐레이터와 시민기록자가 하는 마을기록 작업일 것이다. 이밖

에도 사람, 장소, 활동 차원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 ‘큐레이팅’ 할 수 있는 주민 기획자의 역할이 있다.

이러한 마을큐레이터와 시민기록자의 역할은 ‘문화해설사’의 그것으로 자기 역할을 제한하고 만족해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 마을큐레이터는 동네문화해설가 아니다. 무엇보다 동네에서 봉사한다는 프레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한 사람의 ‘동네지식인’으로 제2의 탄생을 하며, 지역문화원과 협력해 사심(私心) 가득한 의제 또는 기획들을 제안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역에는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심(私心) 가득한 기획들이 여럿 있다. 동네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는 우선적으로 지역을 새로운 눈으로 발견(發見)하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동네 혹은 지역에 오래 사는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남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아이가 코로나19 시대 교육 격차를 겪으며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지, 어느 집이 빈 집·빈 공간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느 어른신이 홀로 고립되어 사는지, 작은 도서관·복지관·문화시설에는 하던 대로의 프로그램이 아닌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인지, 지역 사람들이 주도하는 작은 축제는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우리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려는 재미있고 장난스러운 문화기획은 무엇인지...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고 욕망이 있을 수 있다. ‘희망 대신 욕망’이라 하지 않았던가. 내 안의 이러한 필요와 욕망들을 사심 가득한 눈으로 응시하고, 지역문화원을 활용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사람과 지역을 연관(relevance)시키려는 활동들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다. 최근 거버넌스 논란을 겪고 있지만, 오랫동안 서울 은평구 축제가 주민들의 사랑을 받은 데에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이 예술이다’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활동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연관성’이다. 박물관 비평가인 니나 사이먼은 『연관성의 예술』(연

암서가, 2018)에서 연관성은 관람자의 피상적이거나 말초적인 요구와 취향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쉽게 말해 어떤 박물관의 전시가 연관성을 보여준다면, 기존의 지식을 확인하는 곳이기를 훌쩍 뛰어넘어 나 자신과 세상을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니나 사이먼의 이러한 언급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통한 참여 공동체의 형성에 집중하고 헌신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연관성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마을큐레이터와 시민기록자는 기존의 박제된 지식을 소위 문화해설하듯이 반복하며 만족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에 사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지역을 연관시키는 활동을 해야 한다. 지역문화원이 자주 하는 활동인 지역 지도 제작, 지역 스토리 발굴,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 생활문화사업 같은 활동들도 어떻게 활동의 상투성을 넘어서고, 활동의 자폐성을 극복할 것인지 고민하며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마을큐레이터와 시민기록자는 연관성을 활성화시키는 동네지식인으로 변신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네지식인은 소위 흥반장 같은 존재가 아니다. 동네지식인이라는 말은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사물을 바라볼 때 ‘낮은 이론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역설한 개념을 내 식으로 풀어본 말이다. 동네지식인은 문화예술활동-문화예술교육-평생학습-인생나눔교실-생활문화-마을큐레이터 활동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내가 사는 지역과 동네의 필요에 맞게 적절히 통합해서 운용運用할 수 있는 소셜 디자이너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맞다. 그런 낮은 이론가들은 지역 또는 동네에 사는 누군가의 사연을 잘 헤아려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연관성의 예술을 위하여

내가 사는 지역 혹은 동네가 모두를 위한(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절대적으로 환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낮은 외지인에게 자유롭고 개방적인 마을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환대하는 마음이 환대하는 마을(도시)을 만든다.

이 점에서 마을큐레이터와 시민기록자는 지역문화원과 더불어 협력하며 군겐도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일본에서 패션 브랜드 군겐도[群言堂]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주)이와미긴잔 생활문화연구소 마쓰바 도미 소장이 역설하는 군겐도 정신은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여럿이 함께의 마음과 태도 같은 것이다. 한 사람의 권력자가 높은 자리에서 하는 일방적인 말을 일본말로 이치겐도[一言堂]라고 한다. 하지만 군겐도 정신은 모두가 내놓은 의견을 종합해 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사티쉬 쿠마르)라는 감각을 구현한다고 해야 할까.

지역의 지속성을 위해 마을큐레이터와 시민기록자의 진화가 필요하다. 동네 문화기획자는 지역 혹은 동네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기록하고 재미있는 기획들을 수행하며 일상적으로 가벼운 교류들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특히 재미와 장난의 요소가 중요하다. ‘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감각을 더 강화하고, 타자에 대

한 문화다양성을 내재화하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자기 진화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마을큐레이터와 시민기록자는 하던 대로의 관행에서 벗어나 활동의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생각의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 결국,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마을큐레이터와 시민기록자인 ‘나부터’ 변해야 하고, 지역문화원이 ‘함께’ 변해야 한다. 지역이 저절로 변하지 않듯이, 지역문화원의 변화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늘 같은 레파토리로 동어반복을 하지 않으려는 자기부정의 정신은 당연히 요구된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떻게 비빌리힐스(비빌리Hills)가 될 수 있는지 모험하며 실행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 비빌리힐스는 비빌 언덕이라는 우리말에 마을[里]과 언덕(Hills)이라는 말을 합성해 내가 조합한 말이다. 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지역문화원을 비롯해 마을큐레이터와 시민기록자들이 돌봄 전환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는 지역을 잘 아는 동네 문화기획자들이 동네의 재난 약자들

을 품으며 돌봄사회로 전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준비하고 함께 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 놀이가 살아있고, 관계가 살아있으며, 이야기가 살아있는 삶의 복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절대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문화예술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지역문화원과 마을큐레이터와 시민기록자들이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 그룹들과 함께 손을 잡고 고민하고 추진해보면 어떨까 싶다. 나는 이 점이야말로 지금 시대에 요청되는 연관성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지역문화원 또한 주민들과 협력해 합의된 프로젝트는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엄숙해지지 마시라. 유머 감각을 잊지 말라. 일본 산촌 가미야마를 취재한 간다 세이지의 『마을의 진화』(반비, 2020)에서 내 눈길을 끈 대목은 1인칭의 마음을 강조한 부분이었다. 가미야마의 진화는 마을의 주인은 ‘나’라는 1인칭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 1인칭의 마음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호기심과 가능성이 있고, 결국 가능성이 있는 곳에

는 사람들이 모인다. 나부터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삶터에서 밀도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삶에 밀도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질문이 시작된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연관성의 예술을 구현하려는 프로젝트는 멈추어서는 안된다.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마을기록과 아카이빙을 위하여

이영남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조교수

프롤로그

4.16기억저장소에서 진행된 청소년 기록단 활동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아카이브에 대해 말해본다. 4.16기억저장소는 2018년부터 매년 경기도 안산 지역의 10대 학생들(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록단>이라는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취지는 뭔가 새로운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활동장소는 기억저장소 내부였다. 그들은 순서를 정해서 임상역사를 써와서는 낭독을 했다. 낭독이 끝난 후에는 대화를 나눴다. 매주 2시간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3개월을 보냈다. 그들에게 그 시간은 교육장, 기억교실, 4.16기억전시관을 옮겨 다니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기도 했다.

임상역사는 여럿이 모여 앉아 자기역사를 쓰는 시간을 말한다. <청소년 기록단>의 임상역사는 연대기 형식을 취해서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자신의 삶에서 왔다 갔는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기록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인 독백도 아니고, 일기와도 다른 기록형식이다. 아카이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임상역사를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역사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4.16기억저장소의 특별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4.16기억저장소에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기도 하다. 아카이브의 임상역사는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기록이지만, 1차적 타인(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는 포레

친구들)과 2차적 타인(예를 들어 세월호 희생자들)으로부터 시작하는 기록과 만나서 수용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변형시키는 데까지 가야 하는 기록이다.

4.16기억저장소는 ‘4.16을 아카이빙 하는 곳’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아카이브이다. 사실 4.16기억저장소는 안산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안산 지역을 아카이빙하는 마을아카이브라고 좁게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안산의 지역성을 생각하지 않고서, 그리고 안산의 시민들과의 관계성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 운영이 쉽지 않다. 4.16기억저장소의 한 축은 마을아카이브이다. 그래서 4.16기억저장소는 마을아카이브 프로젝트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 마을아카이브는 2018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집중 피해 지역인 고잔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목적은 4.16 참사가 지역사회에 남긴 소중한 의미와 기억들을 마을차원에서 기록하여 마을공동체의 가치회복과 정체성을 확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주체는 지역 주민들이다. 이들은 4.16 기억저장소에 모여 교육을 받고, 마

을의 주요 장소와 사람들을 만나서 기록을 수집하는 활동을 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마을기억 구술사업>, <마을기록 활동가 양성 과정>, 그리고 <청소년 기록단> 활동이 있다.

<청소년 기록단> 활동은 마을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일환이면서, 동시에 그 구체적인 활동이 임상역사라는 점에서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마을아카이브의 일환이기도 하다. 기억교실 활동을 중심으로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마을기록과 아카이빙에 대해 말해본다(4.16기억전시관 활동은 생략한다).

기억교실에서

이날은 기억교실 활동을 하는 날이었다. ‘집단행동이고 관리가 필요한 10대이니만큼 교육적 목적의 지침’이 필요했다. 제목은 ‘4.16 기억교실에 앉아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첫 문장은 ‘4.16 기억교실에 앉아서 침묵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공통의 문장을 가슴

에 품고 흠뻑 젖었다. 2학년 1반부터 한 반 한 반 복도에 면해 있었다. 10대의 기록자들은 천천히 기억교실의 어느 반으로 찾아 걸어갔다.

여러 유형의 기록행동이 있었다. 2학년 1반부터 한 반 한 반 들어가 꼼꼼하게 살피거나, 복도를 걸으며 망설이다 충동적으로 어느 교실에 들어가거나 했다. 들어가는 교단 가까운 곳의 한 책상에 내내 앉아 있거나, 여러 책상을 서서히 옮겨 다니거나 했다. 책상에 앉아서는 기록(유품, 꽃, 사람들이 뭔가를 적어 놓은 노트)을 만지거나, 읽거나, 그리고 몸을 기울여 노트에 쓰기도 했다. 때로는 사방을 두리번 거리기도 했다. 순이(가명)는 편지를 주로 읽었다. “오빠, 그곳에는 봄이 왔나요?”로 시작되는 안부 편지를 읽었던 것이, 순이는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이 편지는 팽목항에서 만난 엄마를 대신 꼭 안아주었다는 한 학생이 썼다. 편지의 어떤 문장은 뽀뽀뽀뽀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쓰면서 마음이 요동쳤기 때문일 것이라고 순이는 덧붙였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교실에 머물러 있었다. 이 시

간은 교과서를 읽는 시간이 아니었다. 마음 아픈 기록을 읽는 시간이었다.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와 침묵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때 침묵의 대화는 자기 자신과의 내적 대화이기도 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다들 원래의 교육장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둥근 탁자를 마주하고서는 대화를 나눌 태세를 갖췄다. 먼저 기억교실에서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무엇이었는지 써나갔다. 쓴 다음에는 한 사람씩 낭독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고 대화하는 익숙한 패턴이 이어졌다. 현(가명)의 차례가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단원고 2학년 희생자 선배들과 유가족, 기억교실을 방문했던 분들, 그리고 우리들 청소년들’)과 마음으로 만나고, 생각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저의 시선을 끈 색다른 아이가 보였습니다. 바로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초등학교 5학년인 저였습니다. ... 중학생

이 되었을 때는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고등학생 선배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성적을 최우선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애쓰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 5년 동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똑같이 겪었을 선배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지금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저도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에 선배들 역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 이번에 청소년 기록단 활동을 통해 기억교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날 선배들이 느꼈을 고통스런 감정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제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제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교 1학년인 현은 중학생 때 이미 4.16 청소년 활동을 했었다. 현이 앉았던 책상은 현이 2년 전 왔을 때 앉았던 곳이었다. 현은 그곳에서 자신이 2년 전에 기록했던 페이지를 다시 찾아 읽었다. 2년 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골몰했던 현은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윤리

적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현에게는 폭력의 기억이 있었다. 현은 연대기에서 파도림의 역사에 대해 쓴 바가 있었다. 현은 잠시 파도림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 그때 폭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냐는 교사의 질문에, 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 저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더라도 평화로 폭력에 맞서고 싶었습니다.” 낮은 음성으로 말하는 현의 눈빛에서 매우 진지한 빛이 새어 나왔다. 현은 학업 성적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었다. 독서량도 엄청났다. 읽지 않은 책이 없을 정도였다. 현의 독서량은 방문 아키비스트를 압도했다. 그런데도 현은 자신이 ‘학업성적 뛰어난 모범생’으로 사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현은 기억교실에 앉았던 2년 전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 숙고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현의 마음에는 2년 전 그날부터 ‘기억교실 이미지’가 서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기억교실에 출처를 둔 윤리적 숙고가 현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아닐까 한다.

기억교실에는 편지기록이 많다. 편지에는 그리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담겨 있다. 다짐의 말도 빼곡하다. 경향각지에서 온 사람들, 멀리 이국에서 온 사람들이 기억교실에 앉아 편지를 썼다. 그런데 기억교실에서 보낸 편지는 어떤 경로로 배달이 될까? 또는 누가 기억교실 편지를 배달해 줄까? 순이는 기억교실에서 주로 편지를 읽었다고 했다. 순이가 낭독을 시작했다.

저는 편지를 찾아 읽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정말 많은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희생자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 정말 보고 싶다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언젠가는 꼭 만나길 기다리겠다고 쓰여 있었는데, 정말 귀에 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 언니가 동생에게 쓴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언니는 동생에게 다정하게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썼습니다.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에는 처음으로 표현하는 후회의 느낌이 가득했

습니다. 저도 동생이 있는 언니로서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정말 많이 후회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 동생에게 더 잘해줘서 나중에 후회하거나 미안해할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드기를 바라며 행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순이는 기억교실에서 주로 편지를 찾아 읽더니 편지에 대해 말했다. 순이에게는 동생이 있다. 순이는 어린 동생을 키우다시피 하면서 엄마처럼 돌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고민이었다. 그 전에 순이가 연대기를 써와서 낭독하고 대화를 나눌 때였는데, 그때 순이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언니였다. 당시 모여 앉은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동생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언니’에 대해 대화를 한창 나눈 바가 있었다. 순이는 자신의 마음을 대신 기록해준 편지를 발견하고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동생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언니로의 변신에 필요한 용기를 순이는 기억교실에서 취득할 수 있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몇 년 뒤에 순이라는 이름의 한 학생이 와서 편지를 읽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나아가 그 편지를 읽은 순이가 사랑이란 표현하는 것이니 나도 동생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다정다감한 언니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장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아카이브의 기록정보서비스는 자매지간의 관계성을 증진시키고 있었다. 순이는 편지란 전달력이 있는 기록이라고 했다. 그것은 아마도 편지가 ‘관계형 기록’이기 때문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대화를 나누었다.

연민의 대화

기억교실에 다녀온 후 나눈 대화는 연민의 대화였다. 기억교실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 어떤 시를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드는’ 곳을 다녀온 후 대화를 나누었다. 그곳에서 영

덩이 붙이고 앉아서 머물렀던 그들은 고통을 대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고통을 대면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연대기를 쓰면서도 자기 삶의 고통을 대면했었다. 같이 역사를 쓰는 친구들의 고통도 대면한 바도 있었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고통을 대면해야 자기 삶에 진실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연민의 대화는 어렵지만 기억교실에서 나눌 대화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연민은 슬픔에 속한다. 그러나 연민은 동정과 다르다고 한다. 연민은 고통에 처한 사람과 함께 흔들리는 것,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다. 연민이 연민일 수 있으려면 인간적 접촉과 이해, 친절함과 다정함, 다독임, 자비와 용서 같은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이 보여준 연민은 이런 연민이었다. 연대기에서도, 기억교실 활동에서도 고통을 마주할 때면 청소년 기록단원들은 어린 나이인데도 참 따뜻하게 서로를 보살펴주었다. 왜 그런지 귀 기울여 들었고,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공감했다. 눈을 마주치고 가볍게 웃으며 대화했다.

슬프게도, 기억교실은 원래 따뜻한 곳이였다. “글쎄, 기억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있던 공간이거든요.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웃음소리가 머무는 공간, 그리고 마지막 수업을 했던 공간, 마지막 손길이 머물러 있던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들떠서 수업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막 들떠서 뭐, 친구든 엄마든 아빠든 막 연락을 취했던 그런 공간.” 기억교실의 달력에는 ‘웃음과 손길이 들뜬 4월’이 있다. 청소년 기록단원은 이런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교실에서는 침묵과 기다림의 대화가 있었다. 교육장으로 복귀한 뒤에는 연민의 대화가 이었다. 연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연민의 대화에는 자신이 마주한 고통의 상황을 상호협력하며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청소년 기록단원들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기억교실 활동이라는 그 사건이 내 삶을 잘 지켜주었다고 말할 때가 있기를 희망한다. 만약 그

렇다면, 그 사건이 수록될 내면의 문서철에는 ‘라일락이 피어 있는 아카이브’라는 이름을 적어두어야 할 것 같다. 삶과 죽음이 공생하는 기록의 대지에 영원의 씨앗인 공간기록(기억교실)이 자리를 잡았다. 세상에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여전하지만 이곳에는 발아를 기다리는 씨앗의 생명력이 살아있다.

에필로그

〈청소년 기록단〉의 마지막 활동은 ‘화양연화’였다. 화양연화는 ‘인생의 아름다운 한때’라는 뜻이다. 이날은 웃는 날이었다. 화양연화는 초청행사로 진행이 되었다. 그 동안은 청소년 기록단원들만 있었는데 이날은 초청장을 받고 온 ‘낯선 이방인’도 합류했다. 청소년 기록단원들이 초청한 이방인 중에는 엄마도 있었고, 아빠도 있었다. 2019년에는 엄마, 아빠 각각 한 사람이 초청에 응했다. 2020년에 경우에는 엄마 셋, 아빠 셋이 초청에 응해주었다. 엄마도 아빠도 이날은 청소년 기록단원이 되

어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초청 손님에는 친구들도 있었다.

엄마는 딸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었다. 딸은 평소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엄마인데도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했다. 그동안 했던 이야기일 경우에는 해석이 달랐다. 딸의 생각과 의지에 보다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것은 딸이 엄마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었다. 엄마랑 단둘이 앉아 비밀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써온 것을 동무들에게 낭독하는 자리에 그날은 엄마도 ‘이방인-증인’으로 참여해서 듣는 형식이었다. 엄마는 딸이 동무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가만히 지켜보았다. 시간이 지나자 엄마도 자신의 역사를 살짝 꺼내면서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딸도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엄마는 늘 엄마가 아니었다. 엄마도 10대 시절에 딸처럼 이런저런 여고생이었다. 딸은 자신의 지금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엄마의 모습에 호감을 갖고 다가갔다.

딸의 초청을 받은 아빠도 향연에 참여해서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도 듣지 못

하는 딸의 이야기를 아빠가 듣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딸이 아빠를 초대할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아빠와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던 딸은 용기를 내보고 싶었다. 아빠를 깊이 사랑하지만 대화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던지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무심한 아빠도 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친밀한 대화임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물론 아빠는 낯설어하는 것 같았다. 딸이 초대를 해줘서 신나게 오긴 했지만 뭔가 속 얘기를 털어놓는 것 같은 분위기에는 쉽게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도 자신의 역사를 살짝 꺼내면서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딸도 아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아빠도 아빠 나름의 삶을 살아왔으며 사실은 딸과 깊은 대화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빠에 대한 불만 중에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었다는 것을, 딸은 알 수 있었다.

그동안은 10대의 대화였다. 그런데 이번

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어우러진 세대 간 대화가 되었다. 의식이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형식이 내용을 구성한다는 말도 있다. 집에서라면 너무 익숙해져 버려 나누지 못했을 대화를, ‘낯선 기억전시관’이어서 나눌 수 있었다. 기억전시관은 대화의 장소였다. 대화는 상대를 배우는 언어적 행위이다. 엄마는 딸을 배우고, 딸은 엄마를 배웠다. 아빠는 딸을 배우고 딸도 아빠를 배울 수 있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경험이 진실하며 그 사람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엄마와 아빠는 딸이 어떤 경험을 하며 성장했는지, 어떻게 오늘이 있는 것인지를 찬찬히 들었고, 자식의 경험을 자기 삶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었다. 한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억저장소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안에 들어와 앉아서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다. 기억저장소에 대해, 4.16 참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딸 또래의 아이들과 이렇게 오래(4시

간) 이야기를 나눠본 것은 처음이었다. 내 자식도 내 자식 또래의 친구들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딸만 키우다가 사내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많아서 듣기가 좋았다. 무엇보다 자기 나름의 단단한 계획을 세우고 산다는 점이 놀라웠다. 10대 청소년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편견이 깨졌다. 청소년 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은 줄어들었고 관심은 늘어났다.

모임이 끝나갈 때 모두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천장에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자식들이 있었다. 비록 같이 탁자에 앉지는 못했지만 천장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들도 대화에 참여했을 것 같다. 예전에는 마을 어귀에 돌부처가 있었다. 마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나가 돌부처를 찾았다. 돌부처는 정말 긴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중생을 맞아 침묵의 대화를 나눴다. 듣는 것으로 충분했었다. 이제 돌부처가 있는 마을을 찾기는 어렵다. 요즘은 텃밭정원(organic garden)을 가꾸는 마

을이 늘어나고 있다. 텃밭정원은 채소와 꽃을 함께 심는 정원이다. 텃밭정원에 심는 채소에 허브가 있다. 허브 중에는 가장 키가 크고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한 깃털 모양의 잎을 가진 회향(훤넬)이 있다. 여러 해살이로 한번 심으면 여러 해 동안 계속 번지는 특성이 있어 한곳에 모아서 심는 것이 좋다고 한다. 회향의 꽃은 이로운 곤충을 불러들여 진딧물을 막고, 씨앗은 다 이어트에 효능이 있어 빵에 넣어 먹기도 한다. 회향은 두루두루 이로운 허브이다. 외롭게 홀로 있는 돌부처보다는, 마을에 자리를 잡고 생태계의 일부를 이루는 회향 같은 허브가 지금 시대에는 더 어울릴 것 같다. 화양연화가 있었던 자리, 그리고 청소년 기록단원들이 활동을 하며 머물렀던 기억저장소의 이곳저곳은 회향이 모여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 글은 2020년 10월에 발간된 『기록학연구』
(한국기록학회) 제66호에 실린 글인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의 일부를 조금 손본 글
이다

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사업

N개의 지역읽기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인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발행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www.kccfgg.org
주소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전화	031-239-1020
팩스	031-239-3785
이메일	kccf-kg21@hanmail.net
주최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총괄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글쓴이	민병은, 신희영, 오다예
진행	장세영
협력	오산문화원, 의왕문화원, 의정부문화원, 이천문화원, 하남문화원
교정교열	박소현
디자인	도조성재

ISBN 979-11-89046-19-4

본 보고서는 2020년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실린 글과 도판을 다른 곳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모두에게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